



113 YONSEI
1915 2025 SCHOOL OF
BUSINESS

2025

연세경영 연차보고서



2025 연세경영 연차보고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은 Creativity, Integrity, Global Perspective 3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최초를 넘어 최고의 Creative Leadership을 실현해 왔습니다. 미래를 위한 교육과정과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판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교육과 선도적 연구를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YONSEI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CONTENTS

PART 1

YSB OVERVIEW

- 04 Facts & Figures
- 06 From the Dean
- 07 Leadership
- 08 History
- 10 Vision & Mission
- 11 World Ranking
- 12 New Faculty

PART 2

EDUCATION

- 16 Degree Programs
- 20 Education
- 26 Innovation
- 28 Career Development Center
- 30 YVIP
- 32 Global In / Out Program
- 34 Global Study Program (GSP)
- 36 Global News

PART 3

FACULTY & RESEARCH

- 42 Faculty
- 44 경영대학 교원 퇴임기념식
구본일 교수·손성규 교수·서길수 교수
신동엽 교수·이호근 교수·정승화 교수
- 46 Faculty Awards
- 47 YSB Research
교수진 국제·국내 학술지
석박사 학생 국제·국내 학술지
석박사 학술대회 논문 채택 및 학회 발표
교수진 도서 출간
우수연구업적교수
- 54 교수진 학술지 게재
변성준 교수
이승우 교수
- 58 연세경영 BK21 FOUR 교육연구단
- 60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PART 4

IMPACT & NETWORK

- 66 경영학과 졸업생 진로
- 68 YSB People
이윤지 (취소브먼트 대표이사)
이승민 신세계 인터내셔널 코스메틱 2부문 대표이사 / 어뮤즈 코리아 대표이사
오치훈 대한제강(주) 회장 /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학 동창회 제29대 동창회장
한정필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US) Provost's Chair 교수
김찬호 CJ제일제당 전략지원부문 대표
김원철 화성지앤아이(주) 대표 / EMBA 15기 원우회장
이석우 (주)정림개발 메이필드호텔 상무
- 84 YSB Network
연세경영 A/S특강
상경-경영대학 졸업 25-50주년 재상봉 행사 / 동문 멘토링
연세 상경인의 밤 / 연세 MBA ALWAYS ON-AIR Year End Party
Global MBA Alumni Q&A Mentoring / Guest Speaker 특강
경영대학 연경Prep.
홍보대사 비즈연 / CPA 고시실 개관식
MBA 리더십개발 프로그램
최고경영자과정(AMP) 세미나워크숍

PART 5

DONATION

- 102 기부 소식
- 110 기부 현황
- 112 기부 참여자 명단
- 116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YSB OVERVIEW

04
**FACTS &
FIGURES**

06
**FROM
THE DEAN**

07
LEADERSHIP

08
HISTORY

10
**VISION &
MISSION**

11
**WORLD
RANKING**

12
**NEW
FACULTY**

Facts & Figures

2025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은 질적, 양적으로 도약과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오늘의 연세경영을 보여주는 수치에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세계로 영향력을 확장해 온 혁신과 도전이 담겨 있습니다.

학생 | 학부, 석·박사, MBA, AMP

재학생
(명) **3,288**

신입생
(명) **939**

졸업생
(명) **974**

과목

개설 과목
(개) **243**

영어강의 과목
% **39.34**
▲ 학부 기준

교수진 * 2025. 03 기준

교원
(명) **145**

전임
(명) **62**

명예
(명) **30**

겸·특임
(명) **11**

객원
(명) **46**

연구
(명) **3**

강사
(명) **0**

논문 실적 * 2025. 01 ~ 12

게재 논문
(편) **123**
▲ 학부, MBA 기준

국제

자체 해외 교류 협력교
(개 교)

76

교환학생
(명)

▲ 학부, MBA IN / OUT 전체

605

경영교육 인증

보유 경영인증
(개)

▲ 2025년도 EQUIS 5년간 재인증 획득

4

국외
(개)

3



국내
(개)

1



세계대학 순위

QS

(세계 순위)

82

▲ Full-Time MBA (Global MBA)

QS

(세계 순위)

34

▲ Business & Management

QS

(세계 순위)

51

▲ Accounting & Finance

THE

(세계 순위)

84

▲ Business & Economics

장학 | 학부, 석·박사, MBA

연간 장학금 수혜 총액
(억 원)

76.8

모금 참여자
(명)

278

모금 약정액
(억 원)

10.46

From The Dean

연세경영 창립 110년 기념의 해를 넘어 동문과 함께 AI 시대 교육·연구 혁신을 선도합니다.

연세경영에 보내주시는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은 연세대학교 설립 140주년, 연희전문 상학과 설립 110주년, 경영전문대학원 설립 60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반 위에서 연세경영은 교육과 연구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세계적 수준의 경영대학으로 도약해 왔습니다.

그 결과, QS 세계대학평가 Business & Management 분야 국내 1위·세계 34위, Global MBA 국내 1위·세계 82위를 기록하였으며, Financial Times 평가에서는 Executive MBA가 국내 1위·세계 49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유럽경영교육인증(EQUIS) 5년 재인증을 세 번째로 획득하여 AACSB-EQUIS-AMBA 국제 인증을 모두 보유한 국내 유일의 경영대학으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학술 분야에서는 '초헌학술상 제정 22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연세경영의 연구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 학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더불어 팬데믹 이후 재가동된 연세창업혁신플랫폼(YVIP)은 AI와 창업을 중심으로 교육과 연구, 글로벌 네트워크를 연결하며 연세경영의 혁신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 측면에서도 CPA 고시실을 확충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동문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과 모교 사랑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입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연세경영은 앞으로도 인공 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 혁신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바탕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이끄는 경영대학으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학교와 동문, 그리고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본 연차보고서를 통해 연세경영의 주요 성과와 비전, 그리고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연세경영을 향한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Hui Dae-sik

허 대 식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Leadership

* 2026. 3. 1. 기준

경영대학 / 경영전문대학원

YONSEI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허대식 학장 겸 원장

곽주영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박승재 교학부학장

류원상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주임교수
조대곤 기획(국제)부학장

이재영 마케팅 분야 주임교수
김지현 매니지먼트 분야 주임교수
한재훈 재무 분야 주임교수
문두철 회계 분야 주임교수
민순홍 O.D.I. 분야 주임교수

민순홍 AMP 주임교수
서승범 Corporate MBA 운영교수
이지운 Finance MBA 운영교수
임 일 Executive MBA 17기 담임 운영교수
정승환 Global MBA 운영교수
최순규 GBI MBA 주임교수
방영석 Advanced MBA 주임교수
손재열 Police MBA 주임교수

상남경영원 SANGNAM INSTITUTE OF MANAGEMENT

박세범 원 장
정수미 부원장

경영연구소 YONSEI BUSINESS RESEARCH INSTITUTE

윤대희 소 장
이지운 부소장

History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은 최초라는 명성에 걸맞게 항상 최고를 지향해 왔습니다. 1915년 창립 이래 4만3천백여 명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동문들은 한국 근대화의 역군이 되어 경제 발전을 주도하며 민주화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연세경영은 세계 무대에서도 오늘 인류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며 앞서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1915

조선기독교대학 내
상과 설립



1917

연희전문학교 발족

1919

상과 1회 졸업생
10명 배출



1946

연희대학교 종합대학
설립 인가

* 상학 180명 선발

1950

- 상학원을
상경대학으로 개칭
- 8년 후 워싱턴대학교
경영학 프로젝트 도입

1957

연세대학교로 통합



1958

경영학과 신설

1965

경영대학원 신설
석사 및 연구
과정 개설

1968

상학과를
경영학과로 통합

1969

백양관 건축



1976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AMP) 개설

1987

이한열 동문
민주화 운동

1996

상경관(대우관) 건립



1998

Full-Time
Global MBA
국내 최초 개설

1999



경영대학원 부설
상남경영원 개원

2003

경영대학 출범

2006

경영전문대학원 출범



2008

국내 최초 미국 AACSB 및
한국 KABEA 인증 획득



2010

Financial Times (FT)
Corporate MBA
국내 최초
세계 100대 MBA 선정



2011 - 2012

- The Economist
Global MBA
국내 최초
세계 100대 MBA 선정
- 유럽 EQUIS 인증 획득
국내 최초 3개 인증 획득



2015

- 연세경영 100주년
최초의 독립 경영관 완공
- 국내 최초 LEED 인증
국제친환경 대학 건물

100 YONSEI SCHOOL OF BUSINESS



2020

4단계 BK21 사업 선정



2021

인공지능경영 융합 심화전공 개설



2025

- 연세경영 110주년
- 유럽 EQUIS 5년간 재인증 획득
- Quacquarelli Symonds (QS)
Business & Management
세계 34 위
Accounting & Finance
세계 51 위
Full-Time MBA (Global MBA)
세계 82 위
- Times Higher Education (THE)
Business & Economics
세계 84 위

110 YONSEI SCHOOL OF BUSINESS



2017

- 아모레퍼시픽과 YVIP
(연세창업혁신프로그램) 협약 체결
- 경영학과 창업심화 전공 제도 시행

AMOREPACIFIC

YVIP Yonsei Venture, Innovation, and Startup Program

2018

Times Higher Education (THE)
Global MBA
국내 최초 글로벌 랭킹 진입



2023

- 계약학과 Advanced MBA 신설
- 계약학과 Police MBA 신설
- 경영대학 '사회가치 실현 경영인재 교육연구단'
BK21 4단계 사업 재선정
- AACSB-KABEA 5년간 재인증 획득



2024

- 영국 AMBA 인증 획득
- 칭화대와 MBA 복수학위 협약 체결



Vision & Mission

VISION

글로벌 영향력과 협력을 통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영대학

To be Asia's leading business school in global impact and collaboration

MISSION

혁신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비즈니스 리더를 양성한다

To nurture, empower, and connect business leaders to make a significant
societal impact through innovative research and education

CORE VALUES

3대 핵심가치

학생들의 주도성과 참여도가 높은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커리큘럼
(Creative Leadership Curriculum)

- 창의성 *Creativity*
- 윤리성 *Integrity*
- 글로벌 시각 *Global Perspective*



World Ranking

HIGHLIGHTS

2025



Business
and Management

국내 1위 세계 34위

3월 12일, 2025 QS 학문분야별 세계대학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2025)가 발표되었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은 Business & Management 분야에서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국내 1위를 달성하였다. 특히, 올해 세계 랭킹은 34위로, 전년도 세계 랭킹 54위에서 20단계 도약하며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Accounting & Finance 분야는 전년 대비 14단계 오른 51위를 기록하며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QS는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으로, 'QS 학문분야별 세계대학순위'는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생명 5개 분야와 55개 세부학문분야를 기준으로 발표된다. 평가 항목은 다섯 가지다. ▲학계(연구) 평판도(Academic Reputation) ▲졸업생 평판도(석사 학위자 피고용능력/Employer Reputation) ▲논문당 피인용도(Citations per paper) ▲H-인덱스(H-index: 교수 생산성 및 영향력) ▲국제연구협력(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 IRN지수)이며 학과에 따라 반영 항목과 비율을 달리한다.

평가 분야	평가 기관	2022	2023	2024	2025
Business & Economics	THE Times Higher Education	78	44	47	84
Business & Management	QS Quacquarelli Symonds	54	43	54	34
Accounting & Finance	QS Quacquarelli Symonds	85	64	65	51
Marketing	QS Quacquarelli Symonds				
Full-time MBA (Global MBA)	QS Quacquarelli Symonds	141-150	121-130	101-110	82
Executive MBA	FT Financial Times	29		49	

New Faculty

* 2025학년도 2학기 ~ 2026학년도 1학기 부임 기준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재무 분야에 새롭게 합류한 최원창입니다. 저는 금융경제학 전반을 연구하며, 특히 자산가격결정이론, 포트폴리오 이론, 거시금융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제 연구는 자본이 금융시장과 경제 안에서 어떻게 이동하고 배분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제약이 자산가격과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래비용, 정보 비대칭, 불확실성 등으로 자본 이동이 원활하지 않을 때 시장 유동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자산가격이 어떤 경로로 조정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자산배분 결정과 포트폴리오 재조정 문제에도 관심을 두고 있으며, 거래비용과 시장 마찰이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과 리밸런싱 속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자본 재배분의 제약을 거시경제 차원으로 확장해, 자본이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충분히 이동하지 못할 때 자원 배분과 생산성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세경영에서 학생들과 이러한 주제를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며,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함께 보는 시각을 나누고, 연구와 교육 양면에서 꾸준히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 원 창 교수 | 재무

2025-2학기 부임



안녕하세요. 2026년 봄학기부터 새롭게 부임한 정승연입니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재무 분야 중 보험 영역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험은 금융산업의 중요한 축으로서 개인과 기업의 위험관리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자산운용, 투자, 보장, 위험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에 대한 이해와 학

습은 금융 분야에서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적 수준을 지향하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부응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학문적 성과를 통해 학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승 연 교수 | 재무

2026-1학기 부임







OVERVIEW

EDUCATION

16
DEGREE
PROGRAMS

20
EDUCATION

26
INNOVATION

28
CAREER
DEVELOPMENT
CENTER

30
YVIP

32
GLOBAL



DEG
PROG

혁신적인

학부

다양한 배경과 유망한 미래를 가진 약 2,400명의 재학생

5개 주요 전공

- Marketing (Marketing and International Business)
- Management
- Finance (Finance and Insurance)
- Accounting
- ODI (Operations, Decisions and Information)

석 · 박사

250여 명의 재학생

- 국제 학술대회 발표나 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와 같은 학술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
- 박사과정 학생 전원에게 보조금 또는 장학금 형태의 재정 지원 제공

MBA

Distinctive MBA Programs, customized to students

MBA 프로그램

- Corporate MBA (Part-time Evening MBA / Duration: 2 years)
- Finance MBA (Part-time Evening MBA / Duration: 2 years)
- Executive MBA (Part-time Weekend MBA / Duration: 2 years)
- Global MBA (Full-time English Only / Duration: 1.5 years)
- GBI MBA (Corporate-sponsored MBA / Duration: 1.5 years)
- Advanced MBA (Corporate-sponsored MBA / Duration: 2 years)
- Police MBA (Police Agency-sponsored MBA / Duration: 2 years)

AMP

1976년 최고경영자과정(AMP) 국내 최초로 개설

- 최고의 교수진과 전문가를 모시고 각계의 최고경영자들에게 최신의 경영이론과 응용기법을 전달
- 최고경영자로 하여금 미래를 보는 탁견과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을 개발하게 함은 물론 기업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기회를 제공
- 현재 5,000명이 넘는 동문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글로벌 리더로서 큰 공헌을 하고 있음

REE
RAMS

커리큘럼





경영대학에는 총 5개의 대분야 및 3개의 소전공이 실질적인 학과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분야 및 전공별로 독립된 교수진 및 석박사과정이 구성되어 심도 있는 학문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5개 대분야는 마케팅, 매니지먼트, 재무, 회계, ODI이고 국제경영은 마케팅 분야 내 전공으로, 오퍼레이션·경영과학·경영정보시스템 세 전공이 함께 모여 ODI를 구성하고 있다.

DEG PROG

혁신적인

마케팅

마케팅 분야는 상품의 홍보와 광고를 통해 소비자와 기업을 연결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경영학 분야 중에서도 트렌디하고 실용적인 학문으로 꼽힌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마케팅 분야는 학계와 산업계를 잇는 글로벌 연구 허브로서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발전과 소비자 행동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며 경제학, 심리학, 공학,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적 접근을 통해 연구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교육 측면에서는 디지털 마케팅, 소비자 행동, 브랜드 전략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제공해,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혁신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국제경영

국제경영 전공은 급변하는 국제 정치 및 경제 환경 속에서 글로벌 비즈니스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산으로 국제경영의 중요성은 한층 부각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국제화 전략과 역사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한국형 글로벌 경영 모델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다국적기업의 전략, 시장 환경에서의 대응 방식, 지속가능한 발전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학부 과정에서는 '세계경영환경론', '국제경영론', '세계신흥시장의 이해와 진출전략' 등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과목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 분야는 조직 현상과 관련한 심리·사회·경제적 특징을 탐구해 효과적인 조직 경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매니지먼트 분야는 크게 마이크로(Micro)와 매크로(Macro) 매니지먼트로 나뉘어져 있다.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는 조직행동과 인적자원관리를 포함하고, 미시적 차원에서 조직 내부의 개인과 리더, 팀의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과 조직이 어떤 관계를 맺고, 이러한 관계가 조직 현상과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노사관계론, 협상론, 리더십 연구도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분야에 포함된다. 매크로 매니지먼트는 조직이론과 전략경영을 포함하며, 조직을 분석 단위로 해 다른 조직 또는 외부 환경과 맺는 관계를 이해하고 조직의 변화와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에 대해 연구한다. 벤처경영(기업가정신), 혁신 및 기술 경영 또한 매크로 매니지먼트 분야에 포함된다.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조직 내외부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변화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영 전문성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니지먼트 분야는 전통적 이론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교육과 연구의 커리큘럼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미래 경영 환경에 대한 통찰력과 창의력 및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있다.

재무

재무 분야는 기업의 자금 조달과 운용, 투자 의사결정, 기업 가치의 평가 및 분석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다. 글로벌 금융 시장과 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인공지능 등 최신 분석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재무 이론의 심화와 확장을 추구하고 있다.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재무 지식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기관 인턴십, 산학 협력 프로젝트 등 실무 중심의 경험을 제공하며, AI와 데이터 사이언스를 접목한 융합과목 개설을 통해 교육과정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회계

회계 분야는 자본시장에서의 원활한 거래(trading)와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회계정보를 산출하는 과정과 이 정보를 전략적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학문이다. 회계분야 내 세부분야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회계감사 등이 있다. 재무회계는 기업의 투자자 및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위해 따라야 하는 기업회계기준을 중심으로 학습하며, 기업의 재무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해야 하는지를 분석한다.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제품 원가 산출, 성과평가 정보 제공, 예산 및 계획 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원가 시스템 및 성과평가 시스템과 경영자 보상시스템을 설계·운용하는 이론과 실무를 다룬다.

회계분야 전공자는 졸업 후 공인회계사(CPA), 금융기관
의 애널리스트 및 리스크관리 전문가, 금융감독기
관, 학계 및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
으며, 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
하게 된다. 특히, 우리 대학교는 공인회계사 최종합격
자 누적 배출 수 1위라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
수의 동문들이 회계법인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권, 연구기관, 학계(교수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ODI

오퍼레이션(OM)

오퍼레이션 전공은 신제품 및 신서비스의 설계, 생산
과 서비스 전달 프로세스, 구매 및 물류 등 공급망 전반
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포괄하는 학문이다. 글로벌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AI와 데이터
활용 역량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효과적으
로 분석·활용해, 지속 가능한 운영 전략
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양성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

해 필수과목인 '오퍼레이션 관리'를 중심으로, 공급망 및
물류 심화 과목, 서비스 오퍼레이션 과목, 오퍼레이션 및
서비스 혁신 관련 과목, 그리고 AI 응용 및 데이터 분석과
연계된 오퍼레이션 특화 과목 등 다양한 심화 과정을 제
공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
라 오퍼레이션 전공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글
로벌 제조기업의 이론과 실제' 과목에서는 급변하는 글
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기업이 갖추어야 할 전략적 경쟁
력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며, 다양한 애널리틱스 중심
의 과목을 통해 학생들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을 실
질적으로 함양하고 있다.

경영과학(MS)

경영과학 전공은 경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수리적·정량적·과학적 기법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학문
이다. 머신러닝, 인공지능, 고급 통계 모델링 기술의 비
약적인 발전에 따라, 경영과학의 역할은 단순한 모델 구
축을 넘어 미래 예측과 복잡한 환경에서의 최적화된 전
략 수립으로 확장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경영과학은 최
적화, 시뮬레이션, 통계 분석 등을 통해 효과적인 의사결
정 모델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최

신 기술을 접목해 보다 정교하고 실용적인 문제해결 능
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학부 과정에서는 '경영수학', '경영시뮬레이션', '불확실성
과 최적의 의사결정' 등 핵심 과목을 제공하며, 정량적 분
석력과 실질적인 의사결정 역량을 함께 갖춘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경영정보시스템(IS)

경영정보시스템 전공은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활용 역
량을 기반으로 기업과 사회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
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요
구되는 디지털 혁신을 이끌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며, 비즈니
스 애널리틱스와 AI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
해 '경영정보시스템' 과목을 필수로 제공하고 있으며, '생
성형 AI 기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비즈니스 애널리틱
스를 위한 머신러닝', '개인화 추천시스템' 등 다양한 선
택과목을 통해 실무와 학문을 연결하는 교육을 제공하
고 있다.

REE RAMS

커리큘럼



Bachel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대학 경영학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창업심화전공과 인공지능경영 융합 심화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심화전공

기업가정신을 갖추고 실전 창업 교육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본 심화전공은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창업 경진대회 참가,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포함한 교과목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과정을 익히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경영학 전공자 및 복수 전공자 대상으로, 학생들은 창업심화전공을 통해 창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미리 경험하며 이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 경영대학은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혁신적인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한 창업가로 학생들의 창업 도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영학 창업심화전공 이수요건

대상	경영학 1전공자 및 2전공자 (2016학번부터)
이수요건	YVIP 커리큘럼 · Opportunity & Ideation · New Product Development & Technology Venture · Entrepreneurship & Social Venture · Innovation Management 비교과과정 · 교내·외 창업경진대회 참가 · 사회현장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교과목 최소 1개 창업심화전공 60학점 1, 2전공 전공요건 48학점 + 12학점 추가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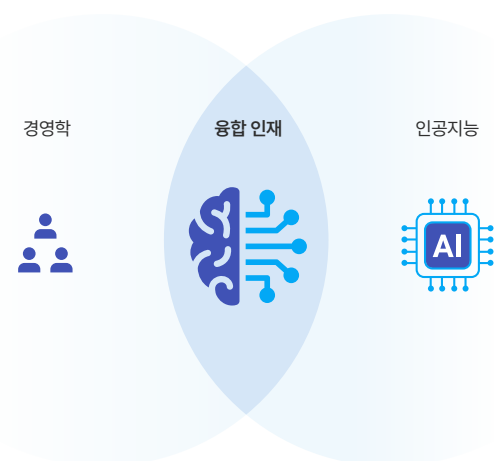
학부 새내기 새로배움터



인공지능경영 융합 심화전공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으로 부상한 인공지능(AI) 기술을 경영 분야와 융합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경영대학은 인공지능융합대학과 공동으로 '인공지능경영 융합 심화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본 심화전공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비즈니스 모델의 기획·활용·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융합형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경영학과는 AI융합심화전공사업 초창기부터 참여하여 융합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2025년까지 누적 100명 이상의 학생을 선발하여 AI와 경영학을 접목한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



인공지능경영 융합 심화전공은 인공지능융합대학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데이터사이언스, 자연어처리 등 핵심 기술 교육과 함께, 경영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기반 교과목을 결합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AI 기술이 경영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폭넓게 학습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 요구되는 실무적·융합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경영대학은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교육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인공지능 코어과목

- 인공지능프로그래밍
- 인공지능알고리즘
- 인공지능개론및응용
- 딥러닝개론및응용
- 데이터사이언스개론
- 자연어처리와챗지피티

이 중 5개
15학점

필수과목

- 인공지능경영입문프로젝트
- 인공지능융합실습
- 컴퓨팅연구개론
- 생성형AI기반의비즈니스애널리틱스
- AI와오퍼레이션애널리틱스

이 중 1개
3학점

경영대학은 2월 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2박 3일간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5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경영대학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의 출발점에서 새로운 학우들과 교류하고, 경영대학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다질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이번 새내기 새로배움터에는 경영대학 신입생 275명과 재학생 111명이 함께 참여했다. 신입생들은 재학생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선후배 간 교류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반별 레크리에이션, 동아리 공연, 응원 OT 등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반별 레크리에이션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며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동아리 공연과 응원 OT는 현장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며 연세인으로서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높였다.



이번 행사에는 김종환 경영대학 교학부학장이 동행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모든 일정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했다.

2025 새내기 새로배움터는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경영대학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창업공간 이글루

2020년 초 경영관 건물 2층(209호)에 창업공간을 확충하고, 해당 공간을 이글루 및 이글루라운지로 명명하였다. 연세대학교 경영대 학생 1인 이상 포함된 예비창업자(팀)에게 공간을 무상 제공하여, 구상 중인 창업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구체화할 수 있는 창업 인큐베이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5-2학기 이글루 입주 6개 창업팀

팀명	사업아이템
(주)스튜디오 다시물결	친환경 바이오매스 신소재 기반 교체형 칫솔 개발
Retune AI	성우와 보이스 모델을 결합한 차세대 더빙 AI 솔루션
아지토	라이브 아이돌 팬과 소속사를 위한 통합 플랫폼
FLAT Inc.	패션 인재 탐색을 위한 소셜미디어 기반 플랫폼
리필라	세계 유일 해양 생분해 인증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서브가드	방송·OTT 제작 현장 자막 품질 관리 SaaS QC 솔루션

우수창업팀 소개 (FLAT Inc.)

FLAT Inc.의 <쿠트>는 패션/뷰티 콘텐츠 산업을 위한 비즈니스 SNS로, 브랜드와 프리랜서들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쿠트>의 핵심 기능으로는 이미지 중심 포트폴리오 피드, 컴카드(패션/뷰티 명함), 리크루팅 공고, 커뮤니티 게시판이 있으며, 주요 소비자층은 패션/뷰티 브랜드 및 프로덕션 담당자(B2B)와 모델, 포토그래퍼, 스타일리스트 등의 프리랜서(B2C)다.

<쿠트>는 아웃바운딩 마케팅만으로 누적 사용자 약 3,000명, MAU 약 300명을 확보했으며, 2025년 하반기 서비스 가입 전환율 43.8%, 포트폴리오 실등록률 41.3%, 유지율 40% 이상을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및 시니어모델협회와의 협업, Y-Compass 최우수(S) 수료, 프랑스 비바테크 글로벌 프로그램 학생 대표 참여 등 2025년 한 해 다수의 성과를 거뒀다.



기업탐방

경영대학은 HD현대와의 인재양성 MOU 프로그램을 통해 매 학기 HD현대 기업탐방 기회와 채용 연계형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탐방에서는 HD현대 GRC를 직접 방문해 기업 문화를 체험하고, 선배 멘토들과의 만남을 통해 커리어 패스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들 수 있으며, 채용전환형 인턴을 진행한 뒤 HD현대에 입사해 근무하기도 한다.



HD현대 - GRC 기업탐방

6월 24일(화)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 R&D 센터(GRC)에서 기업 견학 및 커리어멘토링 프로그램이 개최되었다.

이날 탐방에는 선착순 신청을 통해 선발된 연세대 경영대학 3학년 이상 학부생 40여 명이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출발해 HD현대 GRC에 도착한 후, HD현대 임원진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사옥 투어, 멘토 소개와 아이스브레이킹, 조별 점심식사와 티타임, 기업 투어 등 유익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소화하였다.



이어진 주제별 멘토링 세션에서는 현업에서의 업무 경험과 취업 준비 조언을 듣고, HD현대의 비전, 복지제도, 채용 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받으며 참여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우수한 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선배 멘토들과 소통하면서 경력 개발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의 학생 만족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측정되어(4.95/5.0점 만점) 학생들에게 필요한 유익한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었다.

연세대 경영대학은 앞으로도 HD현대와의 협업을 이어가며 학생들에게 폭넓은 현장 경험과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Y-Startup 3기 학생 주도 창업실전 프로그램 실시



경영대학 YVIP(연세창업혁신프로그램)와 학생 창업 액셀러레이터 Y-Ventures가 공동 주최한 'Y-Startup 3기'가 2026년 1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6주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세대학교 경영관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정기 세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총 60명의 신청자 중 선발된 32명의 학부 및 대학원생이 12팀으로 나뉘어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의 핵심 성과로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 10점 만점에 8.71점을 기록하였고, 참여팀의 58.8%가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팀과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과반수 이상이 실제 창업으로의 연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자기평가 기준 학습 성과에서도 창업 흥미(4.35/5.0), 문제정의·가설설계·검증 속지(4.18/5.0), 실전 경험 습득(4.18/5.0), 문제 해결 능력 향상(4.18/5.0)



등 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일부 팀 기준으로는 WAU 360~397명, 100명 규모의 유저 확보 및 베타테스터 모집, Pre-order 기반 실거래 발생 등 초기 트랙션 및 시장 검증 사례도 확보되었다.

참여자 구성 면에서는 상경/경영대학과 공과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언더우드국제대학, 인공지능융합대학,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치과대학 등 다양한 단과대학 학생들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학제 간 융합형 팀 구성이 이루어졌다. 참여자 피드백에서는 현직 창업가 강연의 퀄리티, 피어 멘토의 밀착 멘토링, 4주차 아산나눔재단 MARU 180에서 진행된 밤샘 해커톤을 통한 프로젝트 제작 경험이 주요 만족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한 참가자는 "운영진/멘토의 밀착 지원으로 실행까지 밀어붙이는 경험을 얻었다. 방학 기간에 팀으로 MVP를 만들고 검증하는 것 자체가 큰 동기 부여가 됐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하였다.

Y-Ventures와 YVIP는 향후 Y-Startup 4기 운영과 함께, 커뮤니티 운영 및 초기 창업팀 액셀러레이팅 Boost Program 선발, 그리고 경영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YVIP 후속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단순 교육을 넘어, 실제로 창업하고 성장하는 학생이 나오는 연세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경영대학 최우등·우등·우수·Class MVP

2025-1학기

《 최우등 》

Cedric Niklas Becker

구나연
권오수
권우림
권태영
김경은
김나영
김나형
김동엽
김동현
김민재
김성윤
김소연
김수연
김수진
김시온
김윤희
김한비
남동현
노유진
문혜준
박가은
박규남
박민주
박성제
박예린
박주형
박지민
백진형
신선희
신유빈
신정인
양준서
양준서
염재민
원치현
유아리

윤도영

윤준상

이성진

이세정

이윤성

이진규

이채민

이현서

임건형

장서영

장진형

전원재

정다희

정윤진

조시은

조예진

주시환

지현우

최부건

최승림

최한별

한정현

함수아

황예원

《 우등 》

Arman Auken

DACHUAN LI

MEAR Charlotte Magatte

김민주

김우진

김창현

이호준

《 우수 》

NGUYEN HONG BAO THOA

가준서

강지효

고민정

고예빈

곽민찬

구성훈

구승찬

구지윤

권혁민

김경민

김민서

김민석

김민재

김상우

김소원

김수빈

김시원

김재이

김준영

김태우

김태현

김혜원

김효린

나예진

남승훈

노미리

모수민

문지우

민지현

박서현

박성우

박성호

박소연

박 준

박지영

박혜민

방세한

서준혁

안지영

안희원

엄가원

오은지

오지원

윤서연

윤소영

윤예준

윤준하

윤희제

이동윤

이민형

이서윤

이소연

이아정

이예림

이예찬

이우진

이정윤

이하나

이현종

이효정

임강열

임현지

장서은

장세훈

장소정

장희승

전시우

정상옥

정서은

정 윤

정준혁

정하윤

조민영

조윤서

차수영

최수오

최인서

한지영

한채희

현지범

홍바다

홍보하

홍성진

홍지원

황준우

황지민

《 Class MVP 》

권태영

김민재

김예린

김은수

김진현

김형빈

나예진

민지수

박성우

박세중

박찬경

배준현

심지후

윤도영

이건일

이노진

이보민

이성진

이승희

이윤성

장진형

전민서

정다희

정윤호

조민영

조아현

조하정

최상윤

시상 기준

최우등생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4.0/4.3(3.75/4.0) 이상이며 대학별 학년별 상위 1% 이내 우등생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3.75/4.3(3.5/4.0) 이상이며 대학별 학년별 상위 3% 이내 우수생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3.75/4.3(3.5/4.0) 이상이며 대학별 학년별 상위 10% 이내 Class MVP 경영대학 소속 전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수업에서 가장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경영학과 학생(복수전공생 포함))

2025-2학기

《 최우등 》

강지수
고혜원
구나연
구지윤
권순하
권오수
권태영
권혁민
김건희
김동욱
김민하
김상우
김서진
김수진
김시온
김완규
김우열
김윤서
김윤희
김주현
김태우
김태윤
노유진
류세빈
박성제
박세훈
박영제
박영준
박 준
손현준
송 일
송지웅
신연진
우승윤
유승주
이남현
이다빈
이다솔
이다솔
이상원
이서연

이서우
이서원
이서윤
이승겸
이아정
이예은
이예찬
이정민
이종규
이준협
이현서
이호동
임규정
임단아
임사랑
장진형
정유나
정윤진
정재민
조예인
조예현
지현우
최부건
최영우
최준우
하아름
허은수
현지범
홍아름
황지우
황지우

《 우등 》

김예인
김은후
김재현
나유정
박주원
신승현
염수경
이승훈
이호준

《 우수 》

Jake Anthony Ronaldson
강현모
고예빈
구승찬
권민수
권아현
기태윤
김경은
김다민
김동엽
김미진
김민정
김민지
김서영
김소연
김수현
김연우
김용민
김진석
김혜원
김효경
김효정
나예진
남동현
남예린
노미리
노윤정
류재빈
마형운
문성열
박성우
박성호
박수진
박정재
박제하
박종혁
박준서
박찬형
박채우
서가은
성승은

소정호
신서윤
신예교
신우현
심수민
엄민욱
염재민
윤혜정
이다예
이도엽
이동윤
이성진
이시은
이예원
이유란
이유현
이재경
이하윤
이하훈
임해린
임희욱
장희선
장희승
정다희
정효정
조혜림
주성준
주시환
지예랑
최인서
탁영선
한선우
한지영
홍우석
황윤수

《 Class MVP 》

Cedric Niklas Becker
CHOI, CATHERINE MINSUH
OSADCHEV, Gleb
고 현
권동현

권보경
권태영
김대성
김상준
김세준
김시온
김완규
김장현
김재이
김지현
김태윤
김태은
노준상
노혜진
박민주
박주원
서병찬
서지민
송혜민
신채현
심예린
오준혁
유도현
유재훈
이상원
이서현
이윤지
이충만
이태경
이하경
이하승
이현서
임사랑
전지현
조민영
조성우
지현우
한의현
홍채현

시상 제외 대상자

①해당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이 15학점 미만('99년 이전 입학자 및 인문예술대학·정경대학·과학기술대학·보건과학대학 1학년은 18학점 미만)인 학생
②최소 이수학점 기준 15학점 계산 시 S/U평가 교과목 제외
③학기초과학생
④해당 학기에 NP의 평가를 받은 학생
⑤해당 학기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

공인회계사(CPA) 시험 합격자 진로 설명회



행사는 허대식 경영대학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이어 회계 분야 교수진 소개와 더불어 ‘공인회계사로서의 진로’를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다. 김한석 파트너는 회계법인에서의 경력 개발과 전문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강연했으며, 윤대희 교수는 학문적 기반 위에서의 CPA 진로 설계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Q&A 시간을 통해 합격자들이 선배 전문가 및 교수진과 직접 소통하며 현실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만찬 자리에서는 합격자들이 교수진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합격 축하를 넘어, 합격자들이 CPA로서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장이 되었다.



9월 29일(월) 저녁 6시 30분, 백양로 라운지 최영홀에서 「2025학년도 공인회계사(CPA) 시험 합격자 진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올해 CPA 시험에 최종 합격한 65명의 합격자들이 참석했으며, 합격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향후 진로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CPA(Certified Public Accountant) 시험

회계, 재무, 세무, 감사, 경영 전략 및 윤리 등 전문 회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대표적인 회계사 자격시험이다. 국가별 제도와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문 교육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재무 분석 능력과 기업 경영 이해도를 검증하며, 회계·금융·컨설팅·기업 경영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과 국제 신뢰도를 갖춘 자격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체 만족도 4.13 | **학과(부) 만족도** 4.04

차원별 만족도					
교과과정운영	4.06	교양교육과정	4.06	교육환경 및 학생지원	4.15
취창업지원 서비스	4.01	대학이미지	4.31	대학 전반적 만족도	4.10
전공 교육과정	4.20	교수관계	3.83	활동/참여	3.84
행정 서비스	4.07	학과(부) 전반적 만족도	4.27	*사례수 237	

[N=3,499 / 단위: 점(5점)]

경영학과 재학생 전체 만족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2024학년도 기준 5년 연속 만족도 상승

연세대학교가 매년 시행하는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에서 2024학년도 재학생 만족도 결과, 경영대학 학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연세대학교 전체 평균을 상회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교육, 환경, 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대학 교육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을 도출·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교육 및 행정 서비스의 질 관리, 불만 요인 개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4년 조사에서는 경영대학 소속 학생들이 전반적인 설문 항목에서 전년 대비 모두 만족도가 상승했으며, 특히 '전공 교육과정' 항목에서 4.2점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또한 '행정 서비스' 부문에서는 2023년 대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경영학과 전체 만족도는 4.04점으로, 연세대 19개 단과대학 중 7위에 해당하며, '전공 교육과정'과 '학과 전반적 만족도' 항목에서는 각각 3위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IPA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육과정, 진학/취업 지원, 행정 서비스가 상대적 강점으로 나타났으며, 교수 방법, 시험 및 평가 항목에서도 고른 만족도를 보여 최우선 개선사항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학과 활동 참여도, 학과 발전 기여 의향, 교수의 상담 관심도 등에서는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기록해 향후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지적됐다. 이는 경영대학이 단일대학·단일학과 체제로 대규모 학과 운영을 하고 있는 특성상, 교수-학생 간 관계 형성과 학생들 간 유대감 형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구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영대학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교수들의 학업·진로·대학생활 관련 상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한층 더 높여 나갈 계획이다.

Career Development Center

Global MBA

Career Development Program 운영 2025년 1학기 시행



경영전문대학원은 2025년 1학기 동안 Global MBA(GMBA) 학생들을 대상으로 'Career Development Program'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글로벌 HR기업인 '맨파워코리아'와 협업하여 GMBA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팁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들 및 경력개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4회차로 구성되었다.

회차	일시	프로그램
1	4. 11.(금)	오리엔테이션, 외국인 유학생에게 필요한 한국 취업시장 특성의 이해 등
2	5. 2.(금)	구직방법 안내 및 한국식 입사서류 작성과 실습 등
3	5. 16.(금)	취업비자 및 한국 기업문화 안내, 네트워킹 등
4	6. 20.(금)	모의면접 실습 및 피드백 등

4월 11일에 1회차 프로그램인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GMBA 학생들은 본 특별 프로그램이 매우 가치가 있고, 특히 학교 측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력개발을 위해 준비해 주었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하였다. 특히 가장 기대되는 주제는 4회차 모의면접 실습 및 피드백으로, 경험 해보기 힘든 면접 상황을 수행하며 향후 실제 면접에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경력개발 교과목 협업 운영 논의 맨파워코리아(Manpower Korea)



Global MBA 과정생들의 경력개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인력 전문기업 맨파워코리아와 손잡고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과목 협업 운영에 나섰다.

8월 28일 협의에는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허대식 원장, 객주영 부원장, 정승환 Global MBA 주임교수와 함께 맨파워코리아의 김옥진 대표, 윤동현 전무, 전병호 상무가 참석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본 협력은 2025년 1학기에 시범적으로 운영된 GMBA 비교과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성과를 바탕으로, 2학기에는 정식 교과목으로 확대 운영되었다.

특히 연세경영 동문기업과 연계해 Global MBA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전문적이고 시스템화된 커리어 관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내 취업 및 진로 탐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경영전문대학원과 맨파워코리아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내 취업 수요와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유학생과 기업 모두가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인턴십 현장실습 Marisa Kropp 학생 인터뷰

Global MBA(GMBA) 과정 독일 출신 Marisa Kropp 학생이 Manpower Korea에서 여름 인턴십(현장실습)을 진행했다. 학생은 인턴십을 통해 한국의 기업 문화와 실무 경험을 체득하며 미래 커리어에 한 발 다가서고 있다.



Career Development 교과목 신설

2025년 2학기 시행



경영전문대학원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Global MBA Career Development' 교과목을 신설하였다. 총 1.5학점으로 Global MBA 재학생 50명을 대상으로 맨파워코리아 소속 전문 컨설턴트 4인이 강사로 참여하였다.

한국 취업 시장의 이해, 글로벌 이력서 작성, 링크드인 브랜딩, 면접 전략, 국내 리크루팅 생태계 등 8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업 방문과 개별 커리어 플랜 발표를 포함해 학생들이 국내외 커리어 목표를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현대건설 특별 채용설명회



3월 6일
현대건설의 채용 과정과 기회 소개

경력개발 특강



4월 2일
세계적인 건설 기계 제조업체 Caterpillar의
Global Product Manager Bernard Shim 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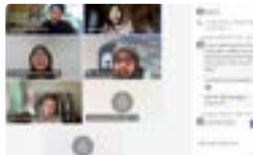


Global Talent Fair 참석



5월 19-20일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다양한
채용 기회 제공

링크드인 활용전략 온라인 특강



5월 30일
현 LinkedIn Talent & Learning Solutions
파트 김원지 Director(경영 03) 초청

모의면접 실시



6월 20일
실제 HR 매니저급 이상 전문 면접관 실습



기업견학 실시



11월 14일
녹십자 계열사 이니바이오(INIBIO) 방문

Manpower Korea의 서치 앤 컨설팅(Search & Consulting) 부서에서 Business Development and Marketing Associate 직무를 맡은 그녀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한국 내 기업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채용 수요에 Manpower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조사하는 등 사업개발 업무를 주도하였다. LinkedIn과 이메일을 활용한 맞춤형 아웃리치 진행,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한 콜드콜도 병행했다.

마케팅 업무 측면에서는 LinkedIn 콘텐츠 제작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회사 계정을 위한 포스트를 기획하는 동시에, 개인 계정에서는 'Intern Diaries'라는 시리즈를 통해 외국인 인턴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했다. 이는 Manpower 브랜드와 본인의 개인 브랜딩을 동시에 강화하는 스토리텔링 캠페인 성격을 띠고 있다.

Marisa 학생은 "처음 입사할 땐 외국인이라는 점과 유창하지 않은 한국어 실력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외국인 상사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덕분에 초기 적응에 큰 도움을 받았고, 한국인 직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문화 차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후배들에게는 "인턴십 찾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라"며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 비즈니스 매너, 복장 규정 등은 미리 익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완벽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한국 직원들은 외국인 인턴에게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두고 있으며, 친절하게 도와준다"고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Marisa 학생은 "이번 인턴십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제공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커리어 지원 프로그램에 감사한다"며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YVIP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은 아모레퍼시픽 그룹과 공동 수행하는 YVIP(연세 창업·혁신 프로그램, Yonsei Venture & Innovation Program)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인공지능(AI)을 핵심 전략으로 한 새로운 사업 방향을 본격 추진했다. 7월 22일 실시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YVIP 프로그램의 2021년 이후 공백을 닫고, 최신 기술 트렌드에 맞는 교육·연구·네트워킹 중심의 사업계획이 공유됐다. 회의에는 허대식 경영대 학장, 이무원 운영위원장, 박승재 교학부학장, 김태형 아모레퍼시픽 CVC 팀장 등 6명이 참석해 전략 방향을 논의했다.



YVIP Yonsei Venture, Innovation, and Startup Program

AI 기반 리서치 및 교육 개편

YVIP의 핵심 전략은 5가지 영역(Research, Education, Networking, Practice, Incubation)으로 구성된다.

특히, AI 기반 실용 리서치를 각 전공별로 추진하고, AI와 경영 융합을 주제로 한 교과목 개발 및 교수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영대 내 기존 '창업 심화 전공'과 'AI 경영융합 심화 전공'의 운영 성과 분석과 함께, 학생 맞춤형 커리큘럼 개편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교육 측면에서는 유겟(uGET) 프로그램의 부활, 생성형 AI 도구 활용 수업 확대, 학생-교수 간 실습 연계 강화 등이 논의되었다. 실무 중심 교육을 위한 교수진 연수와 해외 우수 사례(Wharton, Stanford 등) 벤치마킹도 함께 검토된다.

글로벌 네트워킹 및 외부 협력 확대

지난 12월 8일, 'AI&The Future of Business'를 주제로 한 제4회 YVIP 글로벌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Stanford, Michigan, Virginia, Columbia 등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하여 AI 시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컨퍼런스를 통해 연세 경영이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를 선도하는 지식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짐을 엿볼 수 있었다.

아울러, 동문 중심의 글로벌 CEO 토크(CEO Talk), YVIP 콜로퀴엄 등의 연속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DN그룹 김상헌 회장, 스캐터랩·뤼튼테크놀로지 대표 등 다양한 연사들을 초청하여 연세 경영 학생들이 AI 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차세대 리더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연세 경영은 향후에도 다양한 YVIP 프로그램들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외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AI를 통한 실천적 경영 교육 실현

운영위원회 측은 "YVIP는 경영 교육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AI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경영대학이 주도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현장과 연결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YVIP의 재가동은 연세대 경영대학이 창의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미래 산업의 중심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행보로 평가된다.

제6회 YVIP Global CEO Talk 특강



도전으로 세운 제조업의 길

DN그룹 김상헌 회장

경영대학은 DN그룹 김상헌 회장을 초빙하여 11월 18일 오후 4시, 연세대학교 경영관 융재홀에서 '제6회 YVIP(Global CEO Talk)'를 개최하였다. 김상헌 회장은 "도전으로 세운 제조업의 길(The Journey of Manufacturing Innovation)"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주)아모레퍼시픽이 후원하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창업·혁신 지식 플랫폼 YVIP(Yonsei Venture, Innovation & Partnership Program)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YVIP 글로벌 CEO 토크(Global CEO Talk)은 2017년부터 세계 각국의 혁신 리더를 초청해 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과 리더십의 가치를 전하고 있다. 미래 기업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열망을 일깨우고, 글로벌 리더가 경험하는 세상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체득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고를 더욱 유연하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이사 회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지영석 엘스비어 회장, 리스토 실라즈마 노키아 회장, 다이슨의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 경이 'Global CEO Talk' 일환으로 강연했다.



제21회 YVIP 콜로кви엄



AI로 여는 뷰티 혁신의 미래

아모레퍼시픽 주효정 상무

9월 24일, 연세대학교 경영관 B1 용재홀에서 열린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YVIP (Yonsei Venture, Innovation & Partnership) 제21회 콜로кви엄에서 아모레퍼시픽 디지털전략 디비전 헤드이자 자회사 퍼시픽테크 대표이사인 주효정 상무(경영학과 01학번)가 초청연사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콜로кви엄은 2017년부터 아모레퍼시픽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YVI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산업 현장의 최신 혁신 트렌드를 전달하고 창업·혁신적 사고를 확장하는 장이 되고 있다.

이번 제21회 YVIP 콜로кви엄은 K-Beauty 대표기업 아모레퍼시픽이 AI로 어떻게 미래를 재창조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주효정 상무의 강연은 단순한 기술 소개를 넘어, AI가 사람들의 아름다움 경험과 기업 운영 방식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제23회 YVIP 콜로кви엄

AI가 만드는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패러다임

스캐터랩 김종윤 CEO

11월 19일(수) 경영관 B1 용재홀에서 '제23회 YVIP 콜로кви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AI 기반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zeta'를 개발한 스캐터랩 김종윤 공동창업자 겸 CEO가 연사로 초청돼 'zeta로 보는 AI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CEO는 zeta가 단순한 AI 채팅 서비스가 아니라 "유저-AI·크리에이터가 함께 서사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저의 문장력과 창의성이 게임 플레이와 콘텐츠 경험의 핵심 요소로 작동한다"며 "AI 기술이 기존 콘텐츠 산업의 '완성된 텍스트 소비 방식'을 넘어, 유저가 직접 서사를 창조하는 초개인화 콘텐츠 플랫폼의 시대를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제 유저 로그 사례와 일반 유저·슈퍼 유저의 차이를 소개하며, AI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토리를 '읽는 시대'에서 '함께 만드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zeta를 통해 ▲글쓰기 능력 향상 ▲창조적 놀이

제22회 YVIP 콜로кви엄



AI 전환의 시대, 뽀튼이 말하는 생성형 AI의 미래

뽀튼테크놀로지스 이세영 Founder & CEO

경영대학은 2025년 10월 29일(수) 오후 4시 경영관 B1 용재홀에서 제22회 YVIP 콜로кви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AI 시대: 성공적 AI 전환을 위한 길라잡이'를 주제로, 국내 생성형 인공지능 선도 기업 뽀튼테크놀로지스(Wrtn Technologies)의 이세영 Founder & CEO(문헌정보학과 15)를 초청하여 AI 기술이 경영·산업·일상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창업 과정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비전공자가 AI 기반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었던 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세영 대표는 "초기에는 무급으로 합류한 개발자와 함께 제품을 만들었다"며 "외주보다 기술 내재화가 장기적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누구나 AI 도구를 활용해 높은 수준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며 "날것의 재능과 강한 실행력이 뒷받침된다면 비전공자도 기술 창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세영 대표는 "앞으로 많은 기업이 처음 접하게 될 AI 솔루션이 뽀튼의 제품이 되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전했다.



의 활성화 ▲유저의 개성 강화 등 교육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 CEO는 "AI는 콘텐츠 창작의 문턱을 크게 낮추고, 더 다양하고 니치한 취향을 존중하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기존 방송·OTT 중심의 1·2세대를 넘어, AI 기반의 3세대 초개인화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Inbound

471

Total

43

경영대 단독

255

국제처 경유 / 교환

173

국제처 경유 / 방문

Outbound

103

Total

13

경영대 단독

1

국제처 경유 / 교환

89

국제처 경유 / 방문

경영대학 교환·방문 학생 | 학부

01 네덜란드	IN 33 OUT 7	16 핀란드	IN 1 OUT 1
02 노르웨이	IN 1	17 폴란드	IN 1 OUT 1
03 포르투갈	IN 1	18 대만	IN 9
04 덴마크	IN 5 OUT 1	19 베트남	IN 6
05 독일	IN 23 OUT 8	21 말레이시아	IN 1
06 벨기에	IN 3 OUT 1	22 싱가포르	IN 7 OUT 2
07 스웨덴	IN 10 OUT 1	23 호주	IN 9 OUT 2
08 스위스	IN 14 OUT 1	24 뉴질랜드	IN 1
09 스페인	IN 6 OUT 1	26 일본	IN 2 OUT 4
10 조지아	IN 2	27 중국	IN 1
11 아일랜드	IN 4	28 홍콩	IN 7
12 영국	IN 6 OUT 11	29 미국	IN 247 OUT 53
13 오스트리아	IN 7 OUT 3	30 캐나다	IN 25 OUT 3
14 이탈리아	IN 4	31 칠레	IN 2
15 프랑스	IN 25 OUT 4	32 멕시코	IN 6

경영대학 교환·방문 학생 | MBA

04 덴마크	IN 1
05 독일	IN 23 OUT 8
07 스웨덴	IN 2 OUT 1
09 스페인	IN 2 OUT 1
14 이탈리아	IN 1
15 프랑스	IN 6 OUT 3
16 핀란드	IN 1
25 인도	IN 6
26 일본	OUT 2
27 중국	OUT 1
29 미국	OUT 2
31 캐나다	OUT 2
32 멕시코	IN 1

EDHEC Global Manager Certificate Program

15 프랑스

EDHEC Business School

기간 2025. 3. 4. ~ 6. 23.

인원 30명

GLOBAL IN / OUT PROGRAM



경영대학 협정교 교환학생 | 학부

- 01 네덜란드**
Nyenrode Business University **IN**
- 03 포르투갈**
Nova School of Business & Economics **IN**
- 18 대만**
National Taiwan University **IN**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IN**
- 04 덴마크**
Copenhagen Business School **IN**
- 05 독일**
University of Münster **IN OUT**
University of Mannheim **IN OUT**
WHU - Otto Beisheim School of Management **IN**
- 07 스웨덴**
Jonkoping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IN**
- 08 스위스**
University of St. Gallen **IN**
- 09 스페인**
ESADE School of Business **IN OUT**
University of Navarra **IN**
- 15 프랑스**
ESSEC Business School **IN OUT**
Audencia **IN**

- IESEG School of Management
- Lille Catholic University **IN**
- Dauphine University **IN**
- 16 핀란드**
Aalto University **IN**
- 19 베트남**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IN**
- 22 싱가포르**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IN OUT**
- 26 일본**
Doshisha University **IN**
- 29 미국**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IN OUT**
University of Washington **IN OUT**
- 30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IN OUT**
HEC Montréal **IN OUT**
Queen's University **IN**
University of Victoria **IN**
University of Ottawa **IN**
- 31 칠레**
University of Chile **IN**

경영대학 협정교 교환학생 | MBA

- 04 덴마크**
Copenhagen Business School **IN**
- 05 독일**
Eberhard-Karls-Universität Tübingen **IN**
Georg-August-University Göttingen **IN**
University of Münster **IN**
- 07 스웨덴**
University of Gothenburg
(School of Business, Economics and Law) **IN**
- 08 스위스**
University of Zurich **IN**
- 09 스페인**
Esade Business School **OUT**
- 14 이탈리아**
Politecnico di Milano (Polimi) **IN**
- 15 프랑스**
ESSEC Business School **IN OUT**
ESCP Business School **IN OUT**
IESEG School of Management **IN OUT**
- 16 핀란드**
Aalto University **IN**
- 25 인도**
Indian School of Business **IN**
- 26 일본**
Waseda Business School (WBS) **OUT**
- 27 중국**
CKGSB (Cheung Kong
Graduate School of Business) **IN**
China Europe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CEIBS) **OUT**
- 29 미국**
Duke University, Fuqua School of Business **OUT**
- 30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auder School of Business **OUT**
- 32 멕시코**
IPADE Business School **IN**

GLOBAL STUDY PROGRAM

GSP

경영전문대학원은 Global Study Program을 통해 MBA 학생들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한층 확장하고, 아시아를 비롯한 국제 무대에서 요구되는 전략적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글로벌 명문 대학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MBA 학생들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과 현장 중심 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University of Zurich



ESADE Business School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University of Washington, Foster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Washington, Foster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Washington, Foster School of Business

HES-SO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Chulalongkorn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2025-여름학기

- 1 **University of Zurich**
2025. 7. 2. ~ 7. 4. | Executive MBA | 53명
- 2 **ESADE Business School**
2025. 7. 14. ~ 7. 16. | Advanced MBA | 35명
- 3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2025. 7. 11. ~ 7. 24. | Global Business Innovation MBA | 16명
- 4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2025. 7. 23. ~ 7. 25. | Executive MBA | 28명
- 5 **University of Washington, Foster School of Business**
2025. 7. 29. ~ 7. 31. | Corporate · Finance MBA | 50명
- 6 **HES-SO**
2025. 8. 13. ~ 8. 15. | C · F · G · A MBA | 23명

2026-겨울학기

- 7 **Chulalongkorn University**
2026. 1. 2. ~ 1. 4. | Corporate · Global · Advanced MBA | 37명
- 8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2026. 1. 7. ~ 1. 9. | Executive MBA | 44명
- 9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2026. 1. 27. ~ 1. 29. | Corporate-Global MBA | 23명

유럽 EQUIS 경영인증, 세 번째 5년 재인증 획득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이 유럽경영대학협회(EFMD)가 부여하는 EQUIS(EFMD Quality Improvement System)로부터 세 번째 5년 재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재인증은 2012년 국내 최초 취득 이후 2015년, 2020년에 이어 연속적으로 이뤄낸 성과로, 연세경영의 우수한 교육 품질과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과이다.

EQUIS는 교육 비전, 전략, 커리큘럼, 교수진, 교육 시설, 국제화 수준, 학생 역량 등 총 10개 항목을 엄격히 평가하는 세계적 경영 교육 인증이다. 미국의 AACSB, 영국의 AMBA와 함께 3대 글로벌 비즈니스 스쿨 인증 중 하나로, 현재 전 세계에서 228개 학교만이 이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인증 기관으로 옥스퍼드대학교, 베이징대학교,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등이 있다.



연세경영은 지난 2024년 초 인증 지원서를 제출하고 연말 심사용 서류를 준비한 뒤, 2025년 4월 3일간 현장실사를 받았다. 실사단은 WHU-Otto Beisheim School of Management의 Michael Frenkel 교수를 단장으로, University of Limerick의 Finbarr Murphy 교수(케미 비즈니스스쿨 학장), University of Macau의 Jun Yu 교수(경영대학장), Lockhart Executive Development Limited의 James Lockhart 대표 등 4인의 세계적 경영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실사단은 연세경영의 총장단, 보직 교수, 전임교원, 교직원, 재학생, 졸업생, 기업체 관계자와 14회에 걸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며 학교 운영과 성과를 철저히 검토하였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연세경영은 2025년 6월 26일(한국 시간) EQUIS 인증 위원회로부터 세 번째 5년 재인증 확정 통보를 받았다.

이번 성과를 통해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AACSB, EQUIS, AMBA 세 가지 국제 인증을 모두 보유한 '트리플 크라운' 비즈니스 스쿨의 위상을 확고히 하며, 세계적 수준의 경영 교육 기관임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입증하였다.

EQUIS(EFMD Quality Improvement System)

유럽경영개발재단(EFMD)이 운영하는 세계적 수준의 경영대학 인증 제도로, 교육·연구·국제화·산학협력·윤리경영 등 대학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엄격한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영교육 기관에만 부여되며, 글로벌 경쟁력과 교육 품질을 인정받는 대표적인 국제 인증으로 평가된다.

경영대학 110주년 기념, YVIP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AI가 여는 비즈니스의 미래



경영대학이 개교 110주년을 기념해 2025년 12월 8일(월), 용재홀에서 'AI & The Future of Business'를 주제로 제4회 YVIP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경영·마케팅·정보시스템 분야 세계적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AI가 불러올 비즈니스 패러다임 변화를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행사는 윤동섭 총장, 허대식 경영대학장, 이무원 YVIP 운영위원장, 윤대희 컨퍼런스 의장의 순서로 환영 인사 및 개회사가 이어졌다.

윤동섭 총장은 AI가 산업과 사회 전반에 미칠 거대한 전환점을 강조하며, "AI 시대에 기업이 어떻게 적응하고 변화를 선도할 것인가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대식 경영대학장은 110년 연세경영의 역사와 함께 "AI는 모든 비즈니스 학문 분야를 재정의하는 변화의 중심"이라며 컨퍼런스의 학문적 의미를 강조했다.



Kathleen Eisenhardt 교수
Stanford University



Suprateek Sarker 교수
Virginia University



Gita Johar 교수
Columbia University



Michael Jensen 교수
Michigan University

강연 이후에는 "AI와 비즈니스의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네 명의 연사(Eisenhardt, Sarker, Johar, Jensen)가 함께 참여한 패널 토론에서는 AI의 조직적 수용 전략, AI 윤리·책임성, 산업별 AI 활용의 난점, 교육·연구의 역할 등이 논의되었다.

- Stanford대 Kathleen Eisenhardt 교수
- Virginia대 Suprateek Sarker 교수
- Columbia대 Gita Johar 교수
- Michigan대 Michael Jensen 교수

마지막 폐회사는 AI 시대 비즈니스 학문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연세경영이 글로벌 연구·교육의 리더로서 AI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다짐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연세경영은 앞으로도 AI 기반 경영학 연구와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미래 비즈니스 생태계를 선도하는 지식 플랫폼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방문



3월 6일,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Alliance Manchester Business School (이하 'AMBS')의 Dr. Alan Wu (Executive Director, Asia Programmes)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을 방문하여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양교 간 국제 협력 증진과 교수진 교류, 공동 연구 추진 및 학생 교환 프로그램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AMBS는 The University of Manchester에 소속된 경영대학원으로 AACSB, EQUIS, AMBA의 3대 국제 교육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영학, 금융학, 마케팅, 전략, 인사 관리 등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서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미팅을 통해 양교는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과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국제적 경험을 확대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일본 사가대학교 경제학부 학장단 방문



9월 22일(월), 일본 사가대학교 경제학부 학장단이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경영연구소 글로벌ESG-기업윤리연구센터 민순홍 부센터장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사가대학교에서는 Hiroshi Haneishi 학장, Ryunosuke Sonoda 교수, Kyunghyun Min 교수가 참석했으며, 오전에는 BMW 회의실에서 허대식 학장, 조대곤 기획-국제부학장, 민순홍 교수와 만나 연세경영에 대한 허대식 학장의 간단한 소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후 본부 홍보팀 산하 홍보대사 '인연'과 조대곤 기획부학장의 안내로 캠퍼스와 경영관 투어를 진행하며 연세대학교의 규모와 첨단 시설을 둘러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점심 자리에는 연세경영 교수진과 가천대학교 강승완 교수가 함께하여 교류와 논의를 이어갔다.

오후에는 경영연구소에서 마련한 글로벌ESG-기업윤리연구센터 회의와 본부 교학부총장과의 미팅을 통해 이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며, 두 대학 간 학술 및 국제 교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Tsinghua PBCSF 학장단 방문



3월 28일,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칭화대학교 인민은행금융대학원(Tsinghua PBCSF) 학장단이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을 방문하여, 양 기관 간의 학술 및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Finance 분야의 새로운 연구 방향 모색과 교수진 및 학생 교류 확대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번 방문의 핵심 목적은 두 대학 간의 공동 연구와 교류를 통한 협력 확대였다. 칭화 PBCSF는 Finance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 및 연구에서의 시너지를 도모하고자 했다.

이번 미팅은 두 대학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Finance 분야에서의 연구와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양교는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을 선도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CKGSB Xiang Bing 총장단 방문, MBA 복수학위 협정 갱신



9월 22일(월) 오후, 중국 장강상학원(CKGSB)의 Xiang Bing 초대 총장과 Alan Chen 국제부학장이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논의된 MBA 복수학위 협정 갱신안에 직접 서명하고, CKGSB가 추진 중인 글로벌 'UNICORN'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CKGSB와 연세 MBA는 2022년 최초 체결한 MBA 복수학위 협정을 공식 갱신했으며, Xiang Bing 총장은 다음 날 열리는 인천 대표 스타트업 행사 'SURF 2025 INCHEON(인천 스타트업 위크)' 개막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Xiang Bing 총장은 CKGSB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글로벌 유니콘 육성 프로그램과 다가오는 주요 행사들을 소개하며, 향후 한-중-일 3개국이 함께하는 유니콘 프로그램 개발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만남은 협약서 서명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양교는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확대를 이어갈 전망이다.

핀란드 알토대학교 경영대학 학장단 방문



9월 3일(수) 오후, 핀란드 Aalto University(알토대학교) School of Business의 Timo Korkeamäki 학장과 Jonna Söderholm 대외협력팀장(Head of External Relations)이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약 2년 만의 재방문으로, 양교 간 국제 교류 및 협력의 연속성과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측에서는 허대식 경영대학장, 박승재 교학부학장, 류원상 대학원 주임교수가 참석하여, 학부 및 대학원 교육은 물론 교원 교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Timo Korkeamäki 학장은 최근 알토대 경영대학에서 출범한 창업 교육 플랫폼 'Aalto Founder School'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숙련된 기업가인 Mårten Mickos가 이끌고 있으며, 전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오픈 강좌, 맞춤형 마이너 과정, 세계적 창업가들이 참여하는 공개 강연 시리즈 'Founder Talks' 등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핀란드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혁신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업 교육 분야의 석·박사 과정 학생 교환, 단기 방문 프로그램, 교원 교류 등 다양한 협력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양교는 향후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방문은 양 대학이 가진 교육 자산과 비전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글로벌 창업 교육 협력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GMC Farewell Event

6월 19일(목) 경영관 B101호에서 '2025 GMC Farewell Event'를 개최하며 EDHEC Business School의 GMC(Global Manager Certificate) 프로그램 비학위과정 학생들의 연세대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University of Michigan Ross School of Business 대표단 방문



7월 24일(목) 오후,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소속 Stephen M. Ross School of Business 대표단이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에는 Carolyn Yoon 교수(Associate Dean for Community and Global Initiatives), Jessica Oldford 국장(Managing Director, Global Initiatives), Laura Haas 국장(Director, Global Student Experience) 등 국제 업무를 총괄하는 주요 보직자들이 함께하였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는 허대식 학장,곽주영 부원장, 박승재 교학부학장이 참석하여 Ross School of Business와의 학부 및 대학원 수준에서의 다양한 국제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University of Michigan Ross School of Business는 매우 체계적이고 폭넓은 글로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와의 실질적인 협력 확대에 대해 높은 관심과 의지를 보였다. 이번 미팅을 계기로 양교 간의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교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송별 행사는 지난 한 학기 동안 연세대학교에서 수학한 GMC 학생들을 격려하고, 함께한 시간을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GMC 프로그램의 지도교수인 이종민 교수와 Business Negotiations 과목을 담당한 박헌준 명예교수가 참석해 학생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나눴다.

GMC 프로그램 참가자는 모두 프랑스 EDHEC 경영대학 소속 재학생들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경영학 전공 과목 5개와 한국어 1개 과목을 이수했다. 이날을 끝으로 공식적인 수료 마친 학생들은 연세에서의 학문적 성장뿐 아니라 문화적 교류의 경험을 소중한 자산으로 간직하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U
A
P
F
ω

FACULTY & RESEARCH

42
FACULTY

46
FACULTY AWARDS

47
YSB RESEARCH

전임교수

마케팅

마케팅

김동훈	Ph.D. (Columbia University, 1989)
김병규	Ph.D.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0)
김영찬	Ph.D. (University of Michigan, 1995)
박세범	Ph.D. (Northwestern University, 2004)
박창희	Ph.D. (Cornell University, 2012)
선정아	Ph.D. (Columbia University, 2024)
이승우	Ph.D. (University of Maryland, 2017)
이재영	Ph.D.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4)
장수령	Ph.D. (New York University, 2012)
전유정	Ph.D. (Columbia University, 2021)
최정혜	Ph.D.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0)

국제경영

곽주영	Ph.D. (MIT, 2008)
박용석	Ph.D.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2000)
이종민	Ph.D. (University of Reading, 2016)
최순규	Ph.D.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97)
프레제파비안잔테	Ph.D. (Waseda University, 2009 / University of St. Gallen, 2007)

매니지먼트

김보경	Ph.D. (University of Michigan, 2011)
김지현	Ph.D. (New York University, 2011)
노현탁	Ph.D. (University of Illinois, 2010)
도보람	Ph.D. (Boston College, 2016)
류원상	Ph.D. (Purdue University, 2016)
박경민	Ph.D. (INSEAD, 2005)
오홍석	Ph.D.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2000)
이기영	Ph.D. (University of Minnesota, 2014)
이무원	Ph.D. (Stanford University, 2003)
이지만	Ph.D. (London School of Economics, 1998)
이호욱	Ph.D. (Texas A&M University, 2002)
장은미	Ph.D. (University of Maryland, 1993)
정동일	Ph.D.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inghamton, 1997)

재무

변성준	Ph.D.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2017)
신진영	Ph.D. (Carnegie Mellon University, 1993)
신현한	Ph.D. (Ohio State University, 1995)
어준경	Ph.D. (Columbia University, 2014)
엄영호	Ph.D. (New York University, 1996)
이지윤	Ph.D.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2015)
정승연	Ph.D. (Bayes Business School, London, 2023)
최원창	Ph.D. (Washington Univ. in St. Louis, 2024)
한재훈	Ph.D. (Columbia University, 2003)

회계

기랄 안드레스	Ph.D. (University of Alcala, 2003)
김종환	Ph.D.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2013)
문두철	Ph.D. (Baruch Colleg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2001)
윤대희	Ph.D. (Yale University, 2008)
정수미	Ph.D. (University of Minnesota, 2015)
최원욱	Ph.D. (Columbia University, 1993)

O.D.I.

오퍼레이션

민순홍	Ph.D. (University of Tennessee, 2001)
박승재	Ph.D.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2014)
배성주	Ph.D. (MIT, 2009)
정승환	Ph.D. (Washington University, 2017)
최선미	Ph.D. (Cornell University, 2001)
허대식	Ph.D. (Indiana University, 2001)

경영과학

김성문	Ph.D. (University of Michigan, 2003)
김진우	Ph.D. (Carnegie Mellon University, 1993)
김학진	Ph.D. (Carnegie Mellon University, 2001)
박선주	Ph.D. (University of Michigan, 1999)
서승범	Ph.D. (Northwestern University, 2014)
정예림	Ph.D. (University of Paris 1, 2010)

정보시스템

김승현	Ph.D. (Carnegie Mellon University, 2008)
방영석	Ph.D. (McGill University, 2015)
손재열	Ph.D.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2001)
임건신	Ph.D.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2000)
임 일	Ph.D.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2001)
조대곤	Ph.D. (Carnegie Mellon University, 2013)

명예 · 퇴임교수

경규학	Ph.D. (Oec HSG St.Gallen, 1979)
구본일	Ph.D. (Columbia University, 1988)
권구혁	Ph.D.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91)
김기영	Ph.D. (Washington University, 1975)
김인준	Ph.D. (Columbia University, 1985)
김정동	Ph.D.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4)
김준석	D.B.A. (Indiana University, 1982)
김지홍	Ph.D.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87)
김태현	Ph.D. (Indiana University, 1986)
박상용	Ph.D. (New York University, 1984)
박영렬	Ph.D.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93)
박헌준	Ph.D. (Ohio State University, 1990)
박홍수	Ph.D. (University of Pittsburgh, 1988)
서길수	Ph.D. (Indiana University, 1989)
손성규	Ph.D. (Northwestern University, 1992)
신영수	Ph.D. (Northwestern University, 1978)
양혁승	Ph.D. (University of Minnesota, 1998)
연강흠	Ph.D.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0)
오세조	Ph.D. (University of Cincinnati, 1987)
오세철	Ph.D. (Northwestern University, 1975)
윤세준	Ph.D.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88)
이경태	Ph.D. (U.C.L.A., 1992)
이동진	Ph.D. (Virginia Tech., 1996)
이완수	D.B.A. (University of Tennessee, 1981)
이호근	Ph.D. (Univ. of Texas at Austin, 1993)
임웅기	Ph.D.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79)
장대련	D.B.A. (Harvard University, 1986)
정구현	Ph.D. (University of Michigan, 1976)
정승화	Ph.D. (Univ. of Pennsylvania, 1993)
정종락	Ph.D. (University of Pittsburgh, 1982)
정종암	Ph.D. (Yonsei University, 1982)
주인기	Ph.D. (New York University, 1986)

명예특임교수

신동엽	Ph.D. (Yale University, 1996)
이호영	Ph.D. (University of Oregon, 2000)



구본일 교수 · 손성규 교수 · 서길수 교수

2월 26일, 알렌관 무악홀에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구본일 교수, 손성규 교수, 서길수 교수의 교원퇴임식이 있었다. 구본일 교수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학사, 콜럼비아대학교 경영대학 재무학과 박사를 취득한 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에 합류하였고, 손성규 교수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학사,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경영학 석사, Northwestern University 회계학 박사를 취득한 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에 합류하였으며, 서길수 교수는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학사, 미국Indiana University 석사, 미국 Indiana University 박사를 취득한 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에 합류하였다.



구본일 교수는 Like an Angel Passing Through My Room라는 노래의 가사 일부를 인용하며 소회를 밝혔다. 또한, “가끔 학교에 나와서 점심이라도 함께 하자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혹시라도 부족한 점으로 상심을 드렸거나 누를 끼쳤다면 너그러이 용서해주시길 바랍니다. 가끔 학교에 나와서 여러분을 만나 뵈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손성규 교수는 “1978년 연세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생으로서 4년, 교수로서 31년 반을 재직한 후, 35년 반 만에 연세동산을 떠나게 됩니다. 고 정창영 총장께서 ‘교수는 그냥 직업이 아니라 calling, 즉 숙명’이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자연인 손성규가 아니라 연세대학교 교수 손성규로 살아왔기에, 연세대학교에 많은 빛이 있고, 연세대학교 교수라는 직함은 제게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정년을 맞이하지만 명예교수라는 평생 직업을 허락해 주신 연세대학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서길수 교수는 “2년 먼저 퇴직을 했지만,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만큼이나 재밌는 일들이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 제2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겠습니다. 연대에 있으면서 행복했고,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해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 감사하고, 34년 반 즐겁게 지냈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후 후배 교수들의 축하와 아쉬움의 인사 속에 구본일 교수, 손성규 교수, 서길수 교수의 교원퇴임식이 진행되었고, 만찬 시간에는 각 테이블에 함께 앉은 교수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와인과 함께 식사를 즐기며 퇴임식을 마무리했다.

신동엽 교수 · 이호근 교수 · 정승화 교수

8월 26일, 경영대학은 알렌관 무악홀에서 신동엽, 이호근, 정승화 세 분 교수의 퇴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승재 부학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공식 행사와 만찬으로 구성되었다.

퇴임 기념식 1부는 참석 교수 인사와 허대식 경영대학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이어 퇴임 교수들의 주요 약력이 소개되었고, 꽃다발, 기념품이 증정되며 감사의 마음이 전해졌다. 음악대학 남성 4중창의 축하 공연이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세 분 교수의 퇴임 소회가 이어져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번에 퇴임한 교수는 신동엽, 이호근, 정승화 교수다. 이들은 수십 년간 학문과 교육, 봉사에 헌신해왔다.



신동엽 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를 마친 후 예일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부터 연세대 경영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인 사조학회 회장, 서울스프링 국제실내악축제 집행위원장 등 학계와 문화계에서 폭넓게 활동했다. 그는 《The Routledge Handbook of Korean Business and Management》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Poetics, Organization Scien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등 유수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다.

이호근 교수는 서울대 산업공학과 출신으로 KAIST에서 석사,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에라스무스대, 홍콩과기대에서의 교수 경력을 포함해, 1997년부터 연세대 경영대학에서 재직하며 경영정보학 분야를 선도해왔다. 우리은행, 현대글로벌비스 등에서 사외이사로도 활동했으며, AIS Fellow Award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에너지 민주주의와 디지털 혁신』, 『성당에서 시장으로』 등의 저서가 있다.

정승화 교수는 연세대에서 학사 및 석사를 마친 후 Yale University와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각각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싱가포르국립대, 와튼스쿨, UCLA 등에서의 교수 및 연구 활동을 포함해 국제적인 학문적 교류를 지속해왔으며, 연세대 리더십센터 소장, 국제캠퍼스 글로벌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벤처창업론』, 『사업개발론』 등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전략적 제휴 및 네트워크 분석 분야의 주요 논문을 발표해왔다.



허대식 경영대학장은 “세 교수님들의 헌신과 열정이 오늘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교수님들의 지혜와 경험이 연세경영의 든든한 자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 후 이어진 만찬 자리에서는 재직 당시의 추억을 나누며, 따뜻한 작별 인사가 오갔다. 이번 퇴임 기념식은 세 교수의 학문적 업적과 교육자로서의 헌신을 되새기며, 후배 교수들에게도 큰 감동과 귀감을 주는 시간이 되었다.



Faculty Awards

2025학년도 교원 수상내역

* 2025.03 ~ 2026.02 기준

구분	성명	수상 내용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학 동창회	이재영	2025 초헌학술상		
	김성문	(사)한국경영과학회 2025 우수논문상		
	곽주영	(사)한국국제경영학회 2025 추계학술대회 해외 최우수논문상		
	박승재	2025학년도 언더우드 특훈교수		
	변성준	SFS Cavalcade Asia / Pacific 국제학회 최우수 논문상		
	이무원	• 자랑스런 연세상경인상(학술문화부문)		
		• 연세학술상		
	이승우	2025학년도 우수업적교수상 (교육부문 우수상)		
	이종민	• (사)한국국제경영학회 2025 추계학술대회 해외 우수논문상		
		• Editorial Contribution Award 2025 (Springer Nature)		
대외 수상		• 한국경영학회 최우수 논문상		
	임 일	2026학년도 공헌교수상		
	조대곤	IT서비스학회 춘계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수여 기관	성명	수상 내용	과정	학년도
연세대학교	김성문	연세대학교 우수강의교수상	학부	2025학년도
	박선주	연세대학교 우수강의교수상	학부	2025학년도
	박승재	연세대학교 우수강의교수상	학부	2025학년도
	박창희	연세대학교 우수강의교수상	학부	2025학년도
	방영석	연세대학교 우수강의교수상	학부	2025학년도
	엄영호	연세대학교 우수강의교수상	학부	2025학년도
	정동일	연세대학교 우수강의교수상	학부	2025학년도
	정승환	연세대학교 우수강의교수상	학부	2025학년도
	조대곤	연세대학교 우수강의교수상	학부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곽주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의우수교수상	일반대학원	2025학년도 2학기
	김동훈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의우수교수상	EMBA	2025학년도 1학기
	김병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의우수교수상	학부(대)	2025학년도 1학기
	김보경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의우수교수상	CFMBA(필수)	2025학년도 2학기
	김성문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의우수교수상	학부(중)	2025학년도 2학기
	김종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의우수교수상	CFMBA(필수)	2025학년도 1학기
	류원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의우수교수상	계약학과	2025학년도 2학기
	문두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의우수교수상	GMBA	2025학년도 2학기
	민순홍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의우수교수상	일반대학원	2025학년도 1학기
	선정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의우수교수상	GMBA	2025학년도 1학기
	윤대회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의우수교수상	학부(중)	2025학년도 1학기
	이승우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의우수교수상	학부(대)	2025학년도 2학기
	임건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의우수교수상	CFMBA(선택)	2025학년도 1학기
	장수령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의우수교수상	학부(소)	2025학년도 1학기
	정동일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의우수교수상	CFMBA(선택)	2025학년도 2학기
	최원욱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의우수교수상	학부(소)	2025학년도 2학기

교수진 국제 학술지

곽주영 | 국제경영

ESG as a nonmarket strategy to cope with geopolitical tension: Empirical evidence from multinationals' ESG performa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46권 3호, 2025.03

김보경 | 매니지먼트

Asymmetric Effects of Holding Power Versus Status: Implications for Motivation and Group Dynamic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51권 1호, 2025.01

Who are social critics: The effects of directors' status and reputation on the choice of social problem films in the Korean film industry, *Poetics*, 109권, 2025.04

Epitomizing an emerging category: Effects of entrepreneurial firms and influential stakeholders on the entrepreneurial firms' status attainment, *Strategic Organization*, 23권 4호, 2025.11

김성문 | ODI-MS

Integration of support vector machines and mean-variance optimization for capital allocation,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322권 3호, 2025.05

김승현 | ODI-IS

AI art in the gig economy: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non-copyrightability in online labor markets, *Decision Support Systems*, 199권, 2025.12

Message is all about you: The effect of message elements on successful communication outcomes on digital platform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01권, 2025.12

김종환 | 회계

CEO conscientiousness and asymmetric SG&A cost behavior, *Applied Economics*, 57권 41호, 2025.09

김지현 | 매니지먼트

Finding the right balance: The impact of individual autonomy on balancing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98권, 2025.09

Learning in Temporally Complex Problems: The Role of External Knowledge, *Organization Science*, 36권 5호, 2025.10

김진우 | ODI-MS

Optimizing mobile cognitive assessment reduces administration time while maintaining screening accuracy in older adults, *Scientific Reports*, 15권 1호, 2025.08

도보람 | 매니지먼트

Does Luxury Fashion Shape Consumers' Perception Differently in the Real World Versus the Metaverse? A Comparative Study on Wearer Evalu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41권 13호, 2025.07

Generation Gap? The Branching Influence of Historical Myths, *Organization Science*, 36권 5호, 2025.09

Female leaders' journey after childbirth: Exploring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affective commitment using a mixed-method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1권, 2025.09

류원상 | 매니지먼트

Where to invest? Effects of technological capabilities on corporate venture capital investments, *Strategic Entrepreneurship Journal*, 19권 1호, 2025.03

Industry-Level Learning-by-Doing Rates and Corporate Development Activities, *JOURNAL OF MANAGEMENT*, 51권 4호, 2025.04

The impact of natural disasters on firm search orientation: Evid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219권, 2025.10

문두철 | 회계

국내 재무회계 연구 동향과 전망: 공시와 회계기준의 변화를 중심으로, *Korean Accounting Review*, 50권 5호, 2025.10

민순홍 | ODI-OM

A Study on Determining Decoupling Points in Military Supply Chains for Uncertainty Mitigation, *Industrial Engineering & Management Systems*, 24권 1호, 2025.03

박승재 | ODI-OM

The Effects of U.S. Export Sanctions on South Korea's Global Value Chains Participation, *Journal of Korea Trade*, 29권 6호, 2025.10

방영석 | ODI-IS

How Does Receipt-Based Consumer Verification Affect Online Reviews?,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35권 2호, 2025.06

배성주 | ODI-OM

Beyond Project Boundaries: Network Structures, Search Scope, and Performance,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72권, 2025.08

변성준 | 재무

Consumption Growth Persistence and the Stock-Bond Correlation,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60권 2호, 2025.03

Stock-Bond Return Dynamics and the Expected Country Stock Returns, *MANAGEMENT SCIENCE*, 71권 12호, 2025.12

서승범 | ODI-MS

Charitable Donations for Corporate Sustainability: Exploring the Impact on the Firm Value of Korean Game Companies, *Sage Open*, 15권 2호, 2025.04

신동엽 | 매니지먼트

The survival of survival auditions: The effects of cultural memes in the Korean TV broadcasting industry, *PLOS ONE*, 20권 3호, 2025.03

Who are social critics: The effects of directors' status and reputation on the choice of social problem films in the Korean film industry, *Poetics*, 109권, 2025.04

신현한 | 재무

Takeover threats and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performance: Evidence from Korea, *FINANCE RESEARCH LETTERS*, 76권, 2025.04

엄영호 | 재무

부동산 수익률의 장기시계열 자료 구축 및 위험 대비 성과 측정에 대한 연구, *Asian Review of Financial Research*, 38권 1호, 2025.02

오홍석 | 매니지먼트

Who are social critics: The effects of directors' status and reputation on the choice of social problem films in the Korean film industry, *Poetics*, 109권, 2025.04

윤대희 | 회계

Inventory planning and tax incentives for charitable giving,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30권 1호, 2025.03

이무원 | 매니지먼트

Japan-US differences and R&D investments in response to performance feedback, *Asian Business and Management*, 24권 2호, 2025.04

Epitomizing an emerging category: Effects of entrepreneurial firms and influential stakeholders on the entrepreneurial firms' status attainment, *Strategic Organization*, 23권 4호, 2025.11

이승우 | 마케팅

The Impact of App Crashes on Consumer Engagement, *Journal of Marketing*, 89권 4호, 2025.07

이재영 | 마케팅

Can You Tolerate Influencer Marketing?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Live Streaming Viewership Reduction related to Influencer Marketing,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88권, 2025.02

New Recommendation Agent to Identify Innovators Utilizing User-Generated Content, *Journal of Applied Business and Economics (JABE)*, 27권 3호, 2025.05

이종민 | 국제경영

Regional specialists in focus: spearheading Samsung's globalization initiative from Korea, *Asia Pacific Business Review*, 31권 1호, 2025.01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and knowledge governance in MNEs: Expatriate staffing and R&D-manufacturing collocation,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34권 1호, 2025.02

Corporate challenges and responses in a bifurcated global economy: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ractice, *Asian Business and Management*, 24권 4호, 2025.09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gime and Ownership Decisions in Cross-border Acquisitions by Emerging Market Multinationals,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65권 5호, 2025.10

Rethinking the performance implication of regional diversification: The interplay between intra- and inter-regional diversificat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99권, 2025.10

Uniting global fans and revolutionizing K-pop marketing: Weverse, a global fan community platform, *Asia Pacific Business Review*, 온라인 게재, 2025.07

이지윤 | 재무

Effects of Fair Value Reporting of Derivatives on Liquidity Management Policies and Firm Value: Evidence From SFAS No. 133, *Journal of Accounting, Auditing and Finance*, 40권 1호, 2025.01

Takeover threats and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performance: Evidence from Korea, *FINANCE RESEARCH LETTERS*, 76권, 2025.04

ESG FUND PERFORMANCE IN AN EMERGING MARKET: THE CASE OF KOREA BEFORE AND AFTER COVID-19,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50권 2호, 2025.06

State-level political environments and executive compensation in the United States: evidence on pay inequality, *FEconomics of Governance*, 26권 3호, 2025.09

Discuss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in Accounting and Capital Markets: A Literature Review on Economic Relevance, Disclosure Frictions, and Valuation Implications", *Korean Accounting Review*, 50권 5호, 2025.10

이호영 | 회계

The Effect of Earlier Contract Date for Auditor Change on Audit Qu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Auditing*, 29권 2호, 2025.04

Chairpersons' Imprinting Experience and Internal Pay Disparities, *Korean Accounting Review*, 50권 4호, 2025.08

임일 | ODI-IS

Understanding users' AI manipulation intention: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antecedents in the context of AI recommendation algorithms, *Information and Management*, 62권 1호, 2025.01

How Does Receipt-Based Consumer Verification Affect Online Reviews?,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35권 2호, 2025.06

The Impact of an AI-based Recommendation Algorithm on User Satisfaction Across Domains: A Dual-path Approach,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35권 4호, 2025.12

전유정 | 마케팅

How Augmented Reality (AR) impacts consumers' connection to a brand, *Marketing Letters*, 37권 1호, 2025.04

정수미 | 회계

Managerial ability and tax avoidance adjustment toward the optimal level, *SPANISH JOURNAL OF FINANCE AND ACCOUNTING-REVISTA ESPANOLA DE FINANCIACION Y CONTABILIDAD*, 54권 1호, 2025.01

CEO early-career recession exposure and corporate operating efficiency, *Finance Research Letters*, 86권, 2025.12

정승환 | ODI-OM

Government Financing for Clean Technology Development: Financial Risk and Environmental Benefits,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34권 7호, 2025.07

A supervised learning-based optimization for container pre-loading problem,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Economics*, 287권, 2025.09

Demand forecasting in micro-fulfillment centers using association rule-based machine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Economics*, 290권, 2025.12

정예림 | ODI-MS

Interplay of immersion, absorption, and flow in virtual reality: Based on experience economy theory and flow theory, *Journal of Global Fashion Marketing*, 16권 2호, 2025.03

조대곤 | ODI-IS

The Impact of Smart Metering Mobile Application on Residential Electricity Consumption: Evidence from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Energy Economics and Policy*, 15권 4호, 2025.06

최원욱 | 회계

Unified or divided? Conflicting interest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in corporate tax avoidance, *Emerging Markets Review*, 68권, 2025.09

최정혜 | 마케팅

Liability of foreignness in immersive technologies: evidence from extended reality innova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56권 3호, 2025.04

A picture's worth a thousand shares: An empirical analysis of logo sizes in social media posts and their impact on content virality, *Marketing Letters*, 36권 2호, 2025.06

Click, sign-up and purchase: consumer responses to real-time mobile promotions along the consumer decision journey, *International Journal of Advertising*, 44권 6호, 2025.08

In the Company of Strangers: Social Influence from Anonymous Peers in Online Game Setting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52권 3호, 2025.10

한재훈 | 재무

부동산 수익률의 장기시계열 자료 구축 및 위험 대비 성과 측정에 대한 연구, *Asian Review of Financial Research*, 38권 1호, 2025.02

교수진 국내 학술지

곽주영 | 국제경영

Outward FDI and the Home-Market ESG Gap: A Test for Emerging Multinationals, *아태비즈니스연구*, 16권 3호, 2025.09

김동훈 | 마케팅

판촉 고지의 독점성이 소비자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Studies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7권 3호, 2025.06

조절초점에 따른 교수실재감의 정서적 효과: 온라인 영어교육 학습자를 중심으로, *Studies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7권 5호, 2025.10

김보경 | 매니지먼트

불확실성 하에서 구성원의 이직 의도에 미치는 다중 명성 효과: 시그널링 이론의 적용, *경영학연구*, 54권 1호, 2025.02

김성문 | ODI-MS

이자율을 기반으로 한 포트폴리오 선정 모형의 투자 성과 분석, *한국경영과학회지*, 50권 2호, 2025.05

시장변동성과 Ridge 회귀를 결합한 동적 포트폴리오 최적화, *경영과학*, 42권 4호, 2025.12

김승현 | ODI-IS

Can Combined Shipping for Cross-border Online Shopping be a Gimmick? The Impact of International Shipping Policy on Customers' Purchase, *Academy of Asian Business Review*, 11권 2호, 2025.12

전통 조직에서의 디지털 전환 과정 연구: 디지털 전환 전문 직급 등장을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 26권 4호, 2025.12

문두철 | 회계

기술특례상장제도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 셀리버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회계와 정책연구*, 30권 1호, 2025.02

제약·바이오 산업의 R&D 감독지침이 기업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가?: 추가 변동성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34권 5호, 2025.10

박경민 | 매니지먼트

기업의 자발적 리콜과 성과에 대한 재고찰: 미국 제약업체를 중심으로, *국제경영리뷰*, 29권 1호, 2025.03

전문 경영인은 혁신적인가?: 외국인 투자자와 스톡옵션의 역할, *전략경영연구*, 28권 1호, 2025.04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취소가 중소·벤처기업의 사멸에 미치는 영향분석, *중소기업연구*, 47권 2호, 2025.06

성과 피드백에 따른 문제해결적 탐색: 거버넌스와 여유자원의 조절효과, *기업경영연구*, 32권 5호, 2025.10

박선주 | ODI-MS

상업용·주거용 건물 적용을 위한 에너지경영정보시스템 (EMIS)으로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개발 실증 사례 연구, *연세경영연구*, 62권 2호, 2025.12

박세범 | 마케팅

식음료 제품의 은유적 표현과 판매촉진 단서의 상호작용 효과가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16권 1호, 2025.03

칼로리 표기 방식이 소비자의 해석수준에 따라 제로 칼로리 음료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상품학연구*, 43권 2호, 2025.04

박승재 | ODI-OM

공공 인프라에서의 고위험 AI 기술 운영: 공형 생체인식 시스템의 책임감 있는 AI 제도와 비교 연구, *경영정보학연구*, 27권 3호, 2025.08

AI 기반 공형 운영에서 효율성과 책임성의 가치 상충 분석: 주요 국가의 AI 규제 접근 비교, *한국생산관리학회지*, 36권 4호, 2025.11

방영석 | ODI-IS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국내 차주의 대출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IT서비스학회지*, 24권 4호, 2025.08

금융 빅데이터에 기반한 노년층 금융 활동의 다각적 분석, *노인복지연구*, 80권 3호, 2025.09

서승범 | ODI-MS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적응 지원 방안: 사례연구를 통한 통찰, *Knowledge & Liberal arts*, 17권, 2025.03

손재열 | ODI-IS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언론사의 신문기사 생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사는 블라인드 정보를 어떻게 취사선택하는가?, *Information Systems Review*, 27권 2호, 2025.05

이승우 | 마케팅

연재형 웹 콘텐츠 휴재가 조회수에 미치는 영향: 웹소설을 중심으로, *마케팅연구*, 40권 3호, 2025.08

헬스케어 모바일 앱 시장에서 공공 서비스 진입이 민간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 *Services Marketing Journal*, 18권 2호, 2025.12

이재영 | 마케팅

컬러보다 독특한 흑백: 시각적 표현과 고립감에 따른 소비자의 독특성 선호의 차이, *마케팅논집(Journal of Marketing Studies)*, 33권 1호, 2025.03

Decentralized Networks and Social Influence in New Product Diffusion: A Study within Online Affinity Groups, *전문경영인연구*, 28권 1호, 2025.03

메가 인플루언서 보다 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틈새 시장에서 지위에 따른 사회적 전염, *전문경영인연구*, 28권 1호, 2025.03

Dissonance Makes You Cautious: The Effect of Non-Chord Tones on Risk Attitude, *마케팅논집(Journal of Marketing Studies)*, 33권 3호, 2025.09

이종민 | 국제경영

신홍시장 다국적기업의 ESG성과가 국제화 속도에 미치는 영향: 최고경영자 해외 경험과 기업 소유구조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국제경영연구*, 36권 1호, 2025.02

가치와 행동: 현대 한국 직장인의 가치와 조직 행동(성장, 혁신, 이직의도)과의 관련성, *인적자원관리연구*, 32권 1호, 2025.03

Does Corporate Board Diversity Impact Disaster Preparedness?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Corporate Reactions to Covid-19, *Journal of Apec Studies*, 17권 1호, 2025.06

Exploring the Paradox of Ethical Branding: Ethical Consumers and Brand Avoidance,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52권 2호, 2025.12

이지윤 | 재무

한국 기업의 ESG 성과 연계 보수 도입 분석, *법경제학연구*, 22권 1호, 2025.04

K-방산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 수출금융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방위산업학회지*, 32권 3호, 2025.12

이호영 | 회계

Bottom-Up Corporate Governance and Pay Disparities within Top Management Teams, *관리회계연구*, 25권 1호, 2025.04

CEO-CFO Tenure Order and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회계저널*, 34권 3호, 2025.06

에너지산업의 탄소감축 활동에 대한 사례 연구: Shell, TotalEnergies, ExxonMobil을 중심으로, *윤리경영연구*, 25권 1호, 2025.07

평가 속에 길을 잃는가?: ESG 점수 불일치와 경영진 단기주의, *관리회계연구*, 25권 2호, 2025.08

핵심감사사항의 특성이 감사노력에 미치는 영향, *아태비즈니스연구*, 16권 3호, 2025.09

주기적 감사인 지정기업과 자유수임 기업의 감사품질 및 지정기간 종료의 효과,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67권 3호, 2025.09

장수령 | 마케팅

공동 제작 파트너십이 영화 흥행에 미치는 영향: 제작 참여 국가 수와 국가 간 문화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9권 1호, 2025.02

고객 체류 시간이 방문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행 동기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마케팅논집(Journal of Marketing Studies)*, 33권 2호, 2025.06

피트니스 센터 경영인의 폐업 결정에 주요 요인 연구: 배달앱, 금융앱 사용 정보를 중심으로, *전문경영인연구*, 28권 3호, 2025.08

공연 가격 구조와 매출의 관계: 공연 포스터 색상의 조절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5권 10호, 2025.10

장은미 | 매니지먼트

불확실성 하에서 구성원의 이직 의도에 미치는 다중 명성 효과: 시그널링 이론의 적용, *경영학연구*, 54권 1호, 2025.02

육군 초급간부의 일-삶 불균형과 이직의도에 대한 자원보존이론 분석: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Journal of Organization and Management*, 49권 2호, 2025.05

Signaling Theory and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Explanations of Employees' Green Behaviors: Evidence from Two Multilevel Analyses, *생산성논집*, 39권 4호, 2025.06

전유정 | 마케팅

How Leadership Roles Shape Judgments of AI Decisions: Differences Between Decision Makers and Decision Targets, *전문경영인연구*, 28권 2호, 2025.05

정승화 | 매니지먼트

Social Media Applications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An Analysis of Recent Research Trends, *무역연구*, 21권 3호, 2025.06

정승환 | ODI-OM

AHP를 활용한 제주도의 변동성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해소방안 연구, *한국혁신학회지*, 20권 1호, 2025.02

정예림 | ODI-MS

가중 납기 지연과 공정시간 단축 비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 선점적 단일 기계 스케줄링, *한국경영과학회지*, 50권 1호, 2025.02

조대곤 | ODI-IS

디젤 중고차 시세 예측에 있어 온라인 뉴스의 감성 정보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정보화정책*, 32권 4호, 2025.12

최순규 | 국제경영

How Does ESG Decoupling affect the Organizational Change Capabilities of Korean SMEs?, *전문경영인연구*, 28권 1호, 2025.02

정치적 연계와 부패 인식이 해외시장 철수 의지에 미치는 영향: 베트남 진출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37권 2호, 2025.02

최원욱 | 회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와 투자 효율성,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67권 1호, 2025.03

핵심감사사항으로서의 법인세 계정: 조세회피 정보 제공의 유용성에 대한 실증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26권 2호, 2025.04

최정혜 | 마케팅

메타버스 마케팅과 소비자의 브랜드 참여: 럭셔리 패션 브랜드를 중심으로, *Services Marketing Journal*, 18권 1호, 2025.06

음식 배달 앱 수용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 분석, *마케팅관리연구*, 30권 3호, 2025.08

석박사 학생 국제 학술지

김고운 | 회계 / 통합

The Impact of CEO overconfidence on discretionary deferred tax assets: Evidence from Korea, *Investment Management and Financial Innovations*, 22권 2호, 2025.04

김우경 | 마케팅 / 박사

Push the Paw: A field Experiment on Personalised Push Notifications and User Engagement, *Australasian Marketing Journal*, 2025.07

김태영 | ODI-IS / 박사

How Does Receipt-Based Consumer Verification Affect Online Reviews?,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2권 35호, 2025.06

라경흠 | 회계 / 박사

Does firm-level environmental policy uncertainty affect cost stickiness?,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108호, 2025.10

Do CEO Implicit Incentives Affect Strategic Effort Reduction?: Evidence from CEO Origin and Career Horizon, *Journal of Management Accounting Research*, 온라인 게재, 2025.05

박채원 | ODI-OM / 박사

Beyond Project Boundaries: Network Structures, Search Scope and Performance,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게재예정, 2025.08

왕박한 | 재무 / 통합

Takeover threats and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performance: Evidence from Korea, *Finance Research Letters*, 76권, 2025.04

이정은 | 회계 / 박사

CEO early-career recession exposure and corporate operating efficiency, *Finance Research Letters*, 86권, 2025.11

황인서 | 마케팅 / 통합

Emotional anthropomorphism of notifications and app engagement: Does the usage frequency matter?, *Journal of Research in Interactive Marketing*, 온라인 게재, 2025.05

황진아 | 회계 / 박사

Unravelling the Impact of Post-Repurchase Action on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Spanish Journal of Finance and Accounting*, 2025.12

FANG, YUANHAN | ODI-MS / 박사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 perception of overqualification, job burnout, and impulsive buying behavior, *Current Psychology*, 44호, 2025.02

Interplay of immersion, absorption, and flow in virtual reality: Based on experience economy theory and flow theory, *Journal of Global Fashion Marketing*, 16권 2호, 2024.12

Ethical leadership, organizational learning, and corporate ESG performance: A moderated mediation model,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98호, 2025.03

LI, LAN | ODI-IS / 통합

AI Art in the Gig Economy: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Non-Copyrightability in Online Labor Markets, *Decision Support Systems*, 199호, 2025.09

석박사 학생 국내 학술지

고경태 | ODI-MS / 석사

시장변동성과 Ridge 회귀를 결합한 동적 포트폴리오 최적화, *경영과학*, 42권 4호, 2025.12

김고운 | 회계 / 통합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와 투자 효율성, *회계세무와감사연구*, 67권 1호, 2025.03

핵심감사사항으로서의 법인세 계정: 조세회피 정보 제공의 유용성에 대한 실증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26권 2호, 2025.04

The Impact of CEO Overconfidence and Fraud Risk on Audit Effort, *회계학연구*, 50권 1호, 2025.02

김나연 | 마케팅 / 석사

컬러보다 독특한 흑백: 시각적 표현과 고립감에 따른 소비자의 독특성 선호의 차이, *마케팅논집*, 33권 1호, 2025.03

김우경 | 마케팅 / 박사

Social Influence on Food Delivery App Adoption, *마케팅관리연구*, 30권 3호, 2025.07

김태양 | 매니지먼트 / 통합

Determinants of social distancing policies in response to COVID-19: The filtering effect of institutional logics, *기업경영리뷰*, 16권 5호, 2025.11

라경흠 | 회계 / 박사

핵심감사사항으로서의 법인세 계정: 조세회피 정보 제공의 유용성에 대한 실증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26권 2호, 2025.04

The Effect of Total Shareholder Return(TSR) on Performance Target Setting: Evidence from Executive Bonus Target Ratcheting, *관리회계연구*, 25권 1호, 2025.05

박지현 | ODI-OM / 박사

AI 기반 공학 운영에서 효율성과 책임성의 가치 상충 분석: 주요 국가의 AI 규제 접근 비교, *한국생산관리학회지*, 36권 4호, 2025.10

박채원 | ODI-OM / 박사

조직간 협력에서 프로젝트 구조: 한국 생명공학 R&D를 중심으로, *연세경영연구*, 62권 2호, 2025.12

손영혜 | 마케팅 / 석사

메가 인플루언서보다 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틈새 시장에서 지위에 따른 사회적 전염, *전문경영인연구*, 28권 1호, 2025.02

신석영 | ODI-IS / 박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언론사의 신문기사 생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사는 블라인드 정보를 어떻게 취사선택하는가?, *경영정보학연구*, 27권 2호, 2025.05

안미주 | 마케팅 / 석사

칼로리 표기 방식이 소비자의 해석수준에 따라 제로 칼로리 음료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상품학연구*, 43권 2호, 2025.04

왕박한 | 재무 / 통합

Discuss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ESG) in Accounting and Capital Markets: A Literature Review on Economic Relevance, Disclosure Frictions, and Valuation Implications, *회계학연구*, 50권 5호, 2025.10

Determinants and Value Implications of Corporate ESG Bond Issuance: Evidence from South Korea,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49권 1호, 2024.03

윤희상 | 국제경영 / 박사

정치적 연계와 부패인식이 해외시장 철수 의사에 미치는 영향: 베트남 진출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K동서연구*, 37권 3호, 2025.09

일본 기업의 시대별 대항(對抗)직접투자 전략 변화에 관한 연구: 점진적 국제화와 코피티션(Co-opetition)을 중심으로, *경영사연구*, 20집 3호, 2025.08

이기원 | 마케팅 / 석사

헬스케어 모바일 앱 시장에서 공공 서비스 진입이 민간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 *Services Marketing Journal*, 18권 2호, 2025.12

이민주 | 회계 / 통합

Bottom-up Corporate Governance and Pay Disparities within Top Management Teams, *관리회계연구*, 25권 1호, 2025.04

Chairpersons' Imprinting Experience and Internal Pay Disparities, *회계학연구*, 50권 4호, 2025.08

제약 바이오 산업의 R&D 감속지침이 기업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가?: 추가 변동성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34권 5호, 2025.10

이송하 | 마케팅 / 박사

AI 챗봇의 의인화가 추천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기대 위반 이론을 통한 성과 귀인 메시지의 조절 효과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25권 3호, 2025.03

컬러보다 독특한 흑백: 시각적 표현과 고립감에 따른 소비자의 독특성 선호의 차이, *마케팅논집*, 33권 1호, 2025.03

코로나 기간(2021년)과 종식 후(2023년) 고령 소비자의 디지털 역량 변화가 소비자 만족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문제연구*, 56권 1호, 2025.04

Dissonance Makes You Cautious: The Effect of Non-Chord Tones on Risk Attitude, *마케팅논집*, 33권 3호, 2025.10

이승윤 | 마케팅 / 석사

공동 제작 파트너십이 영화 흥행에 미치는 영향: 제작 참여 국가 수와 국가 간 문화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9권 1호, 2025.02

이재현 | 마케팅 / 통합

공동 제작 파트너십이 영화 흥행에 미치는 영향:
제작 참여 국가 수와 국가 간 문화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9권 1호, 2025.02

고객 체류 시간이 방문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행
동기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마케팅논집*,
33권 2호, 2025.06

피트니스 센터 경영인의 폐업 결정에 주요 요인 연구:
배달앱, 금융앱 사용 정보를 중심으로, *전문경영인연구*,
28권 3호, 2025.08

이하정 | 마케팅 / 석사

고객 체류 시간이 방문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행
동기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마케팅논집*, 33권 2호,
2025.06

공연 가격 구조와 예술의 관계: 공연 포스터 색상의 조절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5권 10호, 2025.10

정나영 | 마케팅 / 박사

고객 체류 시간이 방문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행
동기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마케팅논집*,
33권 2호, 2025.06

정민수 | ODI-MS / 석사

이자율을 기반으로 한 포트폴리오 선정 모형의 투자 성과
분석, *한국경영과학회지*, 50권 2호, 2025.05

정현우 | 마케팅 / 석사

Social Influence on Food Delivery App Adoption,
마케팅관리연구, 30권 3호, 2025.07

조복경 | 마케팅 / 석사

연재형 웹 콘텐츠 휴재가 조회수에 미치는 영향: 웹소설을
중심으로, *마케팅연구*, 40권 3호, 2025.08

지은상 | 회계 / 박사

쿠팡 사례를 통한 온라인 유통시장 발전과정 분석 및
시사점, *경영사연구*, 40집 2호, 2025.05

추형석 | 회계 / 박사

제약 바이오 산업의 R&D 감독지침이 기업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가?: 주가 변동성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34권 5호, 2025.10

The effect of executives' horizon on the association
between firm value and executive-employee pay
disparity, *관리회계연구*, 25권 3호, 2025.12

허지욱 | 마케팅 / 석사

Dissonance Makes You Cautious: The Effect of Non-
Chord Tones on Risk Attitude, *마케팅논집*, 33권 3호,
2025.10

ZHANG, LIYAO | 회계 / 박사

CEO-CFO Tenure Order and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회계저널*, 34권 3호, 2025.06

Bottom-up Corporate Governance and Pay
Disparities within Top Management Teams,
관리회계연구, 25권 1호, 2025.04

Lost in Ratings: ESG Divergence and Managerial
Short-Termism, *관리회계연구*, 25권 2호, 2025.08

Chairpersons' Imprinting Experience and Internal
Pay Disparities, *회계학연구*, 50권 4호, 2025.08

석박사 학술대회 논문 채택 및 학회 발표**국제****강윤정**

Performance Feedback and Global Alliances: Navigating the Liability of Origin in
Emerging Markets, *R&D Management 2025* — 피사(이탈리아)

김은우

Who Owns, Who Cares? Ownership Structure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MNE Subsidiaries in Asia-Pacific Countries, *The 85th Annual Meeting of the
Academy of Management* — 코펜하겐(덴마크)

김주희

Galactic Companions from Star Wars: C-3PO or R2-D2? Understanding Dual Types
of Anthropomorphism in Humanoids, *The 58th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 (HICSS)* — 하와이(미국)

김태양

Quest Accepted(or Not): Status, Reputation, and Their Effects on the Game
Classification Process, *The 85th Annual Meeting of the Academy of Management*
— 코펜하겐(덴마크)

박주미

Incorporating News Headline Sentiment into the Markowitz Portfolio Selection
Model, *2025 INFORMS ANNUAL MEETING* — 애틀랜타(미국)

신하정

Enhancing Global Mindset Through International Experience: The Cross-Level
Moderating Role of Organizational Context,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 루이빌(미국)

When international experience enhances global mindset: The moderation of
organizational context, *The 85th Annual Meeting of the Academy of Management*
— 코펜하겐(덴마크)

안민정

On the Value of Cross-Item Information in Forecasting Volatile Demand in Micro-
Fulfillment Centers, *IPOMS Conference 2025* — 애틀랜타(미국)

Welfare vs. Revenue: Optimal Government Loan Design for Green Production, *2025
INFORMS ANNUAL MEETING* — 조지아(미국)

양승재

My Leader is Abusing Me, and it's All My Fault!: The Moderating Effect of Leader
Passion on Abusive Supervision and Self-blame, *The 85th Annual Meeting of the
Academy of Management* — 코펜하겐(덴마크)

양지혜

Portfolio Selection Models with Weight Constraints Derived from a Nonlinear
Shrinkage Method Reflecting Macroeconomic Variables: Macroaugmented Portfolio
Models, *2025 INFORMS ANNUAL MEETING* — 조지아(미국)

왕박한

Do Female Directors Driv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erformance? Evidence
from Korea's Board Gender Quota Mandate, *Massey Sustainable Finance
Conference* — 난징(중국)

원희정

Strategizing Between Empires: Geopolitical Differences and Local Competitor
Isomorphism in U.S. and China Trade War, *EIBA 2025 Athens Conference is
organized by University of Piraeus* — 아테네(그리스)

이윤정

The Effect of AI Regulation on Startup Funding: Evidence from the EU AI Ac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ICIS) 2025 — 내슈빌(미국)

황진아

Unveiling RPTs: Are All RPTs Equal in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The 47th Annual Congress of the European Accounting Association* — 로마(이탈리아)

FANG, YUANHAN

VR Cultural Tourism and Museum Tourism: Research on the Scenario Differences and Application Effects of the Experience Economy Theory, *ICDES 202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stinations, Events and Sports* — 삿포르(일본)

VR's Experience Economy: Behavioral Differences and Usage Intent of Chinese and Korean Consumers - Forbidden City & Gyeongbokgung Palace Examples, *2025 Global Marketing Conference* — 홍콩(홍콩)

Based on the HMSAM Framework: Research on the Application of VR Technology in Cultural Heritage Museums and User Persistence, *IGlobal Hospitality and Tourism Research Summit* — 후쿠오카(일본)

PARK, TAE YOUNG

Searching for Foreign Gems: How Experiential Diversity Affects Cross-Border Acquisitions from Performance-Aspiration Gap,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 루이빌(미국)

Chasing Two Hares: Examining the effects of Nonmarket Performance on Aspiration-based Organizational Search, *The 85th Annual Meeting of the Academy of Management* — 코펜하겐(덴마크)

YAN, HUIZI

Strategy Responses to Government Loan Programs: Green Technology Startups in Competitive Markets, *POMS Conference 2025* — 애틀랜타(미국)

국내

김나연

인플루언서의 협찬 리뷰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플루언서의 신뢰도,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제품의 유형을 중심으로, *2025 한국유통학회 하계융합학술대회* — 울산(대한민국)

박주미

종목별 뉴스 감성을 반영한 포트폴리오 선정모형의 투자 성과 분석, *2025 한국경영과학회 추계학술대회* — 서울(대한민국)

안미주

온라인 이미지의 맥락적 단서가 소비자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쾌락적 식품 소비를 중심으로, *2025 한국전력마케팅학회 춘계학술대회* — 대구(대한민국)

안민정

도매 물류센터 거래 데이터를 활용한 머신러닝 기반 물동량 예측 모델 개발, *2025 한국유통학회 하계융합학술대회* — 울산(대한민국)

이송하

Just Be Yourself: 백색 소음이 소비자의 독창성 선호도를 증가시키는 방법, *2025 한국마케팅학회 춘계학술대회* — 광주(대한민국)

이기원

모바일 헬스케어 앱 시장에서 공공 서비스 진입이 민간 서비스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2025년 서비스마케팅 추계학술대회* — 강릉(대한민국)

조복경

Time Rhythms of Serialized Web Content, *2025 KSMS International Conference* — 서울(대한민국)

지은상

미등기임원의 수와 보수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2025 한국유통학회 하계융합학술대회* — 울산(대한민국)

추형석

Manager-Disclosed Non-GAAP Earnings and Labor Investment Inefficiency, *2025 한국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 — 서울(대한민국)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와 기업의 부채비용, *2025 한국윤리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 울산(대한민국)

홍수정

신림동 갑부림 사건의 상권 매출 영향 분석: DID 및 합성통제법(SCM) 접근, *2025년 한국유통학회 추계학술대회* — 제주도(대한민국)

FANG, YUANHAN

From Spectatorship to Immersion: How Passive and Active Participation Shape Consumer Value and Behavioral Intentions in VR-K-POP Experiences, *2025 KSMS International Conference* — 서울(대한민국)

교수진 도서 출간



김기영
한국의 제조업 성장과
혁신의 60년
문우사



박경민
가치기반 전략경영,
박영사



방영석
디지털 비즈니스 전략:
IT 기반 가치 혁신
윙크출판사



신동엽, 오홍석
조직행동: 미래와 도전
박영사



이동진
Happiness in the Marketplace:
A Study of Consumption,
Consumers and Wellbeing
Springer



이호영
ESG 지속가능경영과
기독교
법문사



임 일
AI 에이전트를 위한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
청람



장은미
고신뢰조직에서 성장마인드셋까지:
불확실성시대의 경영 談論
초아출판사

우수연구업적교수

단계	명칭	대상자	분야	적용기간
레벨1	정기호 연구우수교수	방영석	ODI-IS	2023-1학기 ~ 2025-2학기
		어준경	재무	2023-1학기 ~ 2025-2학기
		류원상	매니지먼트	2024-1학기 ~ 2026-2학기
		이지윤	재무	2024-1학기 ~ 2026-2학기
		임 일	ODI-IS	2025-1학기 ~ 2027-2학기
		정수미	회계	2025-1학기 ~ 2027-2학기
		도보람	매니지먼트	2025-1학기 ~ 2027-2학기
레벨2	정기호 연구업적교수	박승재	ODI-OM	2023-1학기 ~ 2025-1학기
		정승환	ODI-OM	2024-2학기 ~ 2027-1학기
		윤대희	회계	2025-1학기 ~ 2027-2학기
레벨3	정기호 우수 연구업적교수	최정혜	마케팅	2020-2학기 ~ 2030-1학기
		박승재	ODI-OM	2025-2학기 ~ 2030-1학기
레벨4	정기호 최우수 연구업적교수	김승현	ODI-IS	2024-2학기 ~ 2029-1학기

Stock-Bond Return Dynamics and the Expected Country Stock Returns

주식·채권 수익률의 상호동태성과 국가별 기대주식수익률

학술지명 *Management Science* 게재 71권 12호, 2025.12



저자 변성준 교수



주식과 채권의 불륜: 이 '위험한' 커플이 더 큰 수익이 나는 이유

전통적인 투자 이론에서 주식과 채권은 시소를 타는 관계로 묘사됩니다. 불확실성이 커질 때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인 주식을 팔고 안전 자산인 채권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두 자산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우리의 자산을 더 안전하게 해 주는 든든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주식과 채권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국가의 주식 시장이,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최대 연 11%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것을 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국가 내 위험의 역설: 물가와 성장률의 엇박자

글로벌 경제 위기는 상권 전체에 닥친 불경기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새로운 레스토랑을 오픈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대신 경기가 나빠도 원금과 이자를 챙길 수 있는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위기 시에는 주식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오르는 완벽한 시소가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논문에서 지정한 '국가 고유의 리스크(Country-specific Risk)', 즉 그 나라만의 독특한 물가 상승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상권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식당에서 취급하는 특정 식자재 원가가 폭등한 상황과 같습니다. 이 식당은 버티지 못하고 음식값을 대폭 올리게 되고, 비싸진 가격에 단골손님마저 옆 식당으로 발길을 옮기는 상황과 같습니다. 식당의 이익이 줄어드니 결국 주가는 하락하고, 밀린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정확히는 물가의 상승으로 금리가 올라) 더 높은 이자를 내야만 합니다 (채권가격 하락). 주식과 채권이 원가 폭등으로 함께 망하게 됩니다.

이 비유는 현실 거시경제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국가 내부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투입 원가가 상승하면, 기업들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가의 경제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시사점: 물이 깨진 시장에서 투자자가 챙기는 대가

이렇게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하락하는 시장은 투자자에게는 재앙과 같습니다. '내가 떨어지면 네가 방어해 준다'는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본 시장은 공정합니다. 이런 위험한 '국가 고유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 투자자들에게는 연 7%~11%라는 추가 수익을 쥐여 줍니다. 이는 시장이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위자료(위험 프리미엄, Risk compensation)인 셈입니다.

기업 관점에서 이것이 냉혹한 현실을 뜻합니다. 주식과 채권 가격이 함께 떨어지는 시기에는 자본 조달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경영이 어려워져 자금이 필요할 때, 주가가 폭락한 상태라면 주식을 새로 발행해 자금을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채권 시장마저 무너진 상태라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고금리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 논문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한 국가의 고유한 리스크가 커져 주식과 채권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 주식 투자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이 자본 투입에 대해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식과 채권의 동조화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내재적 위험을 경고하고 그에 따라 우리가 지급해야 하는 보상을 수치화해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앱이 튕겼다, 그런데 사용자는 왜 다시 돌아올까?

앱 크래시(App Crash)가 소비자 참여에 미치는 숨겨진 역학 관계

학술지명 *Journal of Marketing* 게재 89권 4호, 2025.07



저자 이승우 교수

"아, 또 튕겼네!" 유튜브 영상이 클라이맥스로 향하던 순간, 혹은 결제를 앞두고 장바구니를 확인하던 순간 앱이 갑자기 종료된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당연히 이런 일을 겪으면 사용자는 크게 분노하고 앱을 영영 떠날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사용자는 앱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될 경우 무조건 이탈할까? 이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뜻밖의 사실을 밝혀냈다. 놀랍게도 단 한 번의 앱 크래시는 오히려 사용자의 앱 참여도(Engagement)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❶ "어디까지 봤더라?" 호기심과 완결의 욕구

연구팀이 쇼핑 카탈로그 앱의 방대한 현장 데이터와 세 차례의 온라인 실험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한 번의 앱 크래시를 겪은 사용자는 다음 세션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페이지를 조회하고 앱에 더 빨리 복귀하는 경향을 보였다.

왜 그럴까? 답은 인간의 심리적 본성에 있다. 하던 일이 중간에 예기치 않게 끊기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 끝내고 싶어 하는 '종결 욕구(Need for closure)'와 남은 내용에 대한 '호기심(Curiosity)'을 강하게 느낀다. "아까 보던 상품의 가격이 얼마였지?", "게임에서 신기록을 깰 수 있었는데!"라는 심리가 작용해, 끊어진 흐름이 만든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를 다시 앱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는 것이다.

❷ "너무 튕기면 지쳐요" 좌절과 포기

하지만 이 마법이 영원히 통하는 것은 아니다. 앱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비정상 종료되거나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크래시가 발생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는 사용자의 감정이 호기심에서 극심한 '좌절감(Frustration)'으로 바뀌게 된다. 결국 "이 앱으로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다"라는 '과업 달성 불가(Task Unattainability)' 판단을 내리며 서서히 앱을 떠나게 된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부정적 여파 역시 마지막 크래시 이후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자연스럽게 망각되어 참여도가 회복되는 현상도 확인되었다.



3 실무적 시사점

이 연구는 기업들이 단순히 '오류 횟수'라는 단편적이고 거래적인 (Transactional) 관점으로만 앱 크래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 **전략적 오류 메시지의 힘:** 거듭된 앱 크래시로 인한 사용자 이탈을 막으려면 오류 팝업창의 작은 문구 하나가 매우 중요하다. 실험 결과, "우리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Our Server Error)"처럼 원인을 기업의 탓으로 명확히 밝히고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단순히 "오류가 발생했습니다"라고 알리는 것보다 사용자의 재참여를 유도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었다.

- **타겟형 업데이트(Targeted Release) 도입:** 대규모 업데이트 시 많은 오류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면, 무작정 전체 사용자에게 배포하기보다는 '앱 크래시에 덜 민감하고 복귀율이 높은' 탄력적인 사용자 그룹을 분석 모델을 통해 찾아내어 이들에게 먼저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는 세밀한 업데이트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4 AI 시대로의 확장 생성형 AI 실패(AI Failure)의 역학

이러한 '디지털 중단(Digital Interruption)'에 대한 통찰은 최근 급격히 도입되고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에도 훌륭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 AI 비서가 답변 생성을 중간에 멈추거나 환각(Hallucination) 현상으로 엉뚱한 대답을 내놓는 등 사용자의 작업 흐름이 중단될 경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앱 크래시 사례와 마찬가지로, 일회성의 가벼운 AI 오류는 오히려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수정하여 다시 질문하게 만드는 '호기심'과 '종결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 하지만 똑같은 문맥 이해 오류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반복된다면, 사용자는 AI의 지능 자체에 대한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AI 서비스 기획자 역시 오류 발생률을 줄이는 기술적 접근을 넘어, 실패 발생 직후 사용자에게 어떤 맥락의 안내 문구를 제공하여 상호작용의 끊김을 부드럽게 이어갈 것 인지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마무리

디지털 환경에서의 실패는 단순한 시스템 에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호작용이 시작되는 결정적 순간일 수 있다. 앱이 튕기는 그 짧은 순간에 숨겨진 소비자의 심리를 정교하게 읽어내고 대응할 때, 기업은 치열한 플랫폼 경쟁에서 진정한 생존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연구단
비전

세계적 수준의 경영학 연구인력 양성기관 및
세계 30위권의 연구역량 실현

3대 목표

1

학생 역량 육성

Student Capability Growth

2

사회문제 해결

Social Problem Solving

3

글로벌 임팩트

Global Impact

4대 전략

1 교육

가치창출 교육 제공을 통한
전문연구인력 양성

2 연구

질적 연구로의 전환을 통한
Leading Business Research School 실현

4대 중점분야

창업 / 기업가정신

디지털 전환 / AI

ESG / 기업윤리

K-Management

3 국제화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국제적 연구 성과 창출

4 지속가능성

교육연구단의 지속적 교육 · 연구 혁신

성과지표

학생성공 지수

학생연구 역량 지수

교원연구 역량 지수

국제화 지수

4단계 BK21 2025년 사업 개요

경영대학은 2020년 9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4단계 BK21 사업에서 '사회가치 실현 경영인재 교육연구단'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BK21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 과정생 및 신진연구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고등교육 인력양성 사업이다. BK21 4단계 사업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7년이다.

지원금의 대부분은 박사와 석사 학생, 신진 연구인력의 연구 장학금으로 집행된다. BK21사업에 참여하는 박사와 석사과정 학생은 매월 연구장학금으로 각각 160만원과 100만원을 지원받으며, 신진연구인력은 300만원을 지급받는다. 2025년도 3월부터 2026년도 2월까지의 6차년도 기간 동안, 참여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379,200,000원을 지원하였다.(신진연구인력 연구지원금 포함금액) 뿐만 아니라 해외 장단기연수 등의 국제협력, 국제컨퍼런스 참여 지원과 학술활동 지원도 하였다.

연세경영 BK21 교육연구단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영인재 양성'이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인력 양성 및 글로벌 30 위권의 연구역량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 모두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시각과 역량이 필수적이고, 교육사업단의 목표와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교육연구단은 교육, 연구, 국제화, 지속가능성을 주요 전략 분야로 설정했다.

경영학의 다양한 분야 중 연세경영 BK21 교육연구단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창업/기업가 정신 △디지털 전환/AI △ESG/기업윤리 △K-Management를 4대 중점 분야로 설정했다. 이는 연세경영이 그동안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 연구활동을 수행해온 분야이자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주요 문제를 포함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한국윤리경영학회

2025년 춘계학술대회 공동 개최 및 참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BK21FOUR 교육연구단은 한국윤리경영학회와 공동으로 본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의 윤리경영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술적 논의와 실무적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이사회 및 개회식을 시작으로 특별세션과 일반 학술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며, 특별세션에서는 “다양성 존중과 윤리경영”, “복잡한 외부환경과 ESG 경영”을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일반 학술세션에서는 기업의 ESG 성과, 공급망 리스크 관리, 세무 전략, 조직행동, 환경보호 활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연구 발표가 병행되었다.

특히 본 학술대회에서는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ESG 경영과 관련된 최신 연구 동향과 정책, 그리고 기업 실무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윤리경영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는 2025년 3월부터 윤대희 교수(회계)가 소장, 이지윤 교수(재무)가 부소장으로 임명되어, 경영대학 교수진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이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학문과 실무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국내외 연구자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글로벌 석학들과 교류하였으며,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용적인 연구 성과를 산출하고 있다.

2025년에는 총 95회의 전공분야별 세미나 및 연구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내 및 해외 연구자들과 기업 임원진을 초청한 강연을 진행하였으며, 이 가운데 43회 걸쳐 해외 소속 연구자를 초빙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업 사례를 발굴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에게는 세계적인 학자의 특강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경영연구소에서는 경영대학 연구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영대학 전임교원의 우수 학술지 논문 게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국내 학진등재 학술지 논문 69편과 국제 우수학술지 논문 63편에 대하여 지원하였다.

2025년 경영연구소 및 전공분야 세미나 개최					
마케팅	13	국제경영	3	매니지먼트	10
재무	15	회계	18	ODI OM	13
ODI MS	3	ODI IS	13	연구소	7
					합계 95

2025년 우수논문게재장려금 지원					
KCI	69	UTD24	10	FT50	3
국제우수1A	16	SSCI / SCI / SCIE	24	SCOPUS	10
합계					132

「연세경영연구」는 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로서, 경영학 분야의 이론적, 경험적, 실질적 지식 축적 뿐만 아니라 학문적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계와 기업의 전문 경영자를 위한 현대 경영학 이론과 경영 기법 및 교육 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여 연 2회 간행되고 있다. 매년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며, 2025년에는 최우수논문 1편,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하였다. 2025년 「연세경영연구」는 제62권 제1호와 제2호가 발간되었으며, 2025년 9월부터 정동일 교수(매니지먼트)가 편집위원장을 맡고 박창희 교수(마케팅)가 부편집위원장을 맡아 우수 논문 출판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영연구소에서는 경영학 연구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이론이나 시의성이 높은 경영 관련 연구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한 전문학술저서 집필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연세경영연구소 총서 시리즈로 「디지털 비즈니스 전략: IT 기반 가치 혁신」이 출판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연구소는 최신 이론과 실무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학문적 깊이와 실천적 가치가 공존하는 경영학 연구를 통해 한국을 넘어 글로벌 경영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5학년도 세미나 개최 (국내)

구분	일자	주제	강사
국내	2025.03	Understanding Continuance Intention of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방영석(연세대)
국내	2025.03	The Impact of Platform-Issued Certificates on Post-Purchase Behavior: Evidence from Transactional Data	방영석(연세대)
국내	2025.03	Game Modification, Update, and Performance	방영석(연세대)
국내	2025.05	Emotional Anthropomorphism of Notifications and App Engagement: Does the Usage Frequency Matter?	최정혜(연세대)
국내	2025.05	In the Company of Strangers: Social Influence from Anonymous Peers in Online Game Settings	최정혜(연세대)
국내	2025.04	Will Cryptocurrency-Based Loyalty Programs Thrive as Coin Prices Rise? Empirical Evidence from a Ride-Hailing Platform	조대곤(연세대)
국내	2025.05	Social Influences in Flash Sales: Evidence from Online Grocery Shopping	박창희(연세대)
국내	2025.06	Market-Based Managerial Incentives and Real Effects of Auditor Rotation	윤대희(연세대)
국내	2025.06	The Role of Language in International Market Entry Decisions: A Resource Redeployment Perspective	류원상(연세대)
국내	2025.07	The Impact of Ad Repetition on Viewer Attention in Connected and Linear Television	이승우(연세대)
국내	2025.07	The Price of Prestige: When Do Price Premiums Drive or Deter Consumer Demand?	최정혜(연세대)
국내	2025.07	ESG and Advertising Strategy: How ESG Performance Moderates Advertising Effectiveness in the Fashion Industry	장수령(연세대)
국내	2025.08	Continued Engagement: Analyzing Series Extensions of Mobile Casual Games	최정혜(연세대)
국내	2025.09	What Makes Consumption Experiences Feel Special? A Multi-method Integrative Analysis	선정아(연세대)
국내	2025.11	Coordinating Pro-Social Practices in Decentralized Relationships: The Case of the Buy-One-Give-One Model	윤대희(연세대)
국내	2025.11	Organizational Learning and Design Implications of Knowledge Sharing	김지현(연세대)
국내	2025.01	A Hybrid Longitudinal Analysis of Subsidiary General Manager Staffing: Within-Firm R&D Intensity and International R&D Experience Dynamics	이종민(연세대)
국내	2025.03	Linguistic Alignment and its Performance Consequences for Organizations	한상원(INSEAD)
국내	2025.03	OM 연구주제의 탐색과 연구방법론과의 매칭	이평수(경기대)
국내	2025.03	Wait Time Announcements to Optimize Customer Satisfaction	김정현(고려대)
국내	2025.03	Periodicity in Cryptocurrency Market and Algorithmic Trading	Kim Chan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ion)
국내	2025.04	Monetary Policy Uncertainty and Market Feedback	오형일(KAIST)
국내	2025.04	Mental Health as a Foundation for Psychological Safety: How Organizational Mental Health Support Enhances Employees' Psychological Safety through Social Network Expansion	조유아(성균관대)
국내	2025.04	The Impact of Enterprise Risk Management on Firm Risk Allocation	윤지연(중앙대)
국내	2025.05	Strategic decisions in multi-component supply chains	심정은(서울대)
국내	2025.05	When AI joins the Team: How LLMs Interact with Team Diversity in Ideation	김용석(성균관대)
국내	2025.05	Favorable Risk Selection in Medicare Advantage: The Effect of Allowing Non-Medical Services	황우남(KAIST)
국내	2025.05	Capturing relational information in financial data through graph neural network	손범호(중앙대)
국내	2025.05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트윈 : 산업현장의 문제 해결 사례	이현호(애틀릭스)
국내	2025.05	Who is laughing now? Humor as a mechanism to negotiate status conflicts during organizational change	심소현(중앙대)
국내	2025.06	Generative AI: Unlocking Business Value and Refining Social Science Understanding	신동혁(KAIST)
국내	2025.06	국제경영학에서의 Machine Learning 적용 사례분석	김임환(삼성전자)
국내	2025.06	Coping with service cancellation: Strategic role of capacity allocation	김보성(경희대)
국내	2025.06	AI 발전에 따른 산업별 영향과 기업의 대응 전략	박정규(KAIST)
국내	2025.09	The Assign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nnovation	박예연(서강대)
국내	2025.09	Mobile Location-based Recommendation Systems and Local Businesses: Evidence from the Restaurant Industry	한진수(KAIST)
국내	2025.09	현장에서 활용되는 데이터 기반 개인화 마케팅	엄주희(Rapp Korea)
국내	2025.10	Sponsored Content and News Consumption Tradeoffs	채인영(성균관대)
국내	2025.10	Understanding the Aversion to Gifting Secondhand Products	성영진(서강대)
국내	2025.10	Performance after Reward and Penalty: An Empirical Study about with mHealth App under Gain-Loss Incentive Structure	박재홍(경희대)
국내	2025.10	Learning About Other Depositors through Earnings Calls	박선진(홍익대)
국내	2025.10	Real Estate Valuation Models Using Machine Learning and Explainable AI	김우성(건국대)
국내	2025.10	Information Acquisition and Disclosure by Firms and Analysts	배수일(성균관대)
국내	2025.11	Environmental regulatory risks, firm pollution, and mutual funds' portfolio choices	최승호(한양대)
국내	2025.11	Inter-Firm Networks and the Issuance of Management Earnings Forecasts	송민섭(서강대)
국내	2025.11	Unveiling Post-Acquisition Value Creation through Cloud and IT Workforce Integration	조우재(서울대)
국내	2025.11	Knowledge Production in the Age of AI: The Impact of AI on Scientific Research and Online Communities	박현우(서울대)
국내	2025.11	산업 시스템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툴의 차이와 활용 전략	이현호(애틀릭스)
국내	2025.11	The Effects of Information Technologies on the Bankruptcy Decision	양제열(경희대)
국내	2025.11	Political Identity and Consumer Behavior	한규홍(고려대)
국내	2025.11	플랫폼 기업에서의 경영학 이론 적용	이철성(배달의 민족)
국내	2025.12	Does production location impact medication quality? An empirical study on the generic drug quality variations	노인준(고려대)

2025학년도 세미나 개최 (국외)

구분	일자	주제	강사
국외	2025.03	Forecast Dispersion and Information Selection	Jingoo Kwon(University of Chicago)
국외	2025.03	How Does Auditor Workload Affect Employee Spending and Turnover? Evidence from Micro-Level Transaction Data	김종배(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국외	2025.03	Japanese Long-Lived Companies and Their Regional Impact	Tomohiro SEKI(Doshisha University)
국외	2025.03	Information, Emotion, or Nothing: Commentator Speech and Real-time Engagement in E-sports	심재웅(University of Connecticut)
국외	2025.03	Transaction Costs and Slow-Moving Capital in Risk-On and Risk-Off Arbitrage Regimes	Choi Won-Chang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국외	2025.03	Corporate Political Connections and Value Appropriation in Buyer-Supplier Relationships: Evidence from U.S. Firms	Xi (Angie) Wang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국외	2025.04	Newcomers and team innovation: a social network approach	신상재(Portland State University)
국외	2025.04	Contract Evaluation Horizon and Fund Performance	이중훈(Office of Financial Research)
국외	2025.04	The Price to be Green: Measuring Nonpecuniary Incentives through the Securities Lending Market	최기순(Boston College)
국외	2025.04	Nudging Customers to Select High Stock Delivery Windows Via Information Sharing	김도윤(Boston College)
국외	2025.05	On the potential outcomes of standardizing non-GAAP financial measures: Evidence from the REIT industry	박경진(싱가포르 경영대학)
국외	2025.05	Mass Shootings and Risk Perception: Evidence from the Municipal Bond Market	정진욱(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국외	2025.05	Accounting research in the age of advanced AI	Matti Keloharju(Aalto University)
국외	2025.05	Data-driven Technologies and Local Information Advantages in Small Business Lending	강정구(Harvard Business School)
국외	2025.05	Leveraging Machine Learning to Advance International Business Research: Techniques, Ap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	Chinmay Pattnaik (The University of Sydney Business School)
국외	2025.05	All's Well That Ends Well: Creating Positive Endings Can Elevate Work Satisfaction and Motivation	신지혜(Yale University)
국외	2025.05	The role of the human in the loop: The case of franchisee agency costs in product assortment planning with predictive analytics	최재은(University of Michigan)
국외	2025.06	Optimal Communication in Banking Supervision	Jeongho (John) Kim(Florida State University)
국외	2025.06	Inside the Blackbox of Firm Environmental Efforts: Evidence from Emissions Reduction Initiatives	윤석현(Northwestern University)
국외	2025.06	Outsider-Driven Innovation	Gino Cattani(NYU)
국외	2025.09	Joint Assortment and Inventory Decisions Considering Stockout-based Substitution	김상조(Shanghai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국외	2025.09	Institutional Ownership Concentration and Informational Efficiency	Yan Xiong(University of Hong Kong)
국외	2025.09	Do Mutual Funds Respond to Mechanical Changes in ESG Ratings?	최승주(University of Hong Kong)
국외	2025.09	Increasing App Engagement Behaviors via Goal-Enabling Technology Features: The Role of Goal Difficulty Dimensions	Jake An(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국외	2025.09	Credit Supply Externality of Intertemporal Income Shifting	장한솔(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국외	2025.09	When it's the slaves that pay: In search of a fair due diligence cost distribution in conflict mineral supply chains	Constantin Blome (Stockholm School of Economics)
국외	2025.10	Unpacking AI Transformation: The Impact of AI Strategies on Firm Performance from the Dynamic Capabilities Perspective	박재철(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국외	2025.10	Human-AI Interaction and Traffic Safety in Semi-Autonomous Driving: Evidence from Tesla's Autopilot	방민석(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국외	2025.10	Story, Marketing, and Design Powerplay	박진배(FIT)
국외	2025.10	The pricing and Economic Impact of Legal Risk	Dean Ryu(Oxford University)
국외	2025.10	Supply Chain Design, Digital Twins, & Supply Chain Stress Testing	Chelsea White(Georgia Tech)
국외	2025.10	Insider Trading After the 2022 Rule 10b5-1 Amendment	김세일 (Baruch Colleg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국외	2025.11	Sustainable Marketing and Multi-Method Research	김상화(McMaster University)
국외	2025.11	Designing and Implementing an Effective Research Program in Marketing Strategy	이주연(Iowa State University)
국외	2025.11	Do Machines Make Firms Meaner? Automation and the Erosion of Firm-Employee Relations	금동일(Columbia University)
국외	2025.11	Homeowners Insurance and Housing Prices	김경희(Florida State University)
국외	2025.11	Technologies in consumer behavior	김사라(Hong Kong University)
국외	2025.11	Rescuing Performance Under Pressure: Intra-Quarter Evidence on the Role of AI-Powered Digital Monitoring	윤준상(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Shenzhen)
국외	2025.12	Public Health Policy and the Dynamics of Consumer Decision Making	김종엽(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국외	2025.12	Bargain Purchase Gains in M&A: Economic Consequences of ASC 805 Adoption	박유일(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국외	2025.12	Noblesse Oblige? Firm Status, Social Crisis, and Prosocial Claims	Michael Jensen(University of Michigan)
국외	2026.01	When Thumbnails Match Titles: The Role of Information Congruence in Multimodal Video Representations	심재웅(University of Connecticut)
국외	2026.01	Paper 1: Regional effect of K-pop global celebrities Paper 2: The meaning-in-life effect of art infusion	Yuri Seo(University of Auckland, New Zealand)





경양관
School of business

TO
A
P
F
A

IMPACT & NETWORK

66

경영학과 졸업생 진로

68

YSB PEOPLE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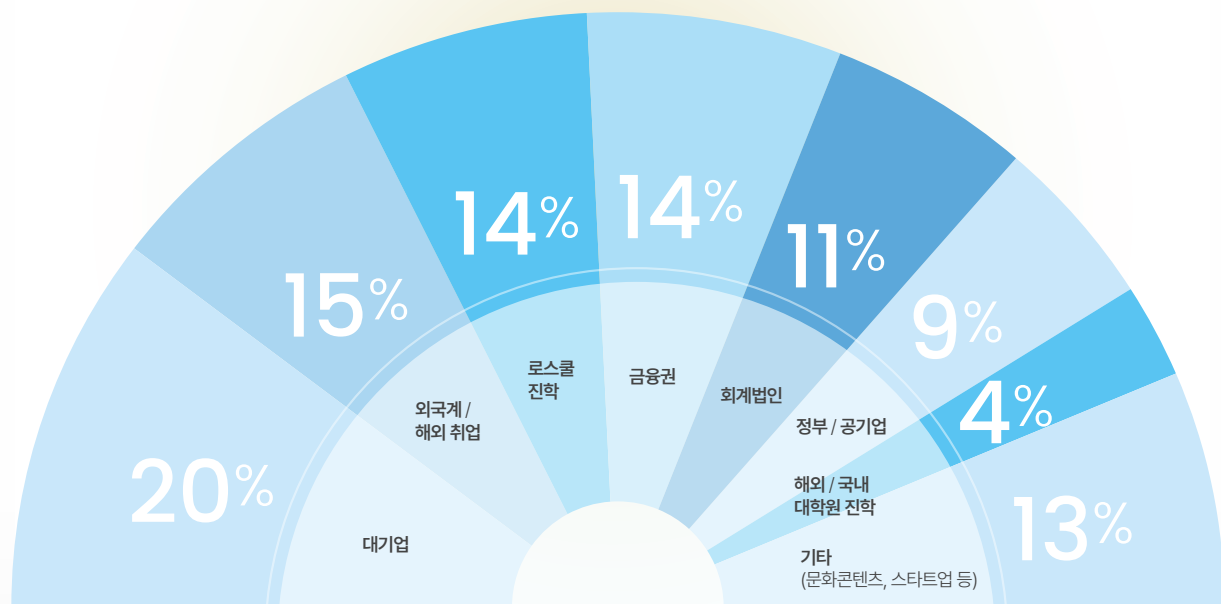
YSB NETWORK

경영학과 졸업생 진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생들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폭넓은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2월 및 8월 졸업생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기업, 로스쿨, 회계법인, 국내외 대학원, 외국계 기업 및 해외 취업, 금융권, 정부-공기업, 문화콘텐츠와 스타트업 등 여러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주요 기업으로는 삼성, 현대자동차, LG전자, 한화, CJ, 네이버, HD현대, KT, 현대모비스, 대한항공 등이 있으며, 졸업생들은 산업 전반에서 연세경영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부 졸업생은 국내외 주요 대학원으로 진학해 학문적 역량을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점차 진출 분야 또한 더욱 다변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연세경영이 강점을 갖는 이유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기초와 응용 역량을 함께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학은 지식의 습득에 그치지 않고, 문제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 사람과 조직을 이해하고 협업하는 역량을 함께 키우는 학문이다. 특히 마케팅, 재무, 회계, 전략,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개인의 진로뿐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중요한 의사결정과 자원 관리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는 단순히 비즈니스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윤리적 리더십과 창의적 사고를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넓히고자 하는 학생들, 그리고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연세경영은 의미 있는 성장의 토대이자 넓은 진로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대기업

20%

SAMSUNG HYUNDAI LG전자 Hanwha CJ SAMSUNG 삼성물산 Cheil
NAVER HD현대 kt HYUNDAI MOBIS 대한항공 Hanwha Aerospace LX인터네셔널

외국계 / 해외 취업

15%

Apple BAIN & COMPANY PwC UBS kubell YASKAWA 1688 1688

로스쿨 진학

14%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CAU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KU 건국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북대학교

금융권

14%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citibank ING 삼성카드
삼성증권 신영증권 한국투자 증권 DB자산운용 KAMNET Asset Management

회계법인

11%

pwc 삼일회계법인 삼정 KPMG Deloitte EY한영

정부 / 공기업

9%

대한민국정부 산업통상부 인사혁신처 한국지역난방공사 KOREA DISTRICT HEATING CORP.

해외 / 국내 대학원 진학

4%

Cornell University UCL TUM NUS 香港中文大學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기타 (문화콘텐츠, 스타트업 등)

13%

MBC kakaoenterprise (주)태평양강정평가법인 APR +SO IQ LEVIT



이윤지 경영 21
(주)소브먼트 대표이사

하나의 특정한 순간이라기보다는,
여러 경험을 통해
방향이 선명해진 과정이었습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새로운 기준으로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승민 경영 03
신세계 인터내셔널 코스메틱 2부문 대표이사
어뮤즈 코리아 대표이사

연결의 힘이 만드는 혁신,
전통 위에서 미래를 짓습니다

오치훈 경영 94
대한제강(주) 회장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학 동창회 제29대 동창회장



한정필 경영 90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US) Provost's Chair 석좌교수



우연이 만든 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열어준 세상

김 찬 호 EMBA 12기
CJ제일제당 전략지원부문 대표



인생의 후반전을 함께 걸어갈 소중한 동반자
삶의 지표가 되는 세계적 수준의 은사
전에 없이 경영을 바라보는 광활한 시야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경영자로서의 시야를 한층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



김 원 철 EMBA 15기
화성지엔아이(주) 대표
EMBA 15기 원우회장



인적 네트워크의 진정성 있는 확장,
새로운 시야와 값진 인사이트

이 석 우 EMBA 16기
(주)정림개발 메이필드호텔 상무

하나의 특정한 순간이라기보다는, 여러 경험을 통해 방향이 선명해진 과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AIoT 기반 폐기물 및 안전 관리 스타트업 소브먼트(Sovement)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경영학과 21학번 이윤지입니다.

소브먼트는 AI와 IoT 기술을 활용해 국내외 담배꽂초 폐기물 관리를 넘어 전기차 충전소 안전 관리 분야로 확장하고 있는 HaaS 기업입니다.
현재 마지막 학기를 보내며,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지 경영 21
(주)소브먼트 대표이사

Q. 학부 재학 중에 창업을 결심한 배경과 동기는 무엇인가요?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하나의 특정한 순간이라기보다는, 여러 경험을 거치며 점점 방향이 선명해진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10대 시절, 개인 브랜드를 운영하며 제품을 해외 12개국에 수출하고 사업을 매각해 본 경험이 있었고, 이후 3개의 창업팀에서 서비스 출시를 경험했습니다. 서로 다른 팀에서 기획과 실행을 반복하다 보니, 사업의 성과가 아이디어 자체보다도 누가 어떤 방향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느냐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직접 방향을 정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20살 2학기 때 소브먼트의 전신이 되는 창업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언가를 구현하는 과정 자체에 흥미를 느끼는 편이고, 고객이 제 제품을 통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러한 성향과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20살 때 시작한 창업을 5년 넘게 지속하며 사업을 발전시켜오고 있습니다.

Q. Y-Ventures의 활동과 성취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Y-Ventures는 연세대 학생 주도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단체로, 연세 창업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문화 및 생태계를 확산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동 설립 멤버로 참여해 3년 넘게 운영에 관여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경영대학 YVIP 프로그램과 연계해 6주간의 모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인 Y-Startup Program을 운영하며, 짧은 기간 안에 실제 제품을 만들고 시장에 적용해 가설을 검증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총동문회 연세스타트업창업분과위원회와 함께 VC & 스타트업 네트워킹 파티를 공동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현재까지 약 20개 이상의 학생 창업팀을 지원해 왔으며, 400명 이상의 참여자와 8개 이상의 초기 투자사가 참여하는 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Q. 향후 진로 계획과 포부를 말씀해주세요.

창업을 하며 제품의 가치는 아이디어나 기술 자체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확장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는지에 달려 있다는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10대 시절부터 '10억 명이 사용하는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역시 국내 10여 개 이상의 고객사에서 운영되며 실제 사용자 기반을 만들어왔고, 글로벌 전시 참여와 독일 시장 진출을 통해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의 일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Q. 창업을 하며,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도움받은 점과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경영대학에서의 경험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수업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창업 과정에 적용해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학기 수강한 '경영정보시스템' 과목에서 다뤘던 사례들을 사업 운영 과정에서 참고하기도 했고, '경영학자양성세미나' 수업에서는 AI 기반 개발 도구를 주제로 한 논문을 작성해 보며 평소 관심 있던 주제를 더욱 구조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선후배들과의 네트워크 역시 큰 자산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많은 자극을 받았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후배들에게는 너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를 기다리기보다는, 작은 형태라도 직접 시도해 보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해 혼자서도 제품을 만들고 시장에 빠르게 도전해 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지금, 한 번쯤 직접 부딪혀보는 경험이 이후의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새로운 기준으로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코스메틱 2부문 대표이사이자
어뮤즈 코리아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경영03 이승민입니다.



이승민 경영 03

신세계 인터내셔널 코스메틱 2부문 대표이사
어뮤즈 코리아 대표이사

Q. 연세경영에서의 시간은 대표님께 어떤 출발점이 되었나요?

연세대학교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의 방향을 만든 출발점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학생은 아니었지만, '나만의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경영대학에서 다양한 이론을 배우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결국 모든 비즈니스는 '사람의 선택' 위에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관점은 지금까지도 제가 브랜드를 만들고 조직을 이끄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성취보다 질문이 더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왜 어떤 브랜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무엇이 시장에서 살아남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쌓이며 자연스럽게 저만의 시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의 질문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Q. 졸업 후 브랜드와 조직을 이끌며 어떤 방향에 집중해 오셨나요?

이후 글로벌 뷰티 기업과 스타트업을 통해 브랜드를 직접 만들고 성장시키는 과정을 경험했고, 지금은 스타트업과 대기업을 넘나들며 여러 브랜드와 조직을 함께 이끌고 있습니다. 단순한 운영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K-뷰티의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Q. 대표님이 브랜드와 조직을 이끌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정답은 빠르게 변하지만, 기준은 방향을 만듭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느냐가 결국 브랜드와 조직의 깊이를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의 목표 역시 단순한 성장에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넘어서는 구조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는 브랜드 하나의 성공을 넘어, 글로벌에서도 통하는 K-뷰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Q. 후배 동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후배 동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보다, 스스로의 기준으로 계속 선택해 나가는 힘입니다. 불확실함 속에서 방향을 만들어가는 경험이 결국 자신만의 길이 됩니다.

연세대학교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저에게 '생각하는 방식'을 남겨준 시간입니다. 그 기반 위에서 지금의 제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연결의 힘이 만드는 혁신, 전통 위에서 미래를 짓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제강 회장을 맡고 있는 경영학과 94학번 오치훈입니다.
2025년 4월부터는 상경·경영대학의 제29대 동창회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오치훈 경영 94

대한제강(주) 회장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학 동창회 제29대 동창회장

Q. 연세경영에서의 대학 생활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나요?

제가 연세경영에 입학한 1994년은 선배님들이 학생운동의 마지막 자락을 지나오신 직후였고, 정작 저희가 졸업할 무렵에는 IMF 외환위기와 시기가 겹쳤습니다. 그 사이에 긴 4년은, 돌이켜보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으며 즐거운 캠퍼스 라이프를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배운 지식 못지않게, 선후배·동기들과 부대끼며 자연스럽게 익혔던 '사회화의 경험'이 지금까지 저를 지탱해 준 가장 큰 자산이라고 느낍니다. 사회에 나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선배들이 건네주신 한마디와 함께 겪어주신 시간들이 크나큰 힘이 되었고, 졸업 후에도 동문 활동을 이어오면서 서경배 회장님(아모레퍼시픽), 김창수 회장님(F&F) 같은 훌륭한 경영자분들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었던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Q. 대한제강에 합류한 뒤 철강업의 매력을 어떻게 발견하셨나요?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곧바로 가업으로 들어가지 않고, 몇 년간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일한 뒤 대한제강에 합류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 제가 처음부터 직업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었다면 철강업을 선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 전혀 다른 산업에 적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산업이 가진 매력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철강은 한 사람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훨씬 넘어, 거대한 설비와 자본을 '레버리지'해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업입니다. 또한 고철을 전기로에 녹여 다시 자원으로 되살리는 '순환'의 산업이기도 합니다. 자아실현의 야심이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환경과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철강업은 오히려 굉장히 매력적인 일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회사 안에서 천천히 배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2022년부터 ESG 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팜 'GREF', 작업자의 안전과 자긍심을 지키는 워크웨어 'ARKERD', AI 기반 스크랩 판정 시스템 'Aimos' 등 철강의 경계를 넓히는 새로운 사업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4년 창립 70주년을 맞아 100년 기업을 향한 'Impact Business' 비전과 'Responsibility·Sustainability' 미션을 새로 세운 만큼, 앞으로의 10년이 그 약속을 실현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ESG 경영과 'Impact Business' 비전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 모든 결정의 바탕에는, 제가 학부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익혀온 '사람과 관계에 대한 감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기업을 '구성원과 투자자, 고객이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합니다. 지향점이 다른 사람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결국 '실적과 신뢰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훌륭한 리더 역시, 외부 변수와 내부 합의가 모두 복잡해진 오늘날에는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터'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생각은 제가 연세경영에서 사람들 사이에 부대끼며 배운 것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Q. 좋은 기업과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후배 동문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실 시대는, 저희 세대가 졸업했던 시기보다도 훨씬 더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저는 '연세경영'이라는 이름이 가진 힘이 더 커진다고 믿습니다. 모교가 140년간 지켜온 '진리와 자유, 창의성과 윤리성'이라는 자부심이 우리 모두의 삶에 든든한 뿌리가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도 '연세경영인'이라는 자부심에서 삶의 원동력을 얻으시기를, 그리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동문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연이 만든 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열어준 세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교수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연세대 경영대에 다니던 시절, 제 꿈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연세대 확밴드 소나기에서 기타를 치며 음악에 빠져 있었고, 수업보다는 밴드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좋았습니다. 학점보다 코드 진행이 더 중요했던 시절이었죠.

그렇게 방황하던 제게 군 복무가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한국 청년들이 그렇듯, 군 생활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제대 후에는 뭔가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컨설팅이나 금융 쪽으로 진출해 소위 '경영대 졸업생답게' 성공하겠다는 꽤 평범한 야망을 품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복학 첫 학기, 수강신청 전에 수강편람을 꼼꼼히 살펴보며 '이 과목, 저 과목'을 골라두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강신청 당일, 제가 선택한 과목들은 이미 전부 마감되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전공학점은 이수해야 하니, 경영학과 과목코드를, 어떤 수업인지도 모른 채, 무작위로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강 확정된 과목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경영정보시스템 개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분석과 설계 — 무려 네 개의 정보시스템(IS) 과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정보시스템이 뭔지도, 그것이 경영학 커리큘럼의 일부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충격은 첫 번째 프로그래밍 수업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서길수 교수님께서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라고 하셨을 때, 저만 빼고 모든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나만 모르는 세계에 잘못 들어온 것 같다'는 극심한 이질감, 지금 표현을 빌리자면 임포스터 신드롬(imposter syndrome)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일단 버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를 보내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IS 수업들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간고사 때는 24시간 테이크홈 프로그

래밍 과제가 주어졌고, 저는 밤을 꼬박 새워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서길수 교수님이 "전체 수강생 중 과제를 완성한 학생이 단 한 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ですよ. 이 단순하지만 강렬한 깨달음은 이후 제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다음 학기, 카네기멜론대학교에서 갓 박사학위를 받고 부임한 김진우 교수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Herbert Simon의 제자라는 이력도 인상적이었지만, 문제는 교수님이 제가 이미 이수한 시스템 분석과 설계 과목을 가르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이 이전 세대의 구조적 분석 방법론이 아니라 당시 최신 패러다임이던 객체지향 방법론을 다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청강을 요청했습니다. 교수님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청강은 허락하겠다. 단, 학점과 무관하게 모든 과제와 시험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솔직히 속으로 '이게 무슨 황당한 조건이야?'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쾌함이 오히려 오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좋아, 해보자.' 결국 저는 학점도 없이 그 수업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그 경험에서 배운 것은 '근성(tenacity)'의 힘이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해내겠다는 승부욕,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힘들든 끝까지 밀어붙이는 집념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몇 학기가 지나고 졸업을 앞두고 되었을 때, 저는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습니다. 학문에 대한 소명이 있어서는 아니었고 솔직히 말하면, 그냥 취업을 미루고 싶었던 것이죠. 김진우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며 공부/연구도 조금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밤새 정보화랩의 고속 LAN 환경에서 스타크래프트, 버추어 파이터, 그리고 지뢰찾기를 즐기며 보낸 시간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박사과정 진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취업을 최대한 미루고 싶다는 마

음 때문에 박사과정까지 갔죠. 그런데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또 미국 Purdue 대학교에서 tenure-track 조교수로 있으면서, 예전에 배운 두 가지 교훈 — '하면 된다'와 '높은 곳을 향해라' — 이 연구자로서 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최고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수없이 거절당하고, 수없이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 끈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가 제게 준 또 다른 선물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인연입니다. 박사과정 시절부터 교수가 된 이후까지, 학회에서 만나는 연세 선후배들의 따뜻함과 든든함은 제 연구 생활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길수, 신동엽, 오홍석, 이무원, 배성주, 김지현, 노현탁 교수님 등 지금 연세경영에 재직 중이거나 정년을 마

치신 많은 분들과의 인연은 단순한 학연을 넘어, 제가 더 좋은 연구자가 되고 싶다는 동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일년에 한 번씩 그분들을 학회에서 만나기 위해 논문을 꾸준히 썼고, 학회에 발표하러 가면, 그곳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연세 가족이 있다는 것 — 그것이 얼마나 큰 원동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후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시는 길이 확실치 않은 것 같더라도 큰 걱정 마세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다만 눈앞의 것에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높은 곳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우연이 만들어준 길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 자신만의 길이 됩니다.



한 정 필 경영 90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US) Provost's Chair 석좌교수

인생의 후반전을 함께 걸어갈 소중한 동반자
삶의 지표가 되는 세계적 수준의 은사
전에 없이 경영을 바라보는 광활한 시야



김 찬 호 EMBA 12기
CJ제일제당 전략지원부문 대표

Q. EMBA 과정은 어떤 경험으로 남아 있나요?

2021년,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EMBA 과정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엄중한 방역 상황으로 인해 마스크 너머로 숨을 고르며 수업을 듣고, 때로는 화면 너머로 학업을 이어가야 했던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3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한 채 혼신의 힘을 다해 열강해주시던 교수님들과, 그에 화답하며 치열하게 토론했던 동기들의 모습은 제 MBA 과정 중 가장 가슴 뜨거운 혁신의 순간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Q. K-푸드의 글로벌 성장을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가요?

현재 저는 대한민국 식품 산업을 선도하는 CJ제일제당에서 전략지원부문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해외 주재원 시절, 아시안 마켓의 한구석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던 한국 식품이 이제는 글로벌 대형 유통 채널의 메인 매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 K-푸드를 즐기고 SNS를 통해 그 경험을 공유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도할 때면, K-컬처와 K-푸드의 격상된 위상에 크나큰 감격과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Q.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기업이 좋은 성과를 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트렌드를 꿰뚫고, 압도적인 R&D와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습니다. 촘촘해진 시장의 방어벽과 겹겹이 쌓인 글로벌 규제 장벽 앞에서는, 단순히 제품의 매력도와 품질만으로 생존과 글로벌 확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경쟁 상황에서는 다면적인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나 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역량이 절대적입니다.

Q. 연세 EMBA가 현재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나요?

제일제당의 폭넓은 사업군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 및 다양한 유관기관과 정책을 협의하고 전략을 실행하는 저의 현재 업무에 있어, 연세 EMBA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들은 강력한 지적 자산이자 든든한 우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학문적 깊이는 물론, 정부와 산업계의 중추에서 실무적 해안을 다져오신 교수님들께서는 졸업 후인 지금도 제도의 맹점을 극복하고 상생의 성장을 이끄는 통찰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십니다. 또한, 치열한 과정을 함께 이겨낸 동기와 선배들은 시장의 폭넓은 이해관계자들과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있어 더할 나위 없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연세 EMBA의 가치를 묻는 이들에게 늘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인생의 후반전을 함께 걸어갈 소중한 동반자를 얻는다는 것. 둘째, 비즈니스를 넘어 삶의 지표가 되어주실 세계적 수준의 은사님들을 모시게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을 바라보는 시야가 전에 없이 광활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글에 그 깊이를 모두 담아낼 수는 없으나, 기회가 닿는다면 더 많은 분들이 연세 EMBA를 통해 비즈니스 리더로서 인생의 위대한 도약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경영자로서의 시야를 한층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

Q. 연세 EMBA에 지원하게 된 동기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험과 직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경영 지식과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무, 마케팅, 조직관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기업을 보다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자 연세 EMBA 과정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동하는 원우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시각과 인사이트를 얻고, 이를 실제 경영 현장에 적용해 회사의 성장 전략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대도 컸습니다.

Q. 인상 깊었던 수업

특정 한 과목을 꼽기 어려울 만큼 모든 수업이 실제 경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경영 환경의 핵심 화두인 AI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각 교수님들께서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풍부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해 주셔서 모든 강의가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재무 및 회계 관련 과목을 통해서도 기업의 숫자를 단순한 결과자 아닌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 언어로 이해하게 되었고, 경영자로서 보다 정교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리더십, 글로벌 기업의 마케팅 사례, 조직 운영과 관련된 수

업들은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현황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 중심의 사고와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실제로 회사의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원우들과의 토론을 통해 접한 현실적인 사례와 다양한 시각은 큰 자산이 되었으며, 이는 교과서 이상의 값진 배움으로 이어졌습니다.

Q. 연세 MBA를 하며 느낀 점이나 생각

연세 EMBA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경영자로서의 시야를 한층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산업과 경험을 가진 원우들과의 교류를 통해 스스로의 한계를 돌아보게 되었고, 보다 넓은 관점에서 회사와 산업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회사의 체질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전략적 의사결정 역량을 고도화하여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과 구성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연세에서 확장된 시야와 배움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을 넘어 산업과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원철 EMBA 15기

화성지엔아이(주) 대표이사
EMBA 15기 원우회장



인적 네트워크의 진정성 있는 확장, 새로운 시야와 값진 인사이트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EMBA 16기 재학 중이며,
현재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기업 승계와 경영 고도화 과정을 밟고 있는 이석우입니다.



이석우 EMBA 16기
(주)정림개발 메이필드호텔 상무

Q. 연세 EMBA에 지원하게 된 동기

2019년 말까지 대한항공에서 근무한 뒤 2020년 1월부터 현 직장
에 합류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임 직후 창궐한 코로나19로 인해 2년
간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했고, 엔데믹을 맞이한 2022년부터 3년
간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매진해 왔습니
다.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 제가 단기적인 실무(Operation)에만 지
나치게 매몰되어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면한 과제
를 해결하고 매출을 견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영자로서 거시적
인 안목으로 회사의 미래 방향성을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해 실행하
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던 차에 부친의 권유로 연세대학교 EMBA 과정
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커리큘럼을 통해 경영 지식을 함양
하고, 다방면의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교류하며 폭넓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가족 중 연세대학교 동
문이 많고, 저 역시 유년 시절 연세대 내 유치원을 다녔던 만큼 학
교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어 타 대학보다 우선하여 주저 없이 지
원하게 되었습니다.

Q. 인상 깊었던 수업

연세대 EMBA의 짜임새 있는 커리큘럼 덕분에 매 학기 경영의 본질
을 꿰뚫는 훌륭한 수업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경영과학 (1학년 1학기) 피터 드러커의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는 명제에 깊이 공감하
며 시작한 수업입니다. 초기에는 관광·서비스업에 과학적 경영 기
법을 접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 지레짐작했습니다. 하지만
프론트 데스크의 적정 운영 규모 산출, 연장 수당이 상습적으로 발
생하는 식음업장의 인력(T/O) 운용,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메뉴
엔지니어링 등 현업의 수많은 의사결정이 데이터가 아닌 관행과 경
험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선형계획법을 기
반으로 최적화된 수치적 근거를 도출해 내는 과정을 배우며 의사결
정의 과학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공급망 관리(SCM) (1학년 2학기) 보잉과 도요타 등 거대 제조업체
들의 의사결정이 낳은 결과를 사례별로 짚어보는 과정이 매우 흥
미로웠습니다. 무조건적인 비용 절감과 효율성 추구가 늘 긍정적인
결과로만 귀결되지 않는다는 통찰을 얻었습니다. 특히 자라, 쉬인

등 패션업계의 혁신적인 공급망 관리가 어떻게 강력한 브랜드 차별
화 포인트로 작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 이노베이션 (2학년 1학기) 학부 시절 재무·회계 위주의 수
학으로 전략적 사고를 배양할 기회가 적었던 저에게, 현재 가장 큰
영감을 주고 있는 수업입니다. 주로 B2C 리테일과 식음료 서비스
사례를 다루어 호텔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접목하기 좋았습니다.
전통적인 숙식 제공을 넘어, 메이필드 호텔만의 고유한 철학과 가
치를 고객 경험에 어떻게 입체적으로 녹여낼 것인가를 깊이 고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향후 예정된 리브랜딩 과정에서, 아주 사소
한 인테리어나 고객 접점 하나에도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
지를 담아내는 서비스케이프(Servicescape) 설계의 중요성을 배
우고 있습니다.

Q. 연세 MBA를 하며 느낀 점이나 생각

입학 면접 당시 "EMBA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는 질문에 주
저 없이 "지식과 통찰력"이라고 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1년 넘게 학
업을 이어오고 있는 지금, 지식을 습득하고 지적 희열을 느끼는 과
정은 여전히 제게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단순히 학점 취득과 졸업에 급급해 시험 대비 위주로 공부했던 학
부 시절과 달리,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뚜렷한 목표 의식
을 지닌 채 임하는 지금의 배움은 그 깊이와 무게가 다릅니다. 수업
에서 얻은 통찰을 곧장 현업의 과제들과 대조해 보고, 실제 경영에
적용해 보는 과정이 무척 뜻깊습니다. 일례로 내년에 진행할 객실
리노베이션 기획 단계부터 '서비스 이노베이션' 수업에서 배운 가
치 제안(Value Proposition) 기법을 활용해 디자인 업체와 협업하
며 디테일을 잡아나가고 있으며, 막연하게 느껴졌던 생성형 AI 기
술도 실무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보고 있습니다. 입학 전 기대했던
개인적 성취감은 물론, 실제 회사 운영에도 큰 동력을 얻고 있어 가
슴이 뿌듯합니다.

더불어, 가장 감사한 부분은 바로 '인적 네트워크의 진정성 있는 확
장'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항공 및 관광 업계라는 한정된 바운더리
안에서만 교류해 오던 제게, EMBA는 완전히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
었습니다.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약하시는 훌륭한 원우님들, 선배
님들과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 깊이 있는 철학과 고민을 나누며 어
디서도 얻을 수 없는 값진 인사이트를 얻고 있습니다.

연세경영 A/S특강

경영대학에서는 연세경영 동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A/S 특강 (After School 특강)을 연간 3회 이상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세경영 동문과 재학생들에게 최신 경영 트렌드와 관련된 특강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와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특강에는 연세경영의 저명한 동문 선배 또는 화제의 기업가 등을 초청해 경영과 관련된 강연을 제공한다.



제56차 YSB A/S특강 | 신동엽 명예특임교수

비전세우기: 세상을 바꾸는 비전의 역할과 조건

6월 11일(수) 오후 7시, 경영관 용재홀에서 제56차 YSB A/S 특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신동엽 교수가 '비전 세우기: 세상을 바꾸는 비전의 역할과 조건'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으며, 약 200여 명의 동문과 학생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강연에서 신동엽 교수는 "혼란한 시대일수록 조직의 비전은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등대이자 나침반"이라며, 비전이 어떻게 개인과 조직,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도구가 되는지를 다양한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특히 신동엽 교수는 "비전은 가슴을 뛰게 합니다. 뜨겁고 강렬하며,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을 꿰뚫는 힘입니다. 단순하지만 명확하고, 미련해 보일 만큼 도전적입니다.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만큼 인생을 전환시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 만한 꿈이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심장을 뛰게 할 이유입니다."라고 열강하였다.

이번 특강은 특히 2025년 8월 정년퇴임을 앞둔 신동엽 교수의 마지막 공식 강의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30여 년간 연세대학교에서 조직이론과 리더십 분야를 연구하고 교육해온 신동엽 교수는 이날 강의를 통해 오랜 교육 여정의 마무리를 동문 및 제자들과 함께하는 열정의 장으로 만들었다.강의가 끝난 후에는 많은 참석자들이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로 신 교수의 마지막 강의를 축하했다. 강의장은 감동보다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으며, 일부 동문들은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긴 강의였고, 마지막까지 큰 울림을 주셨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55차 YSB A/S특강 | 박창희 교수

마케팅 전략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4월 30일(수), 연세경영 동문을 대상으로 제55회 A/S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마케팅 전략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마케팅 전략과 전술이 수립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데이터 애널리틱스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은 박창희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박 교수는 Cornell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마케팅 분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마케팅 관리와 전략, 유통,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활용한 의사결정 등이며, Marketing Sc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등 경영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특강에는 150여 명의 연세경영 동문이 참석하여, 마케팅 전략 수립과 데이터 기반 분석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수강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 제57차 YSB A/S특강 | 김걸 특임교수

K-Management: 자동차그룹의 성장과 비전

9월 30일(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경영관 지하 1층 용재홀에서 제57회 연세경영 A/S 특강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특강에는 김걸 특임교수(전 현대자동차그룹 기획조정 실장, 전 Boston Dynamics/Motional 이사회 의장)가 연사로 나서 “K-Management: 자동차그룹의 성장과 비전”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현대자동차그룹에서 기획과 전략을 총괄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형 경영(K-Management)의 특징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전략을 심도 있게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전동화·자율주행·AI 기반 혁신과 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비전을 설정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특강에는 약 18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 프로세스 개선, 미국 제조업 쇠퇴와 부흥 필요성, 리더십과 현지화의 중요성, 품질 장인정신, 미국 인슈어링 정책, 자율주행차 전망, 최고경영자 리더십 조건, 현지화의 필요성에 관한 질의 던지며 참가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 제58차 YSB A/S특강 | 신현한 교수

경영의 언어: 재무를 읽다

11월 25일(화) 경영관 용재홀에서 제58회 YSB A/S (After School) 특강을 개최하고, 재무 분야에서 오랜 연구와 경험을 쌓아온 신현한 경영대학 교수를 초청해 ‘경영의 언어: 재무를 읽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신현한 교수는 강연에서 “재무는 숫자의 언어가 아니라 경영의 언어”라고 강조하며, 자본비용, 위험, 할인율, 성장률이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기업가치평가 공식과 듀퐁 분석($ROE = ROS \times TAT \times EM$)을 활용해 글로벌 주요 기업의 재무 구조를 비교하며,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지는 비즈니스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지배구조, 투명성, 리스크 관리가 자본비용을 낮추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인임을 짚으며 재무관리의 본질적 의미를 전달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유통업 구조조정, 사모펀드의 역할, 기업 지배구조, 조직문화 등 다양한 경영 현안이 논의됐다. MBK-홈플러스 사례를 바탕으로 재무성과와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신현한 교수는 사모펀드가 제도적 혜택을 받는 만큼 수익성만을 추구하기보다 부실 기업 회생이라는 본래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그 자체보다 그 이전의 경영 행태가 사회적 평가를 좌우한다며, 회생 노력이 충분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제조업 쇠퇴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1980~90년대 사모펀드가 비수익 사업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기술 자산까지 해체해 러스트 벨트 형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조직문화와 관련한 논의에서는 구성원들이 이른바 ‘조용한 사직’ 상태에 빠지는 원인을 일의 의미 상실로 진단하며, 리더의 비전이 조직의 핵심 언어가 되고 구성원에게 의미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소액 주주 보호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과도한 사전 규제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금지 사항만 명확히 하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기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은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최신 경영 이슈를 공유하고 실무적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YSB A/S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상경·경영대학 졸업 25·50주년 재상봉 행사

5월 10일(토), '졸업 25·50주년 재상봉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창립 140주년을 맞이한 올해, 1996년 입학 동문들이 졸업 25주년, 1971년 입학 동문들이 졸업 50주년을 맞아 모교를 방문했다.

푸르름이 가득한 5월의 연세 캠퍼스에는 1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반가운 재회를 나눴다. 특히 올해는 연세대학교 설립 140주년, 연희전문 상학과 설립 110주년, 경영전문대학원 설립 6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로, 재상봉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학 리더십 소개를 시작으로, 상경대학장 및 경영대학장의 환영사, 각 학과대표의 감사 인사, 발전 현황 브리핑, 기부금 및 기념품 전달, 단체사진 촬영, 캠퍼스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재상봉을 기념해 동문들은 총 78,500,000원의 기부금을 상경대학과 경영대학에 전달했다. 25주년 동문은 상경대학에 8,300,000원, 경영대학에 26,100,000원을, 50주년 동문은 상경대학에 19,100,000원, 경영대학에 25,000,000원을 각각 기부했다.

행사는 단순한 재회의 자리를 넘어, 동문들이 모교의 발전을 체감하고 미래를 응원하는 따뜻한 연대의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25년, 50년 만의 재상봉이 모두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

상경·경영대학 동문 멘토링

경영대학은 연세 상경·경영 동창회 및 연경장학회와 함께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연세 상경·경영 동창회와는 매년 동문 멘토링을 진행해 연세경영 출신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 분야 멘토와의 소규모 멘토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커리어 설계를 돕고 있다.

연경장학회와는 교환학생 파견 시 등록금과 파견지원금을 지원하는 블루버터플라이 장학금, 우수한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교재비를 지원하는 연세동문 장학금 등을 통해, 학생들이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5월 14일(수), 재학생의 진로 설계와 커리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동문멘토링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2008년부터 이어져 온 상경·경영대학동창회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졸업 동문과 재학생 간 실질적인 소통과 조언의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5차 학기 이상 이수한 3~4학년 재·휴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상경·경영대학 건물 및 백양로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되었다. 총 3부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 Keynote 연설 △ 분야별 심층 멘토링 △ 저녁 만찬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 맞춤형 진로 상담이 이루어졌다.

1부(17:10~18:00)는 대우관 각당헌에서 진행되었으며, 오치훈 동창회장장과 상경대학장, 경영대학장의 환영 인사에 이어, 박기호 대표(LB인베스트먼트, 82경제)의 Keynote Speech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투자업계의 주요 트렌드와 창업 환경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며, 재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커리어 조언을 전했다.

2부(18:00~19:30)는 관심 분야별 조별 강의실에서 심층 멘토링으로 진행되었다. 창업, 마케팅, 법조계, 학계(경영·경제·응통), 금융(PE·IB·리서치·운용), 금융공기업, 회계/세무, 전략기획 등 총 11개 분야로 나뉘어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동문 멘토들이 참여하였으며, 학생들은 실무 중심의 조언과 질의응답을 통해 진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3부(19:30~21:00)는 백양로 그랜드볼룸에서 만찬과 네트워킹 세션으로 마무리되었다. 약 250여 명의 멘토 및 멘티가 참여한 만찬에서는 멘토링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며 다양한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상경대학장, 경영대학장을 비롯해 오치훈 동창회장, 신필순 운영위원장, 김현석(96경영) 관리분과위원장, 김지영(95경영) 부회장, 설윤석(99경영) 부회장 등 동창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재학생들을 격려하고 멘토링에 함께하였다.





연세 상경인의 밤

연세대학교 상경대학과 경영대학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5 연세상경인의 밤' 행사가 2025년 12월 12일(금)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연세 상경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동문 간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다양한 세대의 동문들이 함께하며 뜻깊은 시간을 나눴다.

행사는 오치훈 동창회장(94경영, 대한제강(주)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윤동섭 연세대학교 총장, 이경률 연세대학교 총동문회장, 박상언 상경대학장, 허대식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의 축사가 이어지며 연세 상경 공동체의 역사와 성과를 되짚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허대식 학장(제일 왼쪽 사진)은 축사를 통해 "2025년은 연세대학교 설립 140주년, 연희전문 상학과 설립 110주년, 경영전문대학원 설립 60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매우 뜻깊은 해"라며, "연세경영은 국내를 넘

어 아시아 최고 수준의 경영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교육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로 연세 상경의 위상을 높인 동문들을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연세상경인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수상자는 ▲산업경영 부문 박지원 동문(84경영, 두산에너지리미티 대표이사 회장), 한채양 동문(84경영, 이마트 대표이사), ▲사회봉사 부문 임광현 동문(88경제, 제27대 국세청장), ▲학술문화 부문 이무원 교수(87경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공로상 정갑영 동문(71경제, 유엔아동기금(UNICEF) 한국위원회 회장), ▲미래상경인상 이승민 동문(03경영, 신세계인터내셔널 코스메틱2부문 대표이사)이다.

또한 연세 상경의 학문적 전통을 계승하고 연구 발전에 기여한 교수진을 대상으로 초헌학술상 시상도 함

게 진행됐다. 올해 수상의 영예는 진익훈 교수(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와 이재영 교수(경영대학 경영학과)가 안았다.

1부 공식 행사를 마친 뒤에는 만찬과 함께 경품 추첨, 축하 공연이 이어져 모교에 대한 애정과 동문 간 유대를 나눴다.

한편, 이번 행사는 연세 상경 동문회의 주요 활동과 장학사업을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동문들의 기부로 조성된 장학 프로그램과 고시실 개관 등 모교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동문 참여 사례가 소개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연세상경인의 밤은 단순한 친목 행사를 넘어, 연세 상경의 역사와 미래를 잇는 상징적인 자리로서 동문 공동체의 결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연세 MBA

ALWAYS ON: AIR Year End Party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원우회는 12월 5일(금)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더 웨스턴 조선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5 ALWAYS ON: AIR Year End Part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의 원우회 활동을 돌아보고 원우 간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연말 공식 행사로, 다수의 원우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부는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사 및 공식 축사가 이어졌으며, 객주영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이 축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원우회 활동과 성과를 격려했다.

이어 2025 국별 활동 리뷰와 활동 영상 상영, 2025 원우회 인사, 건배사가 진행되며 참석자들이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베스트 드레서 시상과 올해의 원우 시상을 통해 원우들의 활발한 참여와 헌신을 축하했으며, 축하 공연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후 진행된 럭키드로우와 2026 원우회 소개 사이에는 허대식 경영대학장이 간단한 축사를 전하며 원우들에게 감사의 뜻과 함께 새해에 대한 기대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행사의 마지막은 단체사진 촬영과 함께 마무리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며 의미 있는 연말의 시간을 함께했다.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원우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원우 간 유대감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다가오는 2026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Global MBA

Alumni Q&A Mentoring

졸업 동문 모교 방문



2025년 5월 13일 연세 Global MBA(이하 GMBA) 재학생들의 경력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특별히 2023년 졸업 동문들이 퇴근 후 저녁시간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모교를 방문하여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하였다. GMBA 재학생 10여 명과 총 4명의 동문 선배들이 참석, 열띤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는데 동문 선배들은 외국인으로서 자신들이 한국에서 학업을 이수한 뒤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소중한 정보들을 제공하였다.

Victoria Rybak(Ukraine)은 자신의 취업 플랫폼 서칭 경험과 이직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고, TOPIK 시험과 동등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한국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안내하였다. Samita Thongbut(Thai)은 한국어의 능숙도가 덜 요구되는 상황과 직무들과 본인의 링크드인 활용경험을 공유하였다.

Jean Liang(Malaysia)은 학과 교수님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일자리 기회와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Gabriella Sharon Gozali(Indonesia)는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직 경험 및 경영 전공자로 Tech 산업에서 일하는 환경 및 독특한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었다.

이후 자유롭게 진행된 Q&A 세션에서는 GMBA 재학생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멘토 선배들은 한국 기업들의 독특한 조직문화 및 비즈니스 매너, 회식과 야근 등 특이점, 석사학위 취득자의 실질적인 처우, 연봉과 워라벨 비교, 자신의 모국에서의 경력 유지 및 전환 여부, 한국어 회화 향상방법 및 실제 근무 시 활용빈도, 그리고 해외영업 및 마케팅 등 외국인 대상 주요 채용직무에 대해 안내하였고, 특히 학생 신분 이후 근로자로서의

비자 취득 및 연장, 근로소득 증명 등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학생들에게 강조하였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은 자신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팁이었기에 외국인 유학생들은 모두 깊게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평일 저녁 7시 30분이라는 늦은 시간에, 또한 자발적으로 이뤄진 프로그램이었기에 참여자는 10여 명이었으나 그 열기는 매우 뜨거웠으며, 참여한 학생들 모두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을 주도하여 기획한 GMBA 재학생 대표 Kamel Khallaf는 '비자 및 TOPIK 대체 프로그램 등에 대해 알 수 있었기에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뜻깊었다. 이러한 내용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힘들게 취업한 동문선배들이기에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Global MBA

Guest Speaker 특강

한국에서의 비자·취업·창업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Global MBA)은 9월 25일 (목)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한국에서의 비자, 취업 및 창업(Visas, Jobs and Entrepreneurship in Korea)”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에는 두 명의 연사가 참여하여, 한국에서의 커리어 기회와 창업 가능성에 대한 경험과 인사이트를 전하였다. 특히 외국 국적자로서 한국에서의 취업과 창업에 대한 주제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을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공유하였다.

외국인들의 한국에서의 정착과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비자 취득(스타트업 비자 포함) 및 한국만의 특수한 문화를 바탕으로 한 취업에 대한 노하우가 본 특강의 주된 내용이였다. Global MBA 학생회의 Like Widjaja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고, 비자 취득을 준비하는 외국인 재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본 특강을 기획하였다. 같은 외국인으로써 공감할 수 있었고 관련 사항에 대한 Tip을 받을 수 있었기에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며 소감을 밝혔다.



앨리스 베스트(Allyce Best)
Tappytoons 팀장 및 연세대학교 GMBA 동문회 회장



카지미르 아고수(Casimir Agossou)
Assist-Me 대표이사(CEO)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이번 강연이 한국에서의 경력 개발을 준비하는 외국인 재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경영대학 연경Prep.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진학과 경영학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Prep.(준비과정)으로 경영학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교수님 및 홍보대사들과의 만남을 통한 뜻깊은 진로 탐색의 시간을 가지는 프로그램이다. 경영학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와 진로 탐색의 기회가 부족한 고등학생들이 경영학 전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며, 경영대학 교수님들의 강연과 경영대학 홍보대사 BizYON 재학생 및 졸업생과 함께 하는 멘토링 시간을 통해 대학 생활에 대한 궁금증, 공부법, 진로 등 다양한 고민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경영대학은 경영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프로그램인 '연경 Prep.'을 운영하였다. 2024학년도 2학기 및 2025학년도 1학기에 걸쳐 개최된 프로그램에는 총 350여 명의 고등학생이 참가해 연세경영의 교육과정과 대학 생활을 미리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은 경영대학 소개, 교수 특강, 입시 및 대학생 멘토링, 경영관 투어 등으로 구성되었다. 참가 학생들은 경영대학의 역사와 교육 철학을 비롯해 마케팅, 매니지먼트, 재무, 회계, 조직 및 데이터 정보학(ODI) 등 다양한 전공 분야를 소개받았으며, 교환학생, 창업지원, 동문 멘토링 등 연세경영의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해를 넓혔다.

교수 특강에서는 경영학의 주요 개념과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경영학이 사회와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 보았다. 2024학년도 2학기에는 이승우 교수가 '연세, 경영, 마케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2025학년도 1학기에는 조대근 부학장이 경영학의 최신 트렌드와 실질적 활용 사례를 소개하였다. 참가 학생들은 경영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입시 및 멘토링 세션에서는 경영대학 홍보대사와 재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해 수시·논술·정시 전형, 자기소개서 작성, 생활기록부 관리, 학습 전략 등 입시 준비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였다. 또한 참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대학 진학과 진로 설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어진 경영관 투어와 대학생활 세션에서는 강의실, 토의실, 바라마루 도서관, 창업 공간 등 경영관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연세경영의 교육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강 신청, 동아리 활동, 교환학생 제도, 창업연계전공 등 실제 대학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었다.

‘연경 Prep.’은 고등학생들에게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교육과정과 진로 기회를 소개하고, 입시 준비와 대학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진로탐색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참가 학생들은 선배들과의 소통과 교수 특강을 통해 대학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Yonsei School of Business, Your Obvious No.1 Choice



BizYON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공식 학생 홍보대사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이 여러분의 최고의 선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그 발음에서 연상되는 'Vision'처럼, 사회와 미래의 경영학도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연세경영의 위상을 상징한다. BizYON은 학생의 시각과 열정을 바탕으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가치와 매력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07년 창설 이후 BizYON은 연세경영이 국내 최고의 경영대학이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글로벌 경영대학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학생 스스로 기여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신입생 동문 멘토링, 합격생 오리엔테이션, 경영대학 입시 설명회 등

연세경영의 대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며, 예비 연세경영인과 재학생, 동문을 연결하는 소통의 창구로 자리매김해 왔다. 아울러 BizYON은 공식 SNS 페이지와 경영대학 YouTube 채널 운영을 통해 온라인 기반의 홍보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예비 연세경영인 고등학생을 위한 '연경 Prep.', 연세경영 학생들을 위한 'RC 101 경영학개론'과 '연경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연세경영만의 특별한 경험과 문화를 전하고 있다. 앞으로도 BizYON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공식 홍보대사로서 연세경영의 가치와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36기 비즈연 홍보대사 위촉



경영관 투어 한국어 / 영어 진행

▼ 36기, 37기 비즈연(BizYon) 홍보대사



CPA 고시실 개관식



11월 3일(월) 대우관 별관 401-4호에서 'CPA 고시실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번 고시실 조성은 연세회계사회와 연경장학회의 동문 기부를 통해 추진되었으며, 회계사(CPA) 준비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허대식 경영대학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2025년 6월 연경장학회의 동문 모금으로 조성된 'CPA 고시반 장학기금' 중 일부(3,000만 원)를 'CPA 고시반 건축기금'으로 전환하여 공사비로 활용했고, 7월 경영대학 운영위원회와 공간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9~10월 두 달간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로 대우관 별관 401-4호, 401-5호에 총 18석 규모의 신규 고시실이 조성되었으며, 이로써 경영대 내 CPA 고시실은 총 117석(본관 B102호 7석, B104호 40석, 별관 408호 52석, 401-4호 18석)으로 확충되었다.

또한, 책상·의자·냉장고·가습기·공기청정기 등 필수 비품을 새로 구비하여 학습 편의성을 높였으며, 전기·통신·냉난방 설비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완성했다.

행정대외부총장 김용호 부총장은 축사에서 "이번 고시실 확충은 단순한 공간 조성이 아니라 미래 회계전문가를 향한 연세 공동체의 신뢰와 기대를 상징한다"며 "새로운 공간이 학생들의 도전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며, 연세대학교는 학생들의 꿈이 결실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번 고시실 개관을 기념하여 삼일회계법인 및 PwC컨설팅 동문 파트너들이 2억 5천만 원을 기부하며, 향후 CPA 고시반의 학습환경 조성 and 후배 양성을 위한 든든한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호 행정대외부총장, 허대식 경영대학장, 박승재 교학부학장, 조대곤 기획부학장, 윤대희 경영연구소장, 문두철 CPA 담당교수, 민순홍 교수 등 학교 관계자와 함께, 박대준 연세회계사회 회장, 이복한 한영회계법인 대표, 천승환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등 다수의 동문이 참석했다.

CPA고시반 경현재 실장인 김유현(정치외교학과 18)과 경우희 실장인 안하준(노어노문학과 17) 학생은 감사 인사를 통해 "동문 선배님들의 지원과 관심 덕분에 안정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연세의 이름에 걸맞은 회계전문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는 테이프 커팅식과 단체 기념촬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참석자들은 다과를 나누며 연세경영대 CPA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은 오랜 전통의 CPA 교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동문과 재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선후배 상생형 학습 생태계'를 확립하고 있다.

이번 고시실 개관을 계기로 연세대는 더 많은 학생이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글로벌 회계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MBA 리더십개발 프로그램

2025학년도 리더십개발: 백두대간 I-II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자연 속 도전과 팀 기반 활동을 통해 MBA 학생들이 리더십, 협업, 문제해결 역량을 체득하도록 설계된 대표적인 체험형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인 '2025학년도 백두대간 I-II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2025학년도 1학기에는 '리더십개발: 백두대간 I'이 선자령과 발왕산 일대에서 두 차례 진행됐다. 1회차는 4월 18일(금)부터 19일(토)까지, 2회차는 5월 2일(금)부터 3일(토)까지 운영되었으며, 각각 48명과 41명이 참여해 총 89명의 C/F/G MBA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학생들은 조별 사전 활동과 전략 수립, 현장 산행, 나이트 세션, 디브리핑 등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사소통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경험했다.

백두대간 I의 주요 무대인 선자령과 발왕산은 자연환경 속에서 신체적 도전과 성찰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됐다. 학생들은 선자령 산행을 통해 백두대간 주 능선의 자연을 직접 체험하고, 발왕산 산행에서는 팀원들과 함께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통해 협력과 회복탄력성의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내가 새클턴이라면'이라는 주제의 나이트 세션을 통해 위기 상황 속 리더의 판단과 책임, 구성원 간 신뢰 형성에 대해 토론하며 리더십의 실제적 의미를 탐구했다.

2학기에는 '리더십개발: 백두대간 II'가 민둥산과 하이원리조트 고원숲길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1회차는 10월 24일(금)부터 25일(토)까지, 2회차는



10월 31일(금)부터 11월 1일(토)까지 진행되었으며, 각각 48명과 40명 등 총 88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민둥산 역새 산행과 하이원리조트 고원숲길 트레킹을 통해 자연 속에서 팀 단위 과제를 수행하고, 리더와 팔로워의 역할을 직접 경험했다.

백두대간 II에서는 안전을 고려한 코스 운영과 효율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강조됐다. 참가자들은 산행 전 안전교육과 준비운동을 거쳐 조별로 활동을 수행했으며, 산행 후에는 셀프 쿠키, 회복 운동, 나이트 세션, 최종 디브리핑 등을 통해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사전 프로젝트와 조별 전략촬영 계획서 작성, 백두대간 특강, Film Festival 등 다양한 연계 활동을 통해 단순한 야외활동을 넘어 교육적 성과를 확장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교실을 벗어나 낯선 환경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동료와 협력하며, 공동의 목표를 완수하는 과정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MBA 과정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은 지식 전달만으로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백두대간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실제 상황 속에서 리더십을 훈련하고 성찰할 수 있는 장으로 기능했다.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앞으로도 백두대간 프로그램을 비롯한 체험형 리더십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학생들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책임감과 실행력을 갖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5학년도 리더십개발: 제주도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2025학년도 MBA 리더십개발 교과목인 '리더십개발: 제주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본 프로그램은 제주라는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팀 단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리더십, 협업, 문제해결 역량을 체득하도록 설계된 경영전문대학원의 대표적인 체험형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5학년도 리더십개발 제주도 프로그램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운영됐다. 1차 프로그램은 5월 16일(금)부터 18일(일)까지, 2차 프로그램은 5월 30일(금)부터 6월 1일(일)까지 각각 2박 3일간 진행되었으며, 각 차수별 78명씩 총 156명의 C/F/G MBA 학생들이 참여했다. 과목은 1.5학점으로 운영되었으며, 서승범 교수와 이지윤 교수가 지도교수를 맡았다.

프로그램은 사전 설명회와 SPC 편성, 조별 프로젝트 수행, 피칭데이, 제주 현장 활동, 숲봄·사진 페스티벌 등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사전에 편성된 SPC 단위로 제주 현장에서 수행할 전략을 수립하고, 피칭데이를 통해 각 팀의 아이디어와 실행 계획을 공유했다. 이후 제주 현장에서 팀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제 환경 속에서 리더십과 실행력을 발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의 지역성과 최근 경영 이슈인 ESG를 리더십 교육과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프로그램에서는 사회적 투자와 지역 문제 해결, 로컬 크리에이터, 스타트업, ESG 등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되었으며, MYSC와 사단법인 제주올레의 사례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기업의 역할,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의 의미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영상 페스티벌 형식을 숲봄·사진 페스티벌로 전환해 학생들의 참여와 몰입도를 높였다. 학생들은 제주에서의 활동 과정과 팀 프로젝트 성과를 짧은 영상과 사진 콘텐츠로 정리하며, 현장에서의 경험을 창의적으로 공유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야외 체험을 넘어, 기획·실행·성과 공유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학습 경험을 완성했다.

제주도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낯선 환경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동료와 협력하는 경험을 제공했다. 각 SPC는 제한된 시간과 자원 안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에 대응했다. 이러한 과정은 MBA 학생들이 실제 경영 현장에서 요구되는 의사결정력, 소통 능력, 책임감, 유연성을 훈련하는 기회가 되었다.

참가 학생들은 제주올레와 지역 기반 활동을 통해 제주 자연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ESG 경영과 사회적 가치 창출의 실제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 특히 제주의 자연환경과 지역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수행은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경영과 리더십의 방향을 체감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앞으로도 제주도 프로그램을 비롯한 체험형 리더십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배운 경영 지식을 실제 현장과 연결하고,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책임감과 실행력을 갖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고경영자과정(AMP) 세미나·워크숍

제97기 일본 세미나



최고경영자과정(AMP)제97기는 5월 23일(금)부터 25일(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사가현과 나가사키현 일대에서 일본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48명의 원우가 참여했으며, 허대식 경영전문대학원장, 민순홍 AMP 주임교수, 사가대학교 장한모 경제학부 교수의 안내 아래 일본의 근현대사와 산업화, 비즈니스 혁신 사례를 현장에서 살펴보았다.

첫날 원우들은 사가대학교에서 장한모 교수의 '일본 역사에서 배우는 비즈니스 혁신' 특강을 들은 뒤, 아리타 도자기 마을과 이삼평 가마터를 방문해 일본 도자기 산업의 역사와 지역 산업 발전 과정을 이해했다.



둘째 날에는 나가사키 평화공원, 글로벌가든, 데지마, 우라카미 천주교회 등을 탐방하며 일본의 개항과 근대화, 국제 교류의 역사를 체험했다. 마지막 날에는 가라츠성을 방문해 일본의 역사와 지역 문화를 살펴본 뒤 귀국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영 교육과 역사 체험을 결합한 현장 학습으로, 원우들에게 글로벌 경영 안목을 넓히는 기회가 됐다.



제98기 일본 세미나



최고경영자과정(AMP) 제98기 일본 세미나는 10월 31일(금)부터 11월 2일(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에서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제 98기 원우 29명을 포함해 총 36명이 참여했으며, 일본의 경영 교육 현장과 도시·문화 공간을 탐방하며 글로벌 경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첫날 원우들은 와세다대학교를 방문해 캠퍼스 투어와 이애리아 교수의 특강에 참여하며 일본의 고등교육과 경영 교육 현장을 경험했다. 둘째 날에는 야마나시현 가와구치코 일대를 방문해 아라쿠라야마 센겐공원과 가와구치코 호수 유람선을 체험하며 지역 브랜딩과 관광자원 활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날에는 신주쿠 교엔, 국립신미술관, 아자부다이 힐스를 방문해 일본식 정원문화, 예술 전시, 도시재생과 지속가능한 개발 사례를 체험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영 교육, 지역 브랜딩, 도시재생, 문화 콘텐츠를 현장에서 연결해보는 기회로, 원우들이 글로벌 경영자로서 필요한 전략적 사고와 문화적 감수성을 넓히는 시간이 됐다.





제97기 제주도 워크숍

최고경영자과정(AMP) 제97기 원우들은 3월 28일(금)부터 29일(토)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허대식 경영전문대학원장과 민순홍 AMP 주임교수의 인솔 아래 약 40명의 원우들이 참여해 개강 초기 원우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과정 참여의 기반을 다졌다.

워크숍에서는 연세대학교 서길수 명예교수가 '경영자를 위한 AI 인사이트'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서 교수는 인공지능과 딥러닝의 기본 개념, AI 어시스턴트의 기업 활용 사례, AI의 한계와 윤리적 쟁점 등을 다루며 최고경영자들이 AI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원우들은 교래자연휴양림, 서귀포 치유의 숲, 본태박물관 등을 방문하며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했다. 이번 워크숍은 원우들이 서로의 경영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가능성과 환경의 가치를 되새기며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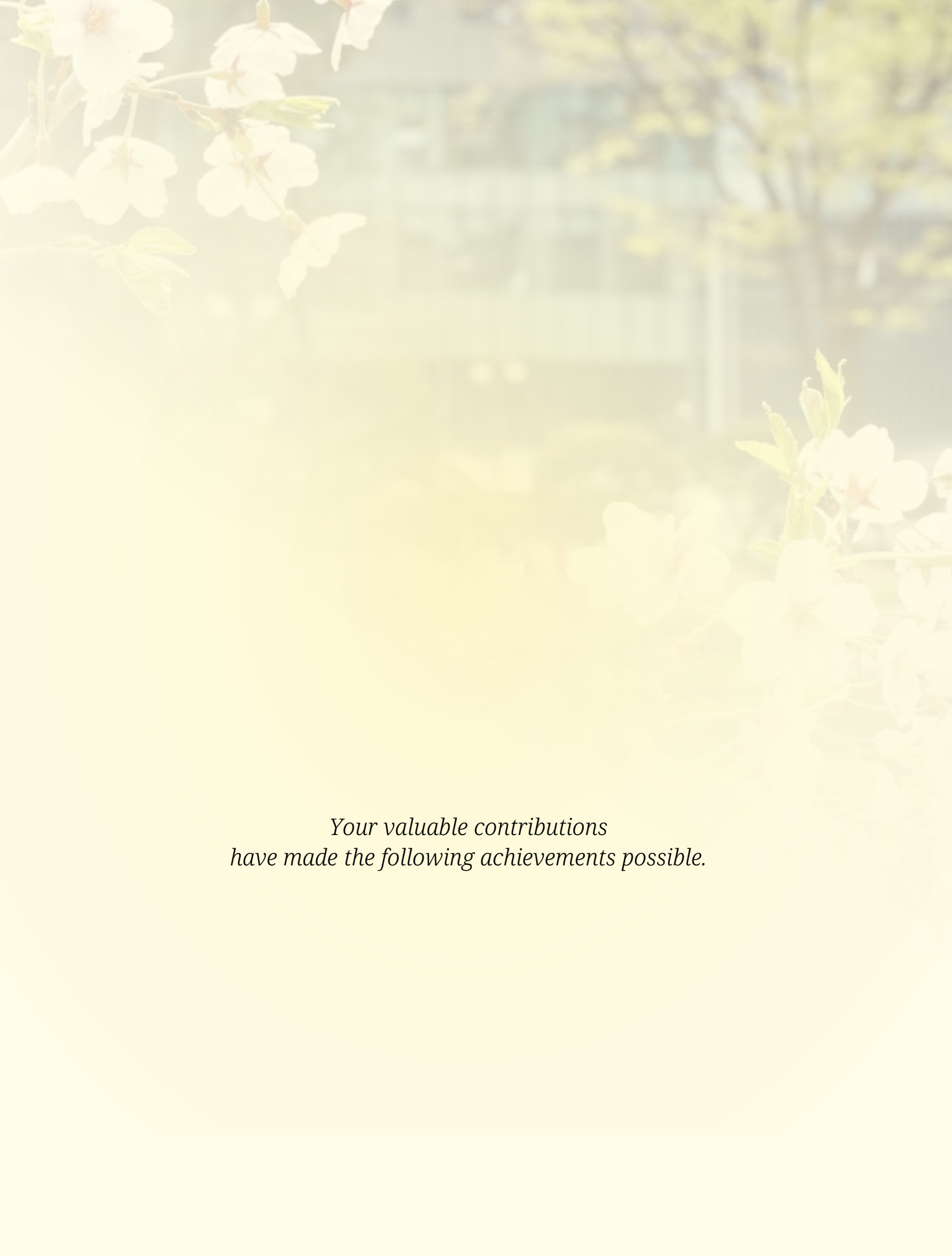
제98기 제주도 워크숍



최고경영자과정(AMP) 제98기 제주 워크숍은 9월 19일(금)부터 20일(토)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 테디밸리 리조트에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학교 관계자와 원우 등 총 35명이 참석해 과정 초반 원우 간 친밀감을 높이고, 향후 학습과 교류의 기반을 마련했다.

원우들은 제주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배경과 경영 경험을 공유하고, 동기 간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98기 원우들이 본격적인 AMP 과정에 몰입하기 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향후 강의와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Your valuable contributions
have made the following achievements possible.*

DONATION

102
기부 소식

110
기부 현황

112
기부 참여자 명단

116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연경장학회 10억원 기부

연경장학회가 연세대학교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10억 원을 추가 기부했다. 연경장학회는 1월 5일,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학 동창회와 함께 추진해 온 블루버터플라이(Blue Butterfly)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총 10억 원의 장학기금을 연세대학교에 전달했다.

블루버터플라이 장학금은 “하루 천 원, 한 달 3만 원”이라는 선배 동문들의 소액 정기 기부로 조성된 기금이다. 작은 나눔이 후배들의 삶과 미래에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푸른 나비효과’의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됐으며, 학생들이 학업과 도전, 역량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왔다. 현재까지 누적 기부 금액은 총 89억 원에 달한다.

연경장학회는 이러한 기부 철학을 바탕으로 기부자와 수혜자의 필요,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블루버터플라이 5-Track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Discovery Track은 캠퍼스를 넘어선 도전적 탐구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김창수 동문(경영 81, ㈜에프앤에프

회장)의 기부로 운영되고 있다. ▲Academic Track은 학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학문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Entrepreneur Track은 예비 창업가 발굴과 도전을 지원하며, ▲Social Track은 5급 공채와 CPA 등 전문직·공직 진출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돕는다. ▲Global Track은 외국인 재학생의 한국 정착을 지원하는 Inbound 프로그램과 해외 교환학생의 현지 적응을 돕는 Outbound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수 동문들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경장학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생활비 지원 중심의 ‘Hidden Angel 장학금’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생계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블루버터플라이 장학사업에는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상징적 감사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기부 약정에 참여한 기부자에게는 고유의 ‘기부 나비번호’가 새겨진 한정판 테디베어가 증정되며, 4년간 기부금을 완납한 기부자에게는

기부자 명의 라벨이 부착된 고급 와인이 전달된다.

연경장학회 오치훈 이사장은 “이번 10억 원 기부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연세 후배들의 꿈과 도전을 장기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블루버터플라이 장학사업을 통해 연세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이 더 큰 세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동섭 연세대학교 총장은 “연경장학회의 이번 기부는 단순한 재정적 후원을 넘어, 연세가 지향하는 인재 양성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으로 보여준 뜻깊은 사례”라며 “선배 동문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후배들의 미래를 밝혀가는 블루버터플라이 장학사업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감사드린다. 이어 “연세대학교는 이러한 소중한 뜻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PwC컨설팅 2억 5천만원 기부

10월 30일(목), 삼일회계법인 및 PwC컨설팅 동문 파트너 일동으로부터 총 2억 5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받는 기부금 전달식과 ‘연세의 미래와 함께하는 삼일 & PwC’ 감사 만찬이 개최되었다.

이날 오후 3시 10분 총장실에서 윤동섭 총장, 김용호 행정대외부총장, 임중백 대외협력처장, 허대식 경영대학장, 박승재 교학부학장, 윤대희 경영연구소 소장, 문두철 CPA 담당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일회계법인 및 PwC컨설팅 주요 동문 파트너와의 차담회가 열렸다. 동문 측에서는 박대준 대표, 오종진 전무(ASR), 이정훈 부대표(Deal), 정복석

부대표(Tax), 김중현 상무가 함께 자리하여 경영대학과의 지속적 교류 및 후배 양성 지원에 대한 뜻을 나누었다.

차담회에 이어 바로 윤동섭 총장 주재로 공식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윤동섭 총장은 “회계전문가를 양성해온 연세경영의 전통을 이어가며, 삼일과 PwC 동문 파트너들이 보여준 동문 간의 연대와 후배 사랑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기부는 CPA 고시반 발전기금 1억 2천5백만 원, 회계분야 발전기금 1억 2천5백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 회계전문가 양성과 회계교육 인프라 확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대준 삼일회계법인 대표는 “이번 기부는 연세가 가르쳐준 나눔과 책임의 가치를 실천한 의미 있는 일”이라며 “동문들의 뜻이 후배들의 성장과 회계교육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삼일과 PwC는 앞으로도 경영대학과 함께 미래 회계인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허대식 학장은 “동문 여러분의 귀한 뜻이 연세경영의 회계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기부의 의미를 소중히 이어가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부금 전달식



최고경영자과정 AMP 97기 5천만원, 98기 3천만원 기부

최고경영자과정(AMP) 제97기와 98기 원우들과 함께한 공식 만찬 자리에서 각각 연세대학교 발전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6월 4일 진행된 총장공관 만찬에서 김태경 제97기 원우회장은 “연세 AMP의 일원이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시간 동안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연세대학교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원우들의 학교에 대한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공식적으로 표현했다.

11월 12일 황상근 AMP 제98기 원우회장은 원우들을 대표해 연세대학교 발전기금 3,000만 원을 전달하며, 학교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응원하는 뜻을 전했다.

황상근 제98기 회장은 “AMP 98기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리더들이 모여 연세라는 공동체 안에서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학교의 발전을 위한 뜻깊은 나눔에 원우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은 이번 기부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전달된 발전기금은 교육·연구 환경의 질적 고도화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소중히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BA 15기 일동 6천만원 기부



Executive MBA 15기 일동이 모교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6천만 원을 2026년 2월 졸업축하행사에서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2026년 2월 23일(월) 오후 2시 경영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2월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졸업축하행사」를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졸업을 맞이한 원우들이 연세경영과의 소중한 인연을 기념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응원하는 뜻을 모아 마련되었다.

Executive MBA 15기 원우회는 재학 기간 동안 형성된 배움의 경험과 동문 간의 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이 글로벌 경영 교육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 특히 이번 발전기금은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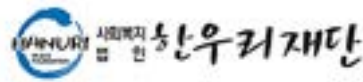
지원, 학문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관계자는 “졸업을 기념해 학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주시는 Executive MBA 15기 원우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부해 주신 소중한 발전기금은 연세경영의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ecutive MBA 15기 원우회는 이번 기부를 통해 동문으로서의 책임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으며, 앞으로도 연세경영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발전기금 전달은 졸업생들이 모교와의 연결을 이어가며 연세경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뜻깊은 사례로 평가된다.

한우리장학재단 4천만원 기부



한우리장학재단이 11월 3일,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미래 인재들을 위해 경영대학(원)특별장학기금 4천만 원을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의 뜻을 전했다.

한우리장학재단은 한우리의식산업(주) 조용훈 대표이사가 사재 20억 원을 출연해 2012년에 설립한 재단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 인재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뜻을 두고 있다. 설립 이후 재단은 꾸준한 장학 지원을 통해 교육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한우리장학재단은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학생들을 위해 총 1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후원하며,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해 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후원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학생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깊은 응원의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한우리장학재단의 귀중한 후원으로 총 10명의 장학생이 선발되어 장학금을 전달받았으며, 장학생들은 학업과 자기계발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은 한우리장학재단의 따뜻한 나눔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장학금에 담긴 진심과 신뢰가 학생들에게 큰 용기와 책임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우리장학재단의 변함없는 관심과 후원은 오늘의 학생들이 내일의 사회를 이끄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연세회계사회 3천만원 기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은 2025년 8월 26일(화), 경영관 407호 BMW실에서 연세공인회계사회로부터 'CPA 고시반 건축기금'으로 3천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받았다. 이번 기부는 후배 재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 및 공인회계사(CPA) 시험 준비를 위한 공간 마련에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후원금을 통해 대우관 별관 내 CPA 고시반이 추가로 조성될 계획이다. 현재 대우관 본관에는 47석, 별관에는 52석의 좌석이 마련돼 있으며, 이번 기부를 통해 별도로 18석이 신설될 예정이다. 또한, 고시반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냉장고,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편의 비품도 함께 구비할 예정으로, 실질적인 학습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허대식 학장을 비롯하여 박승재 교학부학장, 류원상 석·박사 주임교수, 윤대희 경영연구소 소장, 문두철 CPA 담당교수가 참석하였으며, 연경장학회 김민경 사무국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연세공인회계사회에서는 EY한영회계법인 박용근 대표와 이복한 대표, 삼일회계법인 오종진 회계사가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전달식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연세경영 동문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전하는 격려와 응원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기부 이후 백양누리 103호에서 오찬을 겸한 환담을 통해 동문 간 교류와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연세공인회계사회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출신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동문 단체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함은 물론, 후학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장명前 경영대학 객원교수 3천만원 기부



11월 5일, 장명 전(前)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가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3,000만 원을 기부했다.

장명 전 객원교수는 2022년에 경영대학(원)특별장학기금 1,000만 원, 2023년과 2024에 각각 경영대학(원)발전기금 2,0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으며, 현재까지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했다.

장명 전 경영대학 객원교수는 2005년부터 2007년, 2009년부터 2014년 경영대학 객원교수로 재직하며 원가회계, 중급회계 등을 가르쳤다. 현재는 연세경영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부를 이어가며 연세경영과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경영학과 김사성 동문 1천만원 기부

DASAN 茶山會計法人

김사성 동문(경영 85)이 12월 5일(금)에 경영대학(원) 특별장학기금 1,000만 원을 후원하였다.

김사성 동문은 지난 2014년 4월에도 경영관 시설개선기금으로 1,000만 원을 후원한 바 있어, 이번 기부는 연세경영의 발전과 후배 양성을 위한 꾸준한 나눔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현재 김사성 동문이 본부장으로서 재직 중인 다산회계법인은 茶山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정신과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회계감사, 세무, 경영컨설팅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기관이다. 다산회계법인은 고객 중심의 철저한 분석과 신뢰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은 "후배 학생들을 위해 귀한 마음을 보내주시는 김사성 동문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동문들의 따뜻한 나눔이 연세경영의 교육 경쟁력과 학생 지원을 강화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사성 동문의 특별장학기금은 향후 경영대학(원) 학생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연세MBA 총동창회 1천만원 기부

연세MBA 총동창회는 12월 10일(수), 동문과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5회 연세MBA 경영대상 시상식 및 2025 연세MBA의 밤」 행사에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발전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이서윤 연세MBA 총동창회장이 총동창회를 대표해 경영대학(원)발전기금 1천만 원을 전달하며, 모교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뜻을 전했다. 전달된 발전기금은 허대식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이 직접 전달받았다. 이번 기부는 연세MBA 동문들이 모교와의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교육과 연구 환경의 고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을 모은 것으로, 연세MBA 총동창회의 책임 있는 동문 정신과 나눔의 가치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은 연세MBA 총동창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후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전달된 발전기금은 경영대학(원)의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와 학생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소중히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MBA 3기 김희준 원우 1천만원 기부



2025년 11월 5일, Advanced MBA(AMBA) 3기에 재학 중인 김희준 원우가 경영대학(원)발전기금으로 10,000,000원을 후원했다.

김희준 원우는 현재 (주)한길종합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 총괄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잠실 제2롯데월드타워, 인천국제공항철도, 김포국제공항 SKY PARK 등 국내 주요 랜드마크 건설에 참여해 온 건축 분야 전문가다. 한길종합건축은 강남역 GT타워, 중앙우체국, 스타필드, 개포주공 재건축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건축·도시계획 분야 선도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김희준 원우는 “연세대학교는 제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한 곳이며,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 소중한 터전”이라며, “비록 작은

나눔이지만 학교 곳곳에 제 뜻을 남기고 싶다. 앞으로도 연세와 함께 걸어가고 싶다”는 기부 소회를 밝혔다.

김희준 원우는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며 오랜 기간 모교와의 연을 이어왔다. 그는 동문 활동을 통해 경영대 동문들로부터 AMBA 과정을 소개받았고, 올해 다시 학생 신분으로 돌아와 경영전문대학원 AMBA 3기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허대식 경영대학장은 “김희준 원우의 깊은 애정과 귀한 나눔은 연세경영의 미래 세대를 위한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기부금은 향후 경영대학(원)의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EMBA 15기 김원철 원우회장 1천만원 기부



2026년 2월 2일,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xecutive MBA에 따뜻한 기부 소식이 전해졌다. Executive MBA 15기 원우회장이자 화성지엔아이(주) 회장인 김원철 동문이 경영대학(원) 발전기금으로 1천만 원을 후원했다.

김원철 동문은 EMBA 15기 원우회장으로 활동하며 보낸 2년의 시간을 “잊지 못할 소중하고 귀한 시간”으로 회고하며, 훌륭한 교수진과 선·후배 동문들과의 교류 속에서 지식과 지혜는 물론 가족 같은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경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기부로 전했다. 특히 “사랑하는 후배들도 계속된 좋은 환경과 발전된 EMBA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며, 후배들을 향한 깊은 애정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냈다.

1994년 설립된 화성그룹은 엘리베이터 부품, 조선 기자재,

산업용 컨트롤러를 제조하고 전기·전자 부품을 유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왔으며, 산업 현장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술 중심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 경영의 경험과 철학은 EMBA 과정에서의 배움과 맞닿아 있으며, 이번 기부는 그 배움의 가치를 다시 학교로 환원하는 뜻깊은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동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나눔을 통해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이번 기부 역시 EMBA 교육의 질적 향상과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에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김원철 원우의 따뜻한 나눔은 EMBA 공동체가 단순한 학습의 장을 넘어,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가치를 환원하는 ‘연결된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원일티엔아이 이정빈 대표 1천만원 기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은 2025년 11월 20일 수소·LNG 설비 전문 기업 (주)원일티엔아이 이정빈 대표이사로부터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받았다. 이로써 이정빈 대표는 현재까지 총 5차에 걸쳐 누적 6,000만 원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 후원하게 됐다.

1998년 설립된 원일티엔아이는 천연가스 생산·공급 설비 및 발전·원자력·조선해양 분야의 주요 장비를 공급하며 성장해 온 친환경 에너지·수소 설비 전문 기업이다. 특히 LNG터미널용 고압연소식 기화기(SCV)와 재액화기 등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장비를 국산화했고, 잠수함용 고체 수소저장합금 및 수소저장실린더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용화해 장보고-III급 잠수함에 수소저장 시스템을 공급하는 등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정빈 대표는 1997년에 경영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수학한 동문으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이끌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장학기금 및 발전기금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허대식 원장은 이번 기부금을 교육환경 개선 등 미래 경영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영대학(원) 관계자는 “대한민국 수소·에너지 기술 경쟁력을 높여 온 기업인이 모교 후배들을 위해 꾸준한 힘을 보태 주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소중한 뜻이 헛되지 않도록 글로벌 에너지·기술 환경을 선도할 경영 리더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타임폴리오 자산운용 5백만원 기부



(주)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 2025년 7월 16일,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학술 동아리 YIG(Yonsei Investment Group) 학생들을 위해 500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했다.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매 학기마다 꾸준히 500만 원을 기부해오며, 미래 금융·투자 분야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후원 역시 그 일환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2학기 이상 성실하게 학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특히 투자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태도를 지닌 학회원들이 학문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의미가 있다.

YIG 학회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소속 투자·자산운용 분야의 대표적 학생 학술 단체로, 국내외 금융시장을 연구하고 모의투자 및 기업분석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번 장학금 후원을 통해 학회원들은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학문적 탐구와 실무 역량을 더욱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관계자는 “꾸준한 후원이 학생들의 열정과 도전을 뒷받침해, 건전한 투자 문화를 선도할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역시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학생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회계법인 숲 5백만원 기부



2025년 4월 29일, 회계법인 숲이 미래의 공인회계사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500만 원의 특별장학금을 경영대학(원)에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2025년도 CPA 1차 시험 준비생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5명을 선발해, 1인당 10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를 주도한 회계법인 숲은 대한민국 최초의

Valuation & Financial Advisory Service(FAS) 전문 회계법인으로, 독립성 있는 금융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특별장학금은 회계법인 숲 소속 선배 회계사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회계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을 격려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회계법인 숲 관계자는 “이번 기부가 학생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라며, 미래의 유능한 회계사가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교육기부를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MBA 5기 김준도 동문 5백만원 기부



연세대학교 Executive MBA 5기(2014년 입학) 김준도 동문(前 한국교세라정공(주) 대표이사) 10여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여준 모교 사랑과 나눔의 행보가 귀감이 되고 있다.

김준도 동문은 2014년 입학 이래 지금까지 총 105회에 걸쳐 1억 2천 40만 원을 기부하며, 연세대학교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을 몸소 실천해왔다. 그의 기부는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오랜 시간 꾸준히 이어져 온 ‘연세사랑’의 진정한 본보기라 할 수 있다.

김준도 동문이 대표를 역임했던 한국교세라정공(주)은 1998년 설립된 이래 정밀기계공구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세계적인 기술을 국내에 도입하고 한국 시장에 맞는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

온 기업이다. 2023년 3월 27일, 한국교세라정공(주)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준도 동문은 기존의 정밀기계공구를 넘어 기계설비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 세계 속의 한국교세라정공(주)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영자이자, 모교를 향한 변함없는 애정을 가진 동문으로서 김준도 대표의 행보는 많은 후배와 동문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김준도 동문의 꾸준하고 진심 어린 기부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가 앞으로도 연세와 함께 만들어갈 따뜻한 이야기를 기대한다.

일반대학원 김동환 동문 5백만원 기부

4월 18일, 김동환님이 경영대학(원) 특별장학금에 500만원을 약정하며 뜻깊은 기부를 진행했다.

2012년 일반대학원 경영학과에 입학했던 김동환님은 경제활동을 위해 학업을 중단했던 경험이 있다. 현재 새문안교회의 집사로 활동 중인 그는 이번 기부를 통해 언더우드 선교사의 섬김과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동환님의 소중한 장학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영대학 OM 전공 석사 또는 (석)박사 대학원생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이러한 김동환님의 선행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맨파워 코리아 319만원 인턴십 후원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Global MBA(GMBA) 과정에 재학 중인 독일 출신 Marisa Kropp 학생이 2025년 여름학기 동안 Manpower Korea에서 인턴십을 수행했다. 이번 인턴십은 2025년 8월 11일, Manpower Korea가 경영대학(원)특별장학기금으로 기부한 3,190,000원의 후원을 통해 이뤄졌다.

Marisa 학생은 Manpower Korea의 Search & Consulting 부서에서 Business Development and Marketing Associate 직무를 맡아 활동했다. 독일어 사용 기업 발굴, 채용 수요 분석, LinkedIn·이메일을 활용한 맞춤형 아웃리치 등 다양한 사업개발 업무를 주도했으며, 동시에 회사 계정과 개인

계정에서 콘텐츠 기획과 'Intern Diaries' 시리즈를 운영하며 마케팅 역량도 발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 문화와 비즈니스 매너를 직접 체득하며, 언어적·문화적 장벽을 넘어서는 소통 능력을 키웠다. Marisa 학생은 “외국인으로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따뜻한 환경과 배려 속에 도전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인턴십은 단순한 현장실습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경영대학(원)특별장학기금을 통한 후원이 있었기에, 학생은 글로벌 무대에서의 실무 경험을 쌓고 미래 커리어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었다.

Marisa 학생은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제공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커리어 지원 프로그램과 Manpower Korea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Manpower Korea의 따뜻한 후원은 한 학생의 성장을 넘어, 연세대학교 Global MBA가 지향하는 ‘글로벌 리더 양성’이라는 비전에 힘을 보태는 소중한 기부가 되었다. 경영대학(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특별장학기금을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험을 확장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경영학과 이영섭 동문 3백만원 기부



이영섭 동문(경영 84)이 12월 9일(화)에 CPA 고시반 건축기금으로 300만 원을 후원하였다.

이영섭 동문은 이번 기부 이전에도 2007년 1월 300만 원, 2007년 9월 4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으며, 후배들의 전문 회계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현재 이영섭 동문은 우일회계법인 감사본부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우일회계법인은 수년간 부동산 사업성 평가, 실사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기관으로, 분양성 검토, 재무 분석 등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경영대학은 이번 기부가 CPA 준비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후배들을 위한 이영섭 동문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영섭 동문의 지속적인 나눔은 많은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CPA 고시반의 교육환경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경영학과 하신욱 동문 2백만원 기부



4월 22일,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 뜻깊은 기부가 이루어졌다. 주인공은 바로 하신욱 학부생으로, 그는 공인회계사(CPA) 합격의 기쁨을 나눔으로 승화시키고자 200만 원을 기부했다.

2024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하신욱 학생은 국가고시 장학금으로 받은 100만 원에 자신의 개인 후원금 100만 원을 더해 총 2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러한 선행은 그의 CPA 합격이라는

개인적 성취를 넘어, 학교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하신욱 학생의 기부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의 정신과 함께 하는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Your valuable contributions
have made the following achievements possible.*

기부금 입금 계좌 안내

발전	126-000066-18-603	우리은행	(학)연세대학교
건축	126-000082-18-358	우리은행	(학)연세대학교
장학	126-000082-18-412	우리은행	(학)연세대학교

2025 기금 모금 현황



모금 약정액

10.46 억 원

모금 참여인원

278 명

53.1% 장학 기금

5.55 억 원

46.7% 연구 및 발전 기금

4.88 억 원

0.3% 건축 기금

0.03 억 원

91.8% 기업 및 단체

9.59 억 원

8.1% 동문 및 재학생

0.84 억 원

0.1% 교직원

0.01 억 원

주요 사용처 장학 학생들의 장학금 확충 자원 | 연구 및 발전 연세경영 교육 비전 달성 및 연구증진과 교수진 확충을 위한 기금 | **Class Gift** 신입생 입학 기념품 마련 자원

CLASS GIFT 참석자 명단

MBA

김정언 | MBA 24 전대현 | MBA 24
모준승 | MBA 24 한용희 | MBA 24
장 윤 | MBA 24 허 정 | MBA 24

학부

김태희 | 경영 18 이지민 | 경영 20 DACHUAN LI | 경영 22
백진형 | 경영 22 조아림 | 경영 23 LEIGH AERIE AMY | 경영 21
송하준 | 경영 19 최인준 | 사회 89
이서하 | 경영 19 최희지 | 경영 19

CLASS GIFT MESSAGE

LEIGH AERIE AMY | 경영 21

연세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이곳이 제 삶의 '집'이 될 줄 알지 못했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나라 속에서 시작한 이곳에서, 저는 조금씩 성장했고, 제 목소리를 찾았고, 그리고 스스로가 되어 갔습니다. 연세는 저에게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던 기회들을 열어 주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공부했던 시간은, 제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아직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뒤돌아보는 날,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연세는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되는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이곳은 여러분에게도 '집'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최인준 | 사회 89

YSB는 AI를 지배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졸업까지 열심히 해보세요!!

정답은 없으니, 자신만의 답을 만들어보세요.

최희지 | 경영 19

찬란한 기억과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래요

장 윤 | MBA 24

최고의 선택을 하신 신입
생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용희 | MBA 24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는 기다림
의 끝엔 그라야하는 가치가 있
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내
로 얻은 연세경영인의 가치가
를 함께 하기를 바라며 입학
을 축하드립니다!

조아림 | 경영 23

For Better Life!

허 정 | MBA 24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김정언 | MBA 24

후배님들 환영합니다

이서하 | 경영 19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김태희 | 경영 18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은 2026년 신입
생 여러분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
는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곳
에서 꿈을 키워온 사람으로서, 2026
년 신입생 여러분의 힘찬 출발과 밝은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백진형 | 경영 22

연세가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로
운 연세인들이 더 나은 자신이 되기를 기대
합니다.

DACHUAN LI | 경영 22

연세경영의 일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잊지 못할 청춘의 한 장을 연세경영
에서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송하준 | 경영 19

세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근본에
서 진리를 묻는 태도 위에, 당신의 선한 의
지와 한 걸음 한 걸음이 더해져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준승 | MBA 24

후회하지 않는 대학 생활을
즐기세요

전대현 | MBA 24

2025 기부금 참여자 명단

3억 원 이상

재단법인 연경장학회

5천만 원 이상

EMBA15기 일동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97기

장명 · 경제 67

상경계열 25주년 재상봉 96학번

경영학과 50주년 재상봉 71학번

경영전문대학원 총동창회

(주)타임폴리오자산운용

김사성 · 경영 85

김원철 · EMBA 15기

김희준 · AMBA 25

이정빈 · MBA 97

5백만 원 이상

김동환 · 경영 12

회계법인 숲

1백만 원 이상

이승호 · 경영 84

(주)맨파워코리아

이영섭 · 경영 84

하신옥 · 경영 19

민순홍 교수

1억 원 이상

삼일회계법인·PwC컨설팅

1천만 원 이상

재단법인 한우리장학재단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98기

입금 500만 원 이상 누적 기부자 명단

100억 원 이상

서경배 · 경영 81

10억 원 이상

김승제 · MBA 07 / AMP 50기

김정수 · 경영 69

김효준 · MBA 98

박삼구 · 경제 63

심장식 · 경영 73

이두원 · 상학 58

이동준 · MBA 78

이재범 · AMP 56기

(주)아모레퍼시픽

재단법인 연경장학회

삼일회계법인·PwC컨설팅

안용찬 · 경영 77

이관식 · 경영 66

故 임익순 교수 가족 일동

한영재 · 경영 73

(주)크라운제과

AMP총동창회

경영 81 동기회

경영 83 동기회

(재)홍모·수민장학회

1억 원 이상

고진호 · EMBA 11기

구재상 · 경영 83

김영숙 · AMP 55기

김준도 · EMBA 5기

김진우 · MBA 15

김흥기 · 경영 75

남궁덕 · AMP 57기

서요원 · 경영 64

서정락 · MBA 03

손영식 · AMP 17기

故 송자 퇴임교수

신영수 명예교수

신희호 · 경영 77

안교강 · MBA 15

양동훈 · 박사 01

양주현 · MBA 77

유상호 · 경영 78

윤형근 · 경영 82

이강만 · 경영 74

故 이기을 명예교수

이장희 · 경영 59

이재용 · 경영 83

이종화 · AMP 53기

장 명 · 경제 67

장정훈 객원교수

재단법인 한우리장학재단

장진호 퇴임교수

정구현 명예교수

정석주 · 상학 59

조락교 · 경제 55

조용선 · 경제 58

지준경 · EMBA 22

최도석 · 경영 70

현승원 · MBA 18

황재광 · MBA 01

(유한)삼일회계법인

(주)이랜드월드

Dept of Veterans Affairs

김구재단

주한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사관

AMP 73기

EMBA 9기

EMBA 10기

MBA총동창회

경영 79 동기회

경영 80 동기회

경영 82 동기회

경영 84 동기회

경영 85 동기회

경영전문대학원 총동창회

연세생산전략연구회

(주)퓨트로닉

5천만 원 이상

고사무엘 · 경영 85

김명준 · 경영 63

김법용 · AMP 77기

김상철 · 경영 67

성필호 · 경영 65

오광성 · 경영 71

이문일 · 경영 86

이승훈 · EMBA 20

이정빈 · MBA 97

전상표 · AMP 42기

전용배 · AMP 34기

전찬민 · 경영 86

정원철 · AMP 81기

故 정종진 명예교수

조재우 · 경영 86

조종환 · 경영 83

최희규 · 경영 83

선등문화장학재단

엔에치투자증권(주)

AMP 53기

AMP 54기

AMP 55기

AMP 56기

AMP 57기

AMP 58기

AMP 61기

AMP 62기

AMP 63기

AMP 64기

AMP 65기

AMP 66기

AMP 67기

AMP 68기

AMP 69기

AMP 70기

AMP 71기

AMP 72기

AMP 74기

AMP 75기

AMP 76기

AMP 77기

AMP 78기

AMP 79기

AMP 81기

AMP 83기

AMP 85기

AMP 87기

AMP 93기

AMP 94기

AMP 95기

AMP 96기
AMP 97기
AMP 98기
EMBA 1기
EMBA 3기
EMBA 4기
EMBA 5기
EMBA 6기
EMBA 7기
EMBA 8기
EMBA 11기
EMBA 13기
EMBA 14기
EMBA 15기
EMBA 동문회
경영 63 동기회
경영 64 동기회
경영 86 동기회
경영전문대학원 여성동창회

1천만 원 이상

강병천 · 경영 77
강호찬 · 경영 95
경영학과 50주년 재상봉 · 67학번
경영학과 50주년 재상봉 · 70학번
경영학과 50주년 재상봉 · 71학번
경정수 · AMP 78기
고은봉 · 경영 66
고인홍 · MBA 12
고종태 · AMP 77기
고태규 · MBA 15
고한수 · 경영 70
구재범 · AMP 58기
구학서 · 경제 66
권성문 · 경영 81
권승화 · 경영 76
권승희 · 경영 70
권오국 · AMP 65기
권응구 · 경영 65
권혁조 · 경영 72
김경배 · 경영 83
김광진 · 경영 82
김규명 · 경영 75

김근수 · 경영 79
김기완 · 경영 81
김낙찬 · AMP 67기
김대열 · 경영 75
김도성 · 경영 75
김동원
김동준 · 경제 83
김동훈 교수
김병덕 · MBA 84
김사성 · 경영 85
김석현 · 경영 91
김선진 · MBA 18
김성경 · MBA 17
김성문 교수
김성운 · 경영 69
김성찬 · 석사 98
김세환 · 경영 77
김순무 · AMP 43기
김승학 · MBA 17
김신성 · MBA 16
김영주 · AMP 63기
김영호 · AMP 52기
김옥중 · 경영 82
김요대 · 경영 82
김용운 · AMP 16기
김용현 · 경영 02
김윤성 · MBA 15
김윤희 · 경영 73
김원철 · EMBA 15기
김인준 퇴임교수
김재우 · 경영 81
김재환 · AMP 33기
김재후 · 상학 67
김정동 교수
김종태 · 경영 78
김지영 · 경영 85
김지현 · MBA 18
김진우 교수
김진호 · 경영 83 / MBA 18
김창수 · 경영 81
김태우 · 경영 87
김태현 명예교수
김학수 · 경영 71

김희준 · AMBA 25
나홍규 · 경영 85
남윤성 · MBA 15
남 훈 · 상학 67
노병용 · 경영 69
라제훈 · 경영 69
문순영 · MBA 18
민순홍 교수
민천기 · MBA 16
박대준 · 경영 86
박동출 · AMP 50기
박병선 · AMP 74기
박상용 명예교수
박성대 · AMP 33기
박세진 · MBA 18
박양수 학부모
박영렬 교수
박영숙 · 경영 82
박영진 · 경영 69
박재홍 · 경영 85
박태관 학부모
박태원 · 경영 84
박창섭 · EMBA 12기
박현준 명예교수
박형건 · 경영 80 / AMP 75기
방일석 · AMP 51기
방혜경 · AMP 80기
배호원 · 경영 70
변기욱 · MBA 04
변희경 · MBA 14
상경계열 96학번 재상봉
서길수 교수
서우아이엔디
서정민 · MBA 13
서진석 · 경영 84
서창우 · 경영 78
설도원 · MBA 98
성준제 · 경영 64
손민진 · MBA 11
손범수 · 경영 82
손석우 · 경영 83
손성규 교수
송문호 · 상학 68

신동엽 교수
신성호 · 경영 79
신용한 · 경영 88
신현한 교수
안병덕 · 경영 76
안재우 · 경영 94
안종현 · 경영 75
양일수 · 경영 82
엄석종 · MBA 14
연강흠 명예교수
오세조 명예교수
오영철 · AMP 55기
오원석
오재갑 · MBA 05
오티씨테크놀로지(주)
오치훈 · 경영 94
유민호 · MBA 18
유상호 · 경영 78
윤경식 · 경영 77
윤대인 · MBA 14
윤안도 · 경영 72
이갑재 · 경영 82
이강남 · MBA 12
이경미
이규상 · 상학 68
이길호 · 경영 83
이동우 · MBA 15
이두철 · AMP 38기
이범교 · MBA 11
이병남 · 경영 82
이상현 · 상학 67
이서영 · MBA 14
이석구 · 경영 69
이성문 · 경영 77
이수호 · 경영 70
이승호 · 경영 84
이영섭 · 경영 84
이응훈 · MBA 93
이재신 · 상학 62
이재욱 · 경영 86
이재익 · 경영 69
이정선 · 경영 81
이정익 · AMP 22기

이정조 · 경영 73
이종달 · 경영 69
이준규 · 경영 83
이준혁 · MBA 11
이지만 교수
이창훈 · 경영 75
이태호 · 경영 80
이행일 · AMP 72기
이호근 교수
이호영 교수
이호인 · EMBA 14기
이흥기 · AMP 47기
임건신 교수
임수빈 퇴임교수
임영균 · 경영 74
임용빈 · MBA 04
임종환 · 경영 78
장대련 교수
장덕흠 · AMP 71기
장우석 · MBA 18
장주인 · MBA 17 / AMP 82기
전재훈 · 응통 75
정광언 · MBA 18
정길영 · MBA 12
정대형 · 경영 86
정동기 · 경영 71
정병철 · 상학 65
정성규 · AMP 70기
정세영 · MBA 07
정연택 · 경영 69
정용화 · 경영 66
정찬규 · AMP 77기
조남준 · 경영 68
조우제 · 경영 94
조웅기 · 경영 85
조재성 · MBA 16
조종래 · MBA 12
주 원 · 경영 82
주인기 명예교수
지대섭 · 경영 72
지민호 · 경영 81
차승훈 · 경영 82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최상우 · 경영 06	CJ CGV(주)	AMP 88기	김병균 · 경영 82	박용석 교수
최선미 교수	GS건설	AMP 89기	김상욱 · 경영 84	박윤하 · 경영 81
최순규 교수	LG전자	AMP 90기	김상진 · 경영 76	박은애 · EMBA 15기
최영수 · 경영 81	SK텔레콤(주)	AMP 골프회	김상현 · 경영 82	박창호 · 경영 82
최원욱 교수	강원전선(주)	EMBA 2기	김상희 · MBA 09	박종구 · 경영 79
최흥식 · 경영 71	교보문고	GMT(Global Management Track)	김성수 · 경영 70	박주규 · AMP 72기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노키아	MBA 87기 원우회	김수진 · MBA 15	박준병 · 경영 79
주식회사 피터팬식품	대상주식회사	Y빌딩	김영승 · 경영 69	박진원 · 경영 86
하태석 · AMP 63기	디시아이에프코리아	경영 61 동기회	김영현 · 경영 78	박천택 · 경영 86
한상근 · 경영 79	라인플러스 주식회사	경영 65 동기회	김용학 · 사회학 73	방동원 · AMP 53기
한찬희 · 경제 74	롯데쇼핑(주)	경영 72 동기회	김우찬 · AMP 64기	배기룡 · 경영 76
한태식 · 경영 61	미래에셋증권	경영 78 동기회	김윤희 · MBA 12 / AMP 59기	배종열 · 경영 81
허대식 교수	삼성전자	경영전문대학원 석사동창회	김재일 · MBA 13	백덕현 · AMP 70기
홍선주 · 경영 78	신한은행	백양로포럼	김재호 · 경영 82	백상태 · 상학 67
홍성수 · 경영 79	씨제이제일제당(주)	상경대학 59학번 입학동창회	김재훈 · 경영 83	백창현 · 경영 85
홍성택 · 경영 82	영신엠텍	상학과 50주년 재상봉 · 66학번	김정우 · 경영 82	서봉수 · AMP 71기
홍익표 · AMP 74기	엘로우캡	상학과 50주년 재상봉 · 67학번	김주완 · AMP 70기	서승욱 · AMP 73기
홍태호 · 경영 81	우리은행	상학 62 동기회	김주환 · MBA 13	성길현 · AMP 64기
황병주 · AMP 22기	일진전기(주)	상학 64 동기회	김준석 명예교수	손영근 · AMP 73기
황사용 · MBA 13	장금상선(주)	상학 65 동기회	김지안 · MBA 13	손원범 · 경영 84
황선오 · MBA 16	재단법인 아산나눔재단	서길수 교수 연구실	김진홍 · 경영 77	송성호 · AMP 77기
황의준 · MBA 01	(재)심팩최진식장학재단	연세회계사회	김창권 · AMP 77기	신권수 · AMP 64기
황일청 · 상학 50	주식회사 카카오	재연덕수상고	김철희 · AMP 76기	신문선 · 경영 76
(주)기업금융센타	(주)코리아홈쇼핑	회계법인 숲	김태교 · 박사 86	신용인 · 경영 70
(주)대정장학회	창성주식회사	5백만 원 이상	김한용 · 경영 81	신인수 · 경영 79
(주)서울의과학연구소	천일서암장학재단	강민석 · MBA 10	김형기 · 경영 92	신태성 · AMP 72기
(주)성주재단	코오롱글로벌(주)	강 성 · 경영 74	김호용 · 경영 63	신태용 · MBA 08
(주)남극냉동	코오롱인더스트리(주)	강성민 · 경영 77	남상환 · 경영 86	심중섭 · 경영 61
(주)노루홀딩스	FnC부문	강일욱 · MBA 18	도현수 · 경영 86	양동기 · 경영 81
(주)시몬느	패션그룹형지(주)	고병순 · 경영 76	류승권 · 경영 85	여진숙 · MBA 18
(주)SIMPAC 포항1공장	한국산업은행	고재희 · AMP 64기	류 장 · MBA 19	오동익 · 경영 83
(주)아람인테크	한국수출입은행	구대회 · 경영 99	마기석 · AMP 83기	오일환 · 응통 76
(주)앤비전	한일재단	권희전 · 경영 81	문희성 · 경영 83	오재항 · AMP 72기
(주)에스비에스아이	현대증권	김경휘 · 경영 83	故 민경삼 · 경영 98	우덕기 · 경영 76
(주)오리온	AMP 49기	김광오 · 경영 83	박기한 · AMP 71기	유기성 · 경영 06
(주)웅진씽크빅	AMP 51기	김낙호 · MBA 16	박동희 · AMP 78기	유재흥 · 경영 73
(주)이마트 본점	AMP 52기	김동일 · 경영 81	박미자 前 직원	유한상 · 경영 64
(주)일신웰스	AMP 60기	김동철 · 경영 84	박병호 · MBA 14	윤경희 · AMP 70기
(주)테일러렐슨소프레스코리아	AMP 80기	김동환 · 경영 12	박선주 교수	윤 석 · 경영 81
(주)포스코경영연구소	AMP 82기	김두열 · AMP 65기	박성래 · 경제 77	윤여향 · AMP 72기
(주)하이드로젠파워 에너지사업부	AMP 84기	김만수 · 경영 77	박성재 · 경영 85	윤용암 · 경영 75
(주)하이마트	AMP 86기		박영인 · 경영 72	윤인한 · AMP 72기

윤재홍 · 박사 87	이진홍 · AMP 86기	정수원 · 경영 70	한정희 · 경영 83	(주)한국안센
이건형 · 경제 59	이호영 · 경영 78	정안수 · AMP 72기	한창직 · 경영 75	벽산장학문화재단
이경록 · MBA 14	이화숙 · AMP 71기	정종모 · 경영 71	한현주 · 경영 81	일우건설주식회사
이광호 · 경영 61	이희환 · 경영 79	조성열 · 경영 79	허 윤 · MBA 15	주식회사 아이엑스엘코리아
이대표 · MBA 16	임경화 · MBA 08 / AMP 76기	조화준 · AMP 70기	허인철 · 경영 79	주식회사 필라스
이동환 · 경영 79 / AMP 87기	임일 교수	진종언 · MBA 12	현명철 · MBA 18	현대약품(주)
이법표 · MBA 16	임주재 · 경영 72	차재권 · MBA 13	현창수 · AMP 49기	하나은행
이상규 · MBA 18	임춘수 · 경영 81	최상기 · MBA 15	홍순영 · AMP 64기	한국외환은행
이석재 · 경영 82	임형기 · AMP 70기	최승석 · AMP 68기	황봉구 · AMP 71기	한국정보공학(주)
이성원 · MBA 18	장광식 · 상학 67	최영준 · 상학 64	황우곤 · 경영 85	MBA 78대 원우회
이승훈 · MBA 20	장석룡 · 경영 86	최응열 · 경제 77	황우양 · 경영 83	경영전문대학원
이영호 · 경영 97	장영용 · 경영 59	최정훈 · 경영 76	황의진 · MBA 03	경영전문대학원 연구동창회
이재일 · AMP 64기	장은미 교수	최종만 · 경영 78	(재)함께일하는재단	
이종철 · AMP 64기	전성기 · 경영 85	한봉수 · 경영 79	(주)에스엔파트너스	
이주섭 · AMP 66기	정기범 · MBA 13	한상신 · 경영 61	(주)에프피디	
이준영 · MBA 13	정상호 · AMP 70기	한영진 · AMP 71기	(주)엔에스티정보통신	

연세경영을 위해 큰 관심과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큰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기금 누적 입금자 명단은 2001.2.1~2026.2.28(2025학년도)까지 경영대학에 5백만 원 이상 입금한 기부자 기준입니다. 단체 기부의 경우, ①단체 누적 입금액을 합산 기재하고 ②단체 기부에 기여한 개인은 개인 입금액으로 합산 기재하였습니다. 기부금통합시스템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이름 불명확 등의 사유로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 문의 Tel. 02-2123-6255 E-mail. ysbgive@yonsei.ac.kr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안내

* 기부 입금 누적액 기준

기부자 예우내역		아너스 1백만원 이상	독수리 1천만원 이상	백양 5천만원 이상	청송 1억원 이상	무악 3억원 이상	진리 10억원 이상	자유 50억원 이상
감사패			●	●	●	●	●	●
학교소식지 연세소식 발송		●	●	●	●	●	●	●
연세달력 발송		당해년도 1백만원 이상 기부자 전체 발송 · 기부누적액 5백만원당 1년씩 발송						
도서관 무료이용 도서열람 및 대출			●	●	●	●	●	●
기부자 명패		일반석	고액석					
명칭 부여					명패 로비		명칭 강의실 · 실험실	명칭 건물
무료주차 등록			1천만원당 1년 무료 등록			무기한		
명절 선물			기부누적액 1천만원당 1년간 발송 * 설, 추석 각 1회					
학비감면 배우자 포함	부속교육기관 언어교육연구원, 미래교육원		20%		30%		50%	100%
	본교 특수대학원 학위과정					30%	50%	100%
독감 예방접종					5년 본인	5년 본인 · 배우자	10년 본인 · 배우자	무기한 본인 · 배우자
건강검진 할인 세브란스체크업(서울역 부근)만 해당			30% · 1회 기본검진비		전액 · 1회 기본검진비	전액 · 2회 기본검진비	전액 · 10회 기본검진비	전액 · 20회 기본검진비
세브란스 진료비 감면	총 진료비				10% · 5년 본인	20% · 5년 본인 · 배우자	50% · 10년 본인 · 배우자	100% · 무기한 본인 · 배우자
	연간 감액 한도				5백만원 본인	5백만원 본인 · 배우자 합산	1천만원 본인 · 배우자 합산	총 기부액의 2% 본인 · 배우자 합산
	병실 감액 기준				병실료 감액은 세브란스병원(본원) 1인실 기준 * 상위 병실 이용으로 발생한 차액은 본인 부담			
세브란스 진료편의	VIP 라운지				●	●	●	●
세브란스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 배우자 포함					20%	30%	50%	100%

* 연세대학교에 기부하시면 위와 같은 다양한 예우 혜택을 드립니다. 본 예우 내역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출연하신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일시납, 정기납, 수시납 중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입금 방법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자동 이체 중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참여 문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 경영전문대학원 행정팀 Tel. 02-2123-6255 · Fax. 02-2123-8639 · E-mail. ysbgive@yonsei.ac.kr

고 / 맏 / 습 / 니 / 다

연세경영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참해 주신 분들의 귀중한 뜻을 받들어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과 연구로
세계로 도약하며 더욱 발전하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CHOOL OF BUSINESS,
YONSEI UNIVERSITY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T. +82-2-2123-6255 F. +82-2-2123-8639 H. <https://ysb.yonsei.ac.kr>

📷 yonsei_business_official

